

미래형대학 이런 대학 없습니다

MY
BRIGHT
FUTURE

地域社會
지역사회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경험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해외 10대 거점 도시에서 현장체험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국내 등록금으로 미·중·일 해외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시아 각지를 무대로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 1년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영어 몰입형 수업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은
언제, 어디서든
가르칩니다

- 24시간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교내현장실습 강의실을 구축하였습니다
- 영화·영상·콘텐츠·디자인·AI 등 특성화 교육을 집중 육성합니다
- 강의, 교수, 강의실, 시험이 없는 혁신적인 수업이 운영됩니다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언제든지 적성에 맞는 학과로 전과가 가능합니다
- 희망자 모두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 크리에이터 활동을 위한 1인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 창업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전과정을 지원합니다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권두칼럼
지역연구 특집
동북아협력 심포지엄 지상중계
한일 新시대포럼 지상중계
전문가의 눈
부산의 공공기관
CEO 포커스

‘해양클러스터’와 부산 발전
중국 시진핑 체제와 동아시아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 인터뷰

명사 에세이
역사산책
김홍희의 포토 에세이
부산 스토리텔링
예술의 풍경, 예술가의 초상
어떻게 지내십니까
편집인 칼럼

책을 읽자
조선시대 동래는 ‘그림의 도시’ 명성
팬글씨를 배우면서
동래부사 유심 선정비
안기태 원로 시사만화가 인터뷰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인터뷰

地域社會 지역사회

2023년 1월
제4권1호

‘해양클러스터’와 부산 발전



2023년 1월 제4권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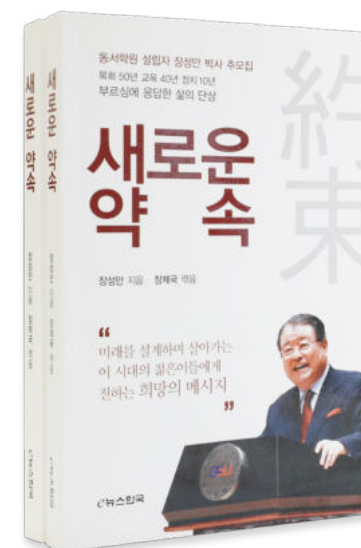


동서학원 설립자 장성만 박사 추모집
목회 50년 교육 40년 정치 10년
부르심에 응답한 삶의 단상

새로운 약속

장성만 지음 · 장제국 엮음

“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



約束



004 권두칼럼

나의 독서법

장제국

COVER STORY



006 지역연구 특집 : '해양클러스터'와 부산 발전

KIOST, KMI, 대학 등 학·연 협업 플랫폼 주도할 '촉진자' 지정을	전형모
해양 중심지 성공 위해 산업·인프라·중추기능 균형발전 필수	장하용
시·기업·대학 뭉쳐 해양산업 발전 추구...시너지 성과 창출 중요	원광해
해양신사업, 부산 성장 이끌 대안 부상...R&D 거버넌스 구축 절실	박세현
산·관·학 협력 강화로 융합·해기·글로벌 역량 갖춘 인재 육성해야	윤희성
'동북아 해양수도' 외화내빈 우려...해의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한철환

048 동북아협력 심포지엄 지상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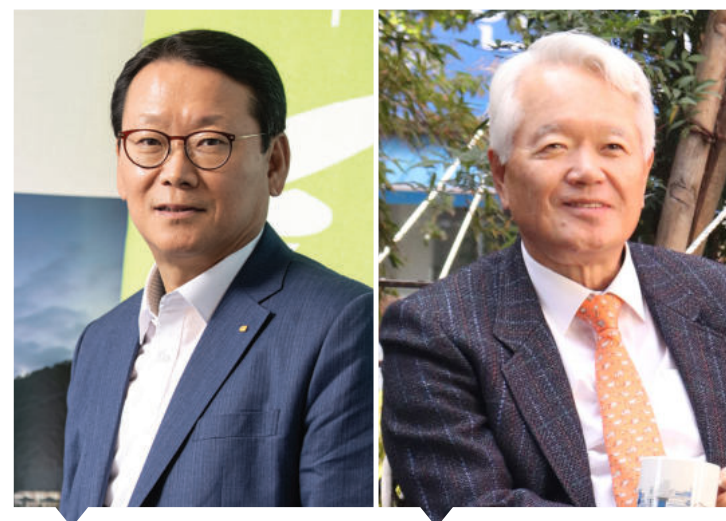
[1세션]	
한-중-일 안보협력 방향	차두현
동북아협력의 현재 도전과 미래 전망	류밍
한-중-일 정치안보 보장 협력 메커니즘	고가 케이
[2세션]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CJK 경제협력 과제	양평섭
일본의 핵 폐수 배출 문제와 동북아의 환경 관리	웨샤오핑
전통 속에서 현대 인문·문화 교류 및 그들의 미래를 본다	히라이 토시하루

066 한일 신시대포럼 지상중계

국제 영향력 커진 중국 '핵심이익' 강조	신정승
------------------------	-----

077 전문가의 눈

중국 시진핑 체제와 동아시아 : 갈등과 협력 요인 병존	이홍규
--------------------------------	-----



084 Dongseo News

동서대학교 소식 2022년 7월 ~ 12월

092 부산의 공공기관 : KFA세안문화원

동남아 10개국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도모

이인혁

099 CEO 포커스 :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

"건설에서 관광레저·게임으로... 글로벌 디벨로퍼 꿈은 끝이 없다"

장지태

109 명사 에세이

책을 읽자

송길원

114 역사산책 : 부산의 역사 현장 3

조선시대 동래는 '그림의 도시'로 큰 명성

류승훈

121 김홍희의 포토 에세이 4

펜글씨를 배우면서

김홍희

127 부산 스토리텔링 5 : 동래부사 유심 선정비

다시 만난 날

이미욱

132 예술의 풍경, 예술가의 초상 5 : 안기태 시사만화가

시대의 아이콘, 팔순의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

윤기현

139 어떻게 지내십니까 : 정의화 전 국회의장

"2030 엑스포 유치하면 부산은 물론 우리나라에 기회 될 것"

김용성

146 편집인 칼럼

거듭 '인사가 만사'를 되새기며

장지태

地域社會

통 권 제4권1호

발 행 인 장제국

편 집 인 장지태

발 행 일 2023년 1월 2일
(매년 1월, 7월 발행)

등록번호 사상, 사00004

등록일자 2020년 6월 2일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315호

T e l 051) 320-1708

F a x 051) 320-1691

E-mail pusamo21@dongseo.ac.kr

인 쇄 처 CCA

인 쇄 인 정형권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나의 독서법

장 제 국 동서대학교 총장



“

매일 30분 이상의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책이라는 밥’을 펴낸 이석연 변호사는 “아무리 바빠도 항상 밥은 챙겨 먹듯이 독서도 매일 해야 한다”고 했다. 안중근의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무턱대고 책을 읽는 것보다 자신만의 독서법을 개발해가면서 독서에 임하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 각자 독창적인 독서법을 개발해 보자.

”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분야의 신간 서적들은 못다 한 숙제 같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책상 위에는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책이 수북이 쌓여만 간다. 외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서적까지 포함하면 기하급수적이다.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정보 홍수의 한 가운데 서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가끔 학생들이나 지인들이 이렇게 범람하는 정보를 어떻게 읽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라고 물어온다. 난들 뽀족한 방법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시킨 나름의 방법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다.

우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정보를

섭렵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괜한 욕심은 스트레스만 가중시킨다. 건강에 해롭다. 책을 구입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는 마음도 버리는 것이 좋다. 책값을 뽑는답시고 한 장 한 장 다 읽는다고 한들 어차피 일주일만 지나면 거의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 그러므로 책의 서문과 결론 부분을 먼저 읽어 우선 저자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골자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에 집중한다. 표지 띠지에 적혀 있는 문장이 때론 책의 핵심을 알아차리게 하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 신문에 소개된 서평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책의 골자를 먼저 파악한 후에는 목차를 보며 핵심과 가장 가까운 기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장으로 곧바로 이동한다.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밑줄을 치고 필요에 따라서는 메모를 하며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그리곤 과감하게 그 책에서 손을 떼다.

이러한 작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주된 관심 분야의 기초지식을 머리에 정립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널리 읽히는 입문서 정도는 마음먹고 정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대학교양에서 읽었던 한국사 입문이나 고교 국사책을 다시 꺼내 들고 입시생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섭렵해 보자. 다시 집어 든 고교 교과서는 정겨움으로 다가와 그때 그 시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용을 습득하고 있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입문서 내용만 머리에 확실히 넣어 두면 그다음부터는 웬만한 관련 서적은 건너 뛰어가며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된다.

책을 읽은 후 방치하면 머리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핵심 내용은 주기적으로 외워야 한다. 또 필요할 때 끌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요즘 좋은 스마트폰용 메모 앱이 많이 나와 있어 활용하면 손쉽게 그러한 작업이 가능하다. 필자는 ‘에버노트’라는 앱을 사용하는데, 입력해 둔 내용을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하다. 독서를 하면서 밑줄 친 부분을 정리해서 앱에 입력한다. 가능하면 발췌한 부분을 육성으로 읽어 음성인식으로 입력한다. 사투리가 심하면 입력의 어려움은 있지만, 소리 내어 읽으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 다만 어떤 부분을 발췌할 것인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너무 많은 내용을 입력해 두면 오히려 활용이 어려워진다. 핵심의 핵심만을 찾는 작업도 중요한 연습이다.

책을 읽으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영감은 투명 ‘포

스트’ 잇에 정리해 해당 페이지에 일단 붙여둔다. 나중에 메모를 뜯어서 보관하면 후에 긴히 활용 가능한 나만의 아이디어 노트가 된다.

외국 서적의 경우, 아마존닷컴의 ‘킨들’에 다운로드 받아 읽는다. 미국에서 출판되는 모든 책은 출간과 동시에 바로 전자책으로 읽을 수 있다. 원하는 문장을 복사해 붙이는 기능을 활용, 바로 메모 앱에 저장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또한 전 세계 독자들이 줄을 친 부분을 내가 선정한 밑줄과 비교해 가며 읽으면 도움이 된다.

바야흐로 빅데이터형 독서시대가 열린 것이다. 신문은 매일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신문이 아침마다 보내주는 ‘뒤편’은 뉴스의 핵심을 알려주어 매우 유용하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아사히신문 등과 같은 외국 신문의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메일을 등록하기만 하면 무료로 매일 아침 자사 기사를 요약해 보내준다. 번역기를 돌리면 언어의 장벽도 넘을 수 있다. ‘네이버-칼럼’을 통해 전국신문에 실린 칼럼을 훑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작금의 우리 사회의 담론을 꿰뚫을 수 있다.

매일 30분 이상의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책이라는 밥’을 펴낸 이석연 변호사는 “아무리 바빠도 항상 밥은 챙겨 먹듯이 독서도 매일 해야 한다”고 했다. 안중근의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무턱대고 책을 읽는 것보다 자신만의 독서법을 개발해가면서 독서에 임하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 각자 독창적인 독서법을 개발해 보자.

(국제신문 2022.12.07. 게재)

COVER STORY : 지역연구 특집 '해양클러스터'와 부산 발전

KIOST, KMI, 대학 등 학·연 부산 밀집 협업 플랫폼 주도할 '촉진자' 지정을



전 형 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혁신 클러스터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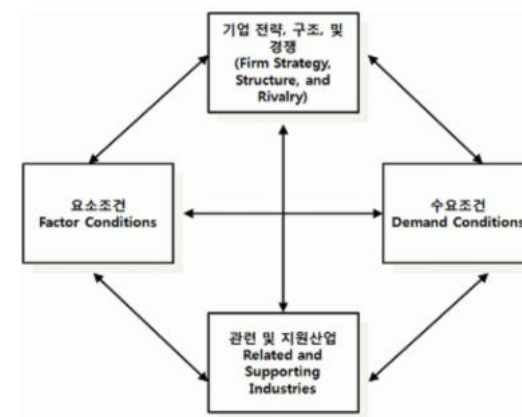
클러스터는 산업들이 인접장소에 입지하면서 생산요소를 공유하고, 지식창출, 공유, 활용이 기술 혁신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클러스터는 마이클 포터의 국가경쟁력 이론을 통해 정의되었다. 마이클 포터는 생산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 경영여건까지 평가하는 모델로 유명한 다이아몬드 모델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마이클 포터는 특히, 이러한 요소가 체계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군집(Clustering)을 이뤄

공간적으로 근접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¹⁾

OECD는 1999년에 대학, 공공연구기관, 컨설팅 회사, 지식집약사업 서비스회사, 브로커 등을 클러스터의 혁신 주체에 포함하여 '혁신 클러스터 (innovative cluster)'라고 명명하였다.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혁신 클러스터는 4가지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클러스터가 속한 경제체제 별로 규모, 연계수준, 연구개발 투자의 정도, 혁신 제품의 비중 등이 차이가 나므로 단 하나의 이상적인 클러스터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신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이나 성숙된 산업을 토대로도 형성 가능하다. 셋째, 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조직기술이나 마케팅 기술 등의 지식이 클러스터 형성에 중요하다. 넷째, 혁신 클러스터의 지리적 범위는 국지적,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등 지식의 원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



자료 : <https://brunch.co.kr/@linecard/709>

1) Porter E Michael, 'The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Tre Free Press, 1985

01 해양클러스터와 부산 발전-총론

KIOST, KMI, 대학 등 학·연 부산 밀집...협업 플랫폼 주도할 '촉진자' 지정을

전형모

02 해양클러스터와 부산 발전-부산의 현황과 과제

세계 7위 항만, 해양중심지 줄곧 지향...산업·인프라·중추기능 균형발전 필수

장하용

03 해양클러스터와 부산 발전-지산학 협력

시-기업-대학 뭉쳐 해양산업 발전 추구...시너지·성과 창출 프로세스 구현 중요

원광해

04 해양클러스터와 부산 발전 - 미래 해양과학기술

해양신사업, 부산 성장 이끌 대안 부상...융합기술 R&D 거버넌스 구축 절실

박세현

05 해양클러스터와 부산 발전 - 인재 인프라 구축

융합·해기·글로벌 역량 갖춘 인재 육성...기업·정부·지자체·대학 협력 강화해야

윤희성

06 해양클러스터와 부산 발전 - 해외 해양거점의 시사점

'동북아 해양수도' 외화내빈 우려...해외 해양클러스터 적극 벤치마킹을

한철환

수 있으므로, 집적지가 모두 클러스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혁신 클러스터의 구성요소는 각 클러스터에 따라 정의가 약간 다르나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 대표적인 해양산업 혁신 클러스터 중 하나인 미국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TMA(The Maritime Alliance) BlueTech는 혁신 클러스터의 주요 구성요소 개념인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트리플 헬릭스는 학계(Academia), 정책(Policy), 산업(Industry)의 협업구조를 의미한다. 학계는 연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능력을 지원하고, 펀딩을 유치하며,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입안자는 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며, 경제적 호황을 이끌어 내어 관할지역의 부가가치 및 고용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클러스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산업계는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기술을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노르웨이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조직인 Innovation Norway에서는 클러스터의 구성요소를 학계(Academia), 자본(Capital), 기업(Corporate), 정부(Government), 그리고 혁신기업가(Entrepreneur) 등 총 5개로 정의하였다. 전통적인 트리플 헬릭스와 비교하면 자본과 혁신기업가가 추가되었다. 여기서 자본은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적, 상업적 지원자금으로 재원은 정부나 민간 엑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금이 될 수 있다. 트리플 헬릭스에서는 정책(Policy)에서 법제도 및 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는 이를 정부와 자본으로 구분하였고, 마찬가지로 기업도 기성기업과 스타트업/벤처기업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혁신 클러스터 구성요소로 지역의 전략산업, 지식기반환경, 제도 및 거버넌스 등의 혁신환경, 네트워크 4가지로 요약된다.²⁾

혁신 클러스터 성공 요인 및 효과

클러스터 발전 모습은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논의가 많으며 초기, 형성기, 성장·안정기, 쇠퇴기 등 4단계

노르웨이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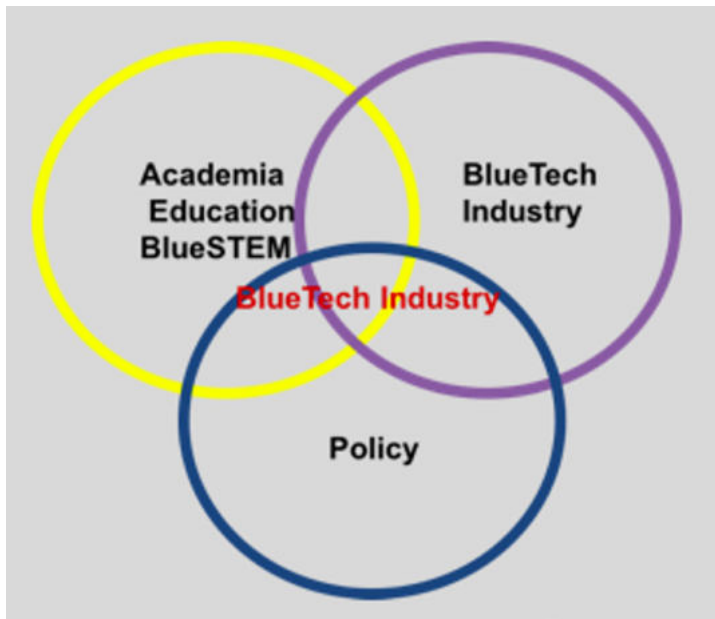


에 거쳐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다. 각 주기별로 다양한 성공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반조성기에는 공간적 집적, 앵커기업의 존재 등이 있으며, 형성기·모색기에는 전문연구센터의 존재, 산학연 연계 등이 중요하며, 성장·안정기에는 클러스터 간 융합, 글로벌 시장확대 등이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특히, 모든 단계를 걸쳐 중요한 성공 요인은 비전

을 제시하고, 다양한 클러스터 참여기관 간의 연계·조정할 수 있는 기관의 존재이다. 기업과 자본, 연구기관, 대학, 자본 등이 인접한 공간에 밀집해 있더라도 상호 간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킹, 매칭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기대했던 시너지를 일으키기 어렵다. 실제로 세계적인 해양산업 클러스터는 이러한 연계·조정자가 클러스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TMA BlueTech이

TMA BlueTech Triple Helix



2) 김명진 외 1인, 지방정부 주도로 육성된 혁신클러스터 비교 연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4

혁신 클러스터 구성요소



자료 : 김명진 외 1인, 지방정부 주도로 육성된 혁신 클러스터 비교 연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4)

클러스터 성공 요인과 정책수단

구 분	기반조성기(Initial stage)	형성기 · 모색기(Expansion stage)	성장 · 안정기(Mature stage)
클러스터 성공요인 (정경희, 2008)	기반구축 • 핵심지역은 30분 이내 접근(집적) • 지역의 위기의식 • 지역 산업의 선택과 집중 • 핵심이 되는 기업 존재 • 비전제시자 존재 • 세계적 인재의 유치·생활환경	산학연 연계와 연구개발 능력 • 핵심이 되는 세계수준의 연구 개발력 • 전문연구센터의 존재 • 산 · 학 · 연 연계 • 벤처기업의 활력 · 높은 인재 유동성 • 벤처기업과대기업, 대학등과의 연계 • 연계조정기관의 존재 • 기업지원기관의 존재(VC, 인큐베이터, 금융, 법률 등)	혁신클러스터 간 융합 및 시너지 발생 • 타 클러스터와의 융합 • 클러스터 지명도의 향상 • 글로벌 전개에 의한 시장 확대 • IPO(주식공개)에 의한 신뢰도 향상, 고성장
정책수단 (Brenner and Schulump, 2011)	• 기반 조성(테크노밸리, 인큐베이터 등) • 혁신문화 발전 • 신생기업지원 • R&D 지원 • 교육(포럼 및 컨퍼런스), 네트워크(비공식, 기관), VC(venture capital) 지원 등	• 신생기업지원 • R&D지원 • 교육지원 • 네트워크 지원(포럼 및 컨퍼런스 등) • VC(venture capital) 등 각종 서비스 제공 • 산업간 협력	• 스핀오프지원(자금, 공동협력방안 모색 등) • 전문인력 질적제고 • 네트워크 고도화 등
비 고	**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자료 : 김명진 외 1인, 지방정부 주도로 육성된 혁신 클러스터 비교 연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4)

나 Innovation Norway는 혁신클러스터에 있어 이러한 3개 또는 5개의 구성요소를 연결하고 조율하고 활성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클러스터 촉진자(Facilitator)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Facilitator는 해당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의 하나로, 클러스터 회원으로 참여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조정, 기획, 비즈니스 컨설팅, 기술지원, 교육(대학 및 연구기관 제공)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촉진자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해당 클러스터는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Innovation Norway에 속한 해양산업 클러스터인 GCE Ocean Technology(베르겐 위치)는 23개 지분 파트너 기관, 95개 멤버기업, 36개 협업기관 및 485개 유관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세계 최고의 해양/해저개발 클러스터 구축(EU의 Cluster Gold

Label 달성)하고 있으며, 수산양식 관련 클러스터인 NCE Seafood Innovation Cluster는 설립 3년 만에 57개 지분 파트너, 122개 스타트업 육성, 18,000명 고용창출, 1,060억 원 R&D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동일 지역(베르겐)에 같이 위치하고 있는 GCE Ocean Technology와 NCE Seafood Innovation는 클러스터 간 연계를 통해 해양/해저 장비업체에게는 외해양식 기술시장 제공, 수산 양식기업에게는 자동화 기술제공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캐나다 동부연안에 위치한 해양도시인 핼리팩스 역시 주정부(Nova Scotia)의 지원을 받아 해양과학기술 혁신생태계인 COVE(Centre for Ocean Ventures & Entrepreneurship)를 구축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기관³⁾, 비영리 민간기관⁴⁾ 등이

3) 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자원),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기술), Nova Scotia Business inc.(비즈니스), Halifax Partnership (비즈니스), OTCNS(산업)

4) Institute for Ocean Research Enterprise(COVE 운영), Canada's Ocean Supercluster(네트워크), Dalhousie Unvi.(기술, 인력)

COVE의 혁신클러스터 생태계



자료 : 저자 작성

모두 참여하여 각기 역할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COVE 역시 비영리 민간기관인 해양기술산업협회 OTCNS(Ocean Technology Council of Nova Scotia)가 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COVE 등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역할에 힘입어 헬리팩스시가 위치한 노바스코샤주는 경제성장, 인구 및 학생 수 증가 효과와 함께, GeoSpectrum과 같이 스타트업이 세계적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⁵⁾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헬리팩스시의 인구 증가가 출산율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헬리팩스시로 이주해오는 대학생과 취업자의 증가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즉, 헬리팩스시의 해양혁신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고, 많은 혁신기업들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이전해 오는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헬리팩스 지역의 Dalhousie Unvi.의 학생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부산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산업을 키우면 대학의 학생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다시 산업에 양질의 인재가 공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산 해양산업 클러스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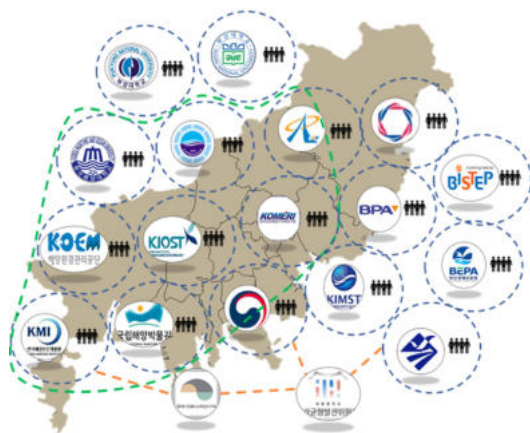
부산 해양수산업은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혁신은 부족한 편으로, 산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업 및 연계, 그리고 정책화(사업화 또는 R&D 추진)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부산은 산업적 기반 및 수요, 중견·앵커기업, 연구역량, 자원, 공간 및 정책적 지원 등 해양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요건이 내재하고 있다. 기술보증보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등 다양한 창업·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많은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재원을 지원 중

5) 노바스코샤 해양산업 연간 4.5조 원(지역 GDP의 12.2%) 생산, 35,000명 고용, 핼리팩스 시 2017년 대비 실업률 1.1% 감소, 2017년 대비 인구 1.6% 증가, 타 지역 및 국제학생수 지속 증가

이며, 부산지역 8개 창업지원기관, 31개 창업지원 시설이 다양한 공모전, 사업, 이벤트 등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에게 공간 및 네트워킹 등 제공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른 부산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동삼 혁신지구를 비롯하여 부산지역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공공기관 이전 완료,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지정, 혁신도시 시즌 2, 국가 혁신 클러스터 사업 등 다양한 혁신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R&D와 투자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공립 출연연구기관 중 가장 큰 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물과학원 등이 부산에 입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분야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역시 부산에 입지하고 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일의 해양도시답게 해양수산 분야를

부산지역 주요 혁신지원기관 현황



자료 : 저자 작성

핵심으로 국립대인 한국해양대와 부경대, 그리고 부산대와 동아대, 동서대, 경성대, 동명대 등 주요 대학이 집중되어 있어 우수한 해양과학 및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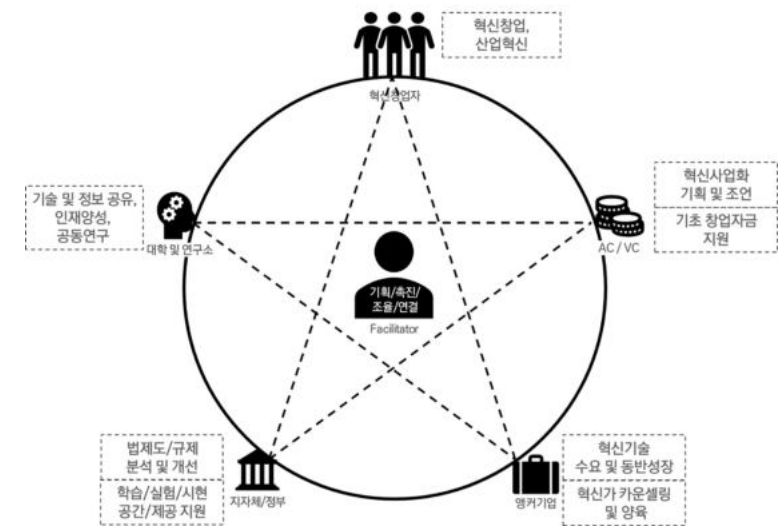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해양 수산업 산업구조는 전반적으로 단순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⁶⁾, 도전적 혁신창업기업의 수도 적은 편이다. 이는 부산지역 해양수산 기업의 영세성, 공공 R&D와 지역산업 간 낮은 연계성, 이 전기관과 지역 창업지원생태계 간 협업 부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화 구조 미흡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해외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혁신자원과 기업-펀드-정책-연구를 연결하고 조율하고 촉진하는 명확한 연계·조정자, facilitator의 부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양도시 부산,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해양산업 발전 방향

해양도시 부산의 해양산업이 기존의 재래적이고 전통적이며, 낮은 부가가치 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 혁신적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재해 있는 다양한 혁신자원을 연결하고 하나의 혁신 생태계(클러스터)로 묶어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연결하는 facilitator의 역할이 중요하다.

협업체계로는 지자체(중앙 및 지방정부), 산업(엔지니어링, 혁신기업), 학계(대학 및 연구원), 펀딩(엑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 등) 등이 참여하는 공동의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플랫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Facilitator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Facilitator는 기존의 공공기관이 담당할 수도 있고,

부산 해양산업 혁신 생태계 구상



자료 : 저자 작성

별도의 기구나 비영리 재단,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하고,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유사한 업무를 많이 수행했던 엑셀러레이터의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테크노파크 등이 맡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산시 등의 추진 의지이다. 주요 연구기관의 이전이나 대학은 이미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재원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플랫폼을 구성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지자체/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질의 인력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주거지원이나 교통여건, 임금수준 등 정주여건을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만들지 못하면 양질의 인재는 보다 수요가 높고 주거환경이 안정적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차별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형모 프로파일

미국 Lehigh Univ.에서 산업공학(금공사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역임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 수립의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해양수산 수소경제기술 활성화 방안,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조성 타당성 연구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과학기술정책 수립 연구책임을 담당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혁신클러스터 연구, 과학기술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6) 숙박/음식업(47%), 수산물 유통·판매업(19.2%), 해양과학기술(0.3%), 정보/금융업(0.5%), 가공/식품업(1.3%), 해양레저관광(1.5%), 숙박/음식 제외), 기자재/장비제조(5.6%)

세계 7위 항만, 해양중심지 줄곧 지향 산업·인프라·중추기능 균형발전 필수

장 하 용 부산연구원 정책기획팀장



동북아 해양수도(Marine Capital)라는 부산의 오랜 도시 비전은 세계 해양중심지(Ocean Metropolis)라는 부산의 뜨거운 갈망과 지향점을 의미한다. 육상중심지와는 달리 전 세계 5대양이 연결되어 있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해양중심지는 해양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발전한 중심지로 정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이하 해양수도조례)」에서도 해양수도를 “해양을 기반으로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이 활발하고 해양산업이 종합적으로 발달한 도시로 해양산업에 있어

가장 선진적이고 중심이 되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해양수도조례에 의해 마련된 「동북아 해양수도 비전 및 전략」에서는 해양수도를 “해양을 바탕으로 한 경제, 문화, 인재, 금융, 국제교류 등의 미래가치 경쟁력이 국가 수위(首位)에 있으며, 국가 중심(中心)인 도시”로 정의하였다.

우리 지역의 오랜 소망인 세계 해양중심지 부산의 완성을 위해 해양중심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대표 해양중심지인 부산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양수도의 정의



자료 : 부산연구원(2019)

해양중심지의 핵심 구성요소

해양중심지는 활동주체인 각종 해양산업과,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두 요소가 원활하게 연계·협력하기 위한 중추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 핵심 구성요소가 균형 있게 발전한 해양도시를 해양중심지라 할 수 있다.

먼저, 해양중심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해양산업의 중심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해양수도조례에서는 이러한 해양산업을 해운·항만물류, 수산, 조선·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양정보·금융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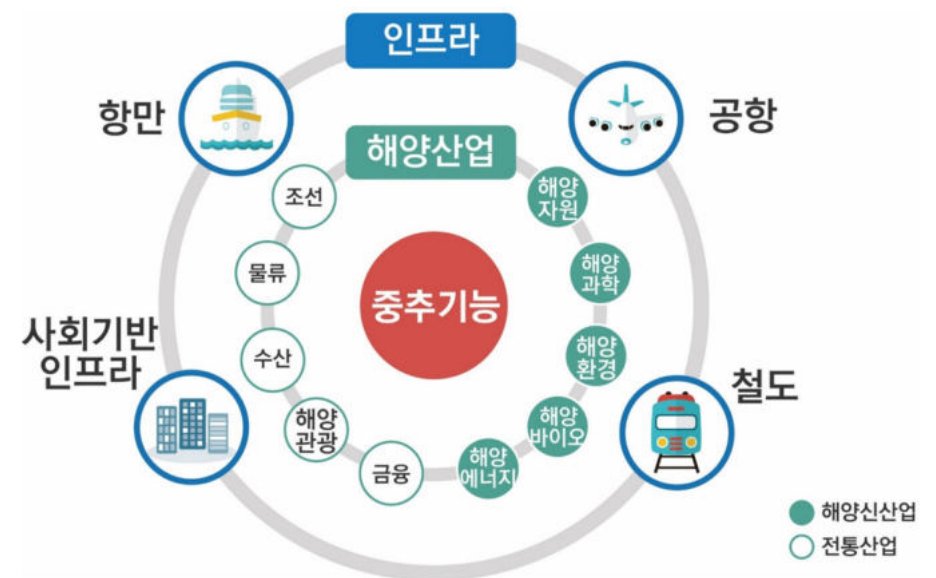
아울러 2011년부터 통계청 승인통계인 ‘부산해양산업조사’에서는 해양산업을 해운·항만물류, 수산, 해양과학기술, 조선, 해양관광, 기타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에 관한 산업으로 나누어 발표되

고 있다.

해양중심지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인프라는 해양과 육지를 원활하게 연계하여 주는 트라이포트(Tri-Port)와 그 배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은 부산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과 더불어 항만·공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완성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해양중심지는 이러한 하드웨어 성격의 대규모 인프라가 수반되는 해양산업과 더불어 해양교육, 해양문화 등 소프트웨어 성격의 중추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해양 중추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그 외에 최근 부울경 지역의 큰 이슈인 해사법원이라는 인프라가 필요한 해사법률,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해양자치 행정을 할 수 있는 해양자치권 등도 중추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해양중심지의 핵심 구성요소



자료 : 부산발전연구원(2018)

해양산업의 분류



자료 : 부산발전연구원(2018)

부산의 해양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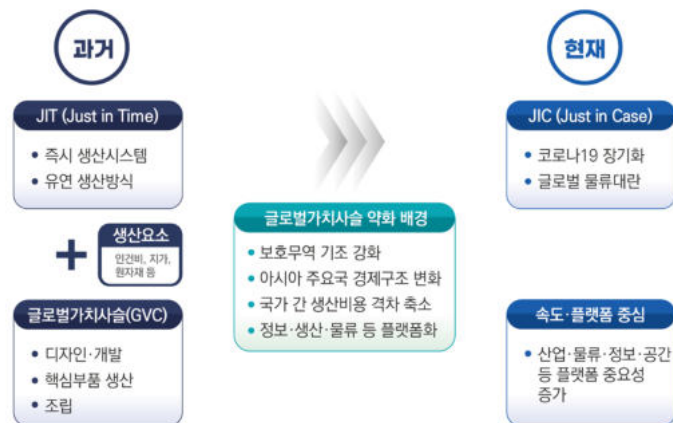
2020년 기준 부산해양산업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내에서 해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수는 총 27,975개로 부산시 전체 사업체(402,003개)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총 144,900명으로 부산시 전체 종사자(1,537,281명)의 9.4%, 매출액은 42.3조 원으로 부산시 전체 매출액(319.5조 원)의 13.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양산업체 수가 2019년 26,653개에서 2020년 27,975개로 1,322개가 대폭 증가한 것은 전자상거

래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가정 내에서 운영되는 개인 인터넷 쇼핑몰 등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체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종사자 수가 2019년 155,852명에서 2020년 144,900명으로 감소한 것은 전통 해양산업의 침체와 코로나19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부산의 구군별 해양산업체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구, 영도구, 해운대구 순으로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시 해양산업의 46.1%가 원도심(중구, 영도구, 서구, 동구)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중심지에 있어 트라이포트의 중요성



자료 : 부산연구원(2022)

부산의 해양산업 현황



자료 : 부산해양산업통계(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산업의 발전이 수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부산의 주요 해양인프라

부산이 글로벌 해양중심지 부산을 달성하기 위한 제1의 해양인프라는 부산항이라 할 수 있다. 부산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1734년 창간) 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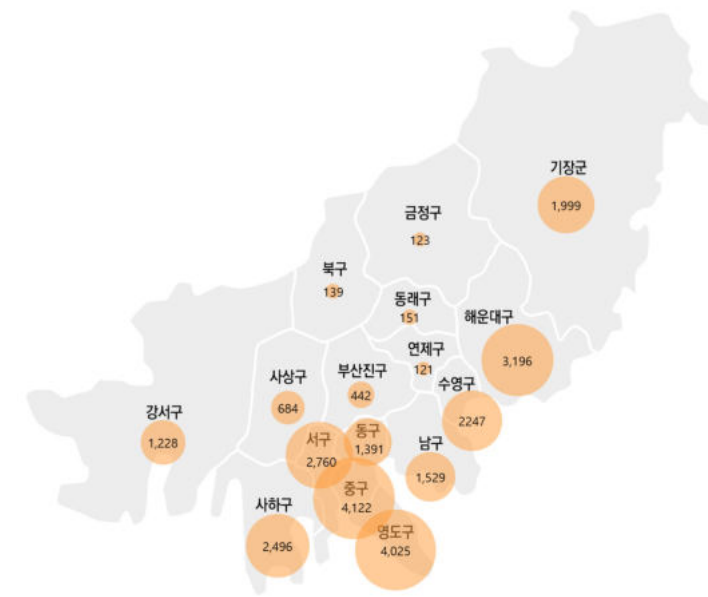
중 하나인 런던의 로이즈리스트(Lloyd's List)가 발표한 '2022년 세계 100대 항만(One Hundred Ports 2022)'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하였다.

글로벌 상위 10위권 항만 중 2위 싱가포르, 10위 로테르담을 제외하고, 1위 상하이, 3위 Ningbo-Zhoushan항 등 대부분 중국 항만이 차지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부산의 대표 해양인프라인 부산항은 지

속적인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적화물 순위는 싱가포르에 이어 부동의 세계 2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부산항을 통하여 부산-경남지역 소재 해운항만물류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부산에는 24조 2,83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1조 4,205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4만 4천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경남(창원)에는 3조 2,75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조 4,304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만 8천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산 구군별 해양산업체 수



자료 : 부산해양산업통계(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22년 상반기 10대 글로벌 항만(물동량 기준)

Ranking	Port	Country	Region	1H 2022 (teu)	1H 2021 (teu)	% increase/decrease
1	Shanghai	China	Asia	22,540,000	22,889,100	▼ 1.5%
2	Singapore	Singapore	Asia	18,407,000	18,730,000	▼ 1.7%
3	Ningbo-Zhoushan	China	Asia	17,470,000	16,070,000	▲ 8.7%
4	Shenzhen	China	Asia	14,400,000	13,760,000	▲ 4.7%
5	Qingdao	China	Asia	12,470,000	11,600,000	▲ 7.5%
6	Guangzhou	China	Asia	11,740,000	11,770,000	▼ 0.3%
7	Busan*	South Korea	Asia	11,172,000	10,740,000	▲ 4.0%
8	Tianjin	China	Asia	10,520,000	10,300,000	▲ 2.1%
9	Hong Kong	China	Asia	8,399,000	8,708,000	▼ 3.5%
10	Rotterdam	The Netherlands	Northern Europe	7,278,000	7,212,000	▲ 0.9%
Total				134,396,000	131,779,100	▲ 2%

자료 : Lloyd's List(2022)

부산 GRDP의 12.69%, 경남(창원) GRDP의 1.29%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2018년 기준, 경남연&부산연, 2021)

부산의 핵심 해양인프라 중 하나인 철도의 경우 여객 기준으로 부산의 철도수송 여객수입은 2016년 기준으로 366,077백만원, 인천 59,453백만원, 울산 23,445백만원 순으로 조사되어 주요 타도시와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물 기준으로는

2020년 기준 부산항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에 있어 8.5%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2017) 향후 우리나라와 유라시아 내륙을 관통하는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항신항역이 기종점이 되어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동유럽, 북유럽, 중부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해양인프라로 거듭날 것이다.

부산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양인프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현재의 김해공항은 인프라 규

해상부유식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자료 : 부산광역시 제공

모 및 군사공항으로서의 운용한계로 핵심 해양인프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씨앤에어(Sea & Air) 중심의 폭발적인 복합물류 수요를 창출하고 있어 대형화물기(A380 등)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의 활주로는 길이 3,500m에 폭이 45m에 불과한 상태이다. 부산항과 유라시아철도와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한 핵심 해양인프라로서 가덕도신공항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4분의 활주로와 같은 폭 60m의 활주로가 갖추어진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므로 지역사회의 더욱 각별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세계 해양중심지 완성을 위한 보완 과제의 도출

4차산업혁명 시대는 필연적으로 전 세계 국가와 도시가 해양을 중심으로 초연결, 초융합되어 인류에게 더 나은 기회와 미래를 제공하는 시대인 초해양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 세계 해양중심지인 초해양도시와 해당도시에 해양을 바탕으로 사업영역 간 한계가 없는 초해양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산이 초해양시대에 초해양도시인 세계 해양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해양산업, 인프라, 중추기능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그간 부산의 강점인 해양과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전한 부산은 세계 해양중심지 완성을 위한 환경적·물리적 인프라 여건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나, 중추기능인 정책적·인적 인프라 부문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개념



자료 : 부산연구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2022)

이로 인해 부산이 세계 해양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해양인프라인 부산항의 경우 하역업 위주의 항만산업 성장으로 하역능력은 증가하였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경쟁항인 중국 상하이항 16.8조 원, 싱가포르항 16.5조 원,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14.3조 원에 비해 6조 원대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세계 해양중심지 부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 강점인 해양산업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마트화된 해양과 연관된 금융서비스 기능, 행정 기능, 도시 정체성 확립, 해양교육 시스템 강화와 인재 육성, 국제적 해양도시네트워크 구축 등의 중추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해양분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자율성 바탕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독립적인 해양자치 권한을 가져야 한다.

세계 해양중심지 완성을 위해서는 트라이포트를 통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물지능융합기술(AIoT) 및 물류단지, 산업단지, 경제특구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첨단 비즈니스 간의 물류 및 정보흐름을 혁신함으로써 동남권 물류산업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트라이포트 배후단지이자 가상적 해상물류생태계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아울러 세계 해양중심지 완성은 해양산업이 발전한 부산뿐만 아니라 공동생활·도시권 및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산업협력 네트워크가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울산시-경남도와 같이 진행해야 한다. 부울경이 해양이라는 지역의 연계성 높은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해양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행정적인 지위 확보가 가능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추진이 필수적이다. 그

리고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로 부산의 역사적인 해양산업의 중심지인 부산북항 일원에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유치된다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세계 해양중심지로서 우뚝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부산발전연구원.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기본계획. 2018
- 부산연구원. 동북아 해양수도 비전 및 전략. 2019
- 부산연구원. 두바이 사례로 본 부산 트라이포트 완성 전략. 2022
- 부산연구원.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 육성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2022
- 부산연구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2022
- 경남연구원&부산연구원.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 최종보고서. 2021
- 부산광역시. 부산해양산업조사. 2021~2022
- Lloyd's List. 2022년 세계 100대 항만(One Hundred Ports 2022). 2022
- 부산광역시.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보고서. 2017

장하용 프로필

부산연구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장(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항만연수원부산연수원 주임교수, 부산광역시청 해양정책과 지방행정주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 전임 연구원 등 해양물류정책분야에 다양한 현장경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연구저서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방안』(2022), 『부산 스마트 항만(Smart Port) 연관산업 육성방안 연구』(2020) 등이 있다.

시-기업-대학 뭉쳐 해양산업 발전 추구 시너지·성과 창출 프로세스 구현 중요



원 광 해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단장

들어가며 : 협업(Collaboration)이란 무엇인가?

최근 협력이나 협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협업(Collaboration)이란 무엇일까? 협업은 사전적 의미로 공동 출연, 경연, 합작, 공동 작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협업의 핵심 내용은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동료인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함께 조율하여 움직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련의 과정들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각자의 경험과 지식, 전문성 등은 중요시해야 하며, 각자의 전문분야를 인정해야 하는 기본전제가 따를 것이다.

결국 협업의 미덕은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과 경험이 더해져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며, 협업의 성공이 서로 다른 영역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협업은 함께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남의 말이나 의견을 듣는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비단 해양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 모든 기업-대학의 연계구도에서 같이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방형 산학협업의 파급효과

개방화와 첨단기술화 등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경쟁은 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줄곧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공적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점차 방대해지는 예산부담으로 인해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다양한 동반성장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주도의 중소기업 지원책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환영받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자료들에 의하면 대기업을 포함하여 외부기관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의 정도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원인의 하나는 기술협력의 부작용을 포함하여 관련 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협력을 통한 효과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이를테면, Becker and Dietz, 2004)에 의하면, 기업들 간 협력의 긍정적 효과는 이들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인데, 이는 협력이 지식과 정보의 파급, 비용과 위험의 분담, 상호보완적 자원 활용을 통한 역량의 개발 등을 야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협력을 통해 기업들 간 보완적 자산이 공유되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더불어 서로 다른 기술이 융합해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키는 만꽃가루반이(cross-fertilization)형 기술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자금, 마케팅, 브랜드, 인적자원, 규모, R&D투자 등에서 강점이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생산기술과 공정 노하우, 인력에 체화된 기술 등과 같은 강점을 지닌다는 점은 이들의 협력이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한편 Geroski and Toker(1996)는 혁신활동이 매출액 증가에 대해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국내의 다수 실증연구(Park, 2012; Cho, 2016; Rohetal., 2017; Sun and Kim, 2019)에서도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협업은 영업이익 증가율이나 매출액 증가율과 같은 재무적인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Cho and Kim(2013)은 기업의 개방형 혁신활동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방형 혁신협업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홍성호·김부겸(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술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성공건수와 연구개발 활동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측정된) R&D 성과의 증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에

비해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이 보다 큰 효과를 야기한다. 중소기업 가운데 성숙기에 속할수록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이 활발한 반면에 성장기에 속하는 경우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이 보다 빈번히 이뤄짐을 미뤄볼 때,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은 주로 응용기술을 대상으로 이뤄지나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은 원천기술에 대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을 통한 단기 R&D 성과가 대협업을 협력 파트너로 하는 경우에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부산형 지산학 협력 패러다임

최근 과학기술 중심의 융합개념으로 삼중나선(Triple Helix, H. Etzkowitz 1993) 모델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주체인 대학-산업계-정부가 삼중나선 구조로 얹혀 일체가 되었다는 뜻이다. 기존의 NIS모델에서는 산학연 협동이 강조됐으나, 과학기술 3개 혁신 주체의 역할과 기능이 복합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이 모델은 교육과 우수 연구의 강력한 기반, 민관 투자, 관련 주체 간의 혁신 파트너십과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삼중나선 모델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과학기술혁신 주체를 잇는 지원 기관과 제도의 시너지 효과, 공통의 목표와 혁신 생태계 조성, 새로운 교육과 연구의 협력과 연계를 가능케 하는 혁신 정책이다.

삼중나선(Triple Helix, H. Etzkowitz 1993) 모델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조망으로 정책과 규제에서 연구개발 주체를 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어야 NIS가 바로 작동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혁신 주체(innovation actor) 간의 신뢰가 R&D 인프라의

부산의 지산학 협력 모델



부산광역시

지산학협력의 전략을 구체화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총괄합니다.

산업(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우수한 공급 기술을 활용하고, 채용연계 현장실습을 진행하여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재와 기업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지역대학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유의미한 연구개발을 활발히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핵심가치인데, 높은 수준의 신뢰와 강력한 연대를 가능케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산학 협력 모델 역시 이러한 삼중나선(Triple Helix, H. Etzkowitz 1993) 모델의 확장판이라 볼 수 있다. 부산은 현재 인구의 고령화 가속, 대학 경쟁력 위기,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현안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산학 혁신도시 부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결국 지산학이란 '지자체(지역)+산업계+학계'의 Triple 협력을 종합적으로 내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어쩌면 지산학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종합적인 협력의 체계일 수 있겠다.

부산시의 지산학 협력의 핵심 기능은 매개 역할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의 연결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이를 위한 세부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다.

첫째, 대학과 기업의 기술연계 활성화이다.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면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기술혁신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중 대다수의 기업들은 기업 내부의 기술혁신을 이끌어 내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간혹 자체 보유한 기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추가적 고급기술의 확보나 업그레이드 단계에 들어서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기업들은 대학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협력 추진이 가능하다. 대학은 기초연구부터 사업화단계의 연구까지 다양한 지식정보와 특허, 논문 등의 성과들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와 관련한 국내외 네트워크, 관련 연구장비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이 대학과 협업하여 공동연구를 한다거나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산학협력단이나 LINC사업단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협력은 대부분 대학이 관리하는 가족회사 혹은 대학 연구자 개개인과

지산학 협력의 핵심기능



연결된 네트워킹에 기반하는 등의 범위적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부산형 지산학 협력체계는 이러한 대학이 보유한 기술적 역량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니즈를 파악하여 연결한다. 대학이 보유한 특허, 논문, 연구자 정보 등을 파악하여 기업에게 제공해 주고 기업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필요한 기술정보를 습득하여 함께 연구하고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개개인의 네트워킹에 기반한 협력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는 오픈형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기술정보와 노하우를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술특허 DB조사, 기업의 기술수요와 애로 파악, 기술매칭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오프라인 기술매칭데이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대학과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결이다. 오늘날 한국의 4년제 대학 한 해 졸업생 50만 명 중 30만 명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 매달린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교육 비전에 의한 인재 양성이다. '인재야말

로 21세기 부산의 혁신, 경쟁력,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소'이다. 현재 정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위한 링크(LINC Leaders in Industry-college Cooperation) 사업, 창업선도대학 등 대학 혁신 프로그램 추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창업과 연구소 기업 활성화, 우량 기업의 수요 발굴과 청년 인재 매칭의 '취업' 활성화, 청년 창업활성화, 중소기업청의 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등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현실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산재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한계 등등 인재의 활용과 지역정주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대학의 교육커리큘럼 확보 등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산형 지산학 협력체계는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의 기업들을 더 잘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동한 현장실습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의 Co-op 모델을 지향하여 연간 3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지역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고 현장실습을 경험하고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300여 개 지역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수소, AI, 스마트 제조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공유형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대학 간 공유체계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로 하여금 더 깊고 다양한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대학의 혁신과 지산학 정보의 공유체계 구축이다. 지산학 협력체계는 대학과 기업의 매개 역할 외에도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유의 성과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지역대학 위기론의 대두에 따라 지역대학이 새로운 교육과정 개편과 혁신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최근 대학들의 LINC3.0 사업의 기획과 유치, 창업선도대학 등 대학 혁신 프로그램 유치, 산학협력단 사업의 확장 성과관리, 지역기업과의 공동연구나 기술이전 사업화 확대 등 다양한 혁신활동 노력들이 가시적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공공의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과 지원들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산발적으로 축적되고 관리되고 있는 지산학 정보들을 한곳으로 집결하여 보다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의 구축과 활성화가 중요하다. 지산학 통합 플랫폼을 통해 대학과 기업의 기술중개, 인력양성과 제공 연결, 다양한 산학 관련 정보의 공유와 성과 확산의 과정 등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산학 협력의 시너지

부산시는 지산학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산학 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형별 지산학 브랜치를 발굴 확산하고 있다. 2022년 12월 현재 부산시의 지산학 브랜치는 총 50개소를 발굴 개소하였으며, 이들 브랜치는 산학협력의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여 부산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협력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크게는 기업과 기업의 협력, 기업과 대학의 협력으로 구분되고, 좀 더 구체적 유형으로 들어가면 공동기술 연구협력, 인재양성과 공급협력, 인프라의 공동활용, 지식정보의 공유와 공동사업화 협력 등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들 중 최근 주목할만한 지산학 브랜치 산학협력 활동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확대 사례이다. 지산학 브랜치로 선정된 SW마이스터고의 경우 또 다른 브랜치인 삼우이머션이나 아이디노 등 IT기업들과 연계하여 채용연계형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을 추진 중이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수요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하여 졸업과 동시에 우수한 직무역량을 갖춘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인재 활용의 강점이 기대되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통제조업 분야의 열악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폴리텍VI대학과 동아플레이팅, 삼보산업, 제일전기공업 등의 기업들이 협업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기술인력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지산학 연계 신산업 분야 신기술 개발과 공동인력양성을 위한 협력사례도 살펴볼 수 있다. 파워반도체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는 제

엠제코와 같은 반도체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지역 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채용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산학 브랜치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기관들이다. 또한 파워반도체 관련 대학들이 협력하여 반도체 공유대학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과 기업채용을 연계하는 다양한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해양물류, 수소,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기업-연구소들의 협력 사례가 발생하고 이들의 협력모델을 통해 각 혁신주체의 경쟁력이 확대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지산학 협력센터는 이러한 기업과 기업, 대학과 기업, 대학과 대학들의 다양한 협업구조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매칭, 인력양성과 연결 등의 다양한 지산학 지원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무리하며

협업(Collaboration)의 주체는 우리 모두이다. 다만 기존의 산학협력 체계와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지산학 협력 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자체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해양중심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양관련 기업의 역량의 결집도 중요하고 해양관련 대학들의 연구역량 향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모든 혁신요소들을 결집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과 성과창출 프로세스의 구현이 중요하다. 대학과 기업, 기업과 기업, 대학과 대학들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역할은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서의 중개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자체

가 좀 더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연결 프로세스의 효과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지자체는 해양산업의 여러 가지 연결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좋은 기획 아이디어에 대한 전후방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해양중심지 부산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원광해 프로필

부산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단 단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해양대학교, 신라대학교 겸임교수를 비롯하여 부산대, 동의대 등 다수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산연구원(BDI) 등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시집『누군가에게 온전히 무엇이 되어』(2020)가 있다.

해양신사업, 부산 성장 이끌 대안 부상 융합기술 R&D 거버넌스 구축 절실



박 세 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실장

1. 서론

국가경제의 재도약,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 국가적인 현안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여야 한다. 해운·항만·물류시스템의 디지털화, 로봇기술을 이용한 심해 탐사 및 자원 개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관광 수요 창출, 드론을 활용한 안전사고 및 재해 대응 등은 미래 신산업 발굴을 통해 과학기술의 프런티어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해양 에너지, 스마트 양식, 해저로봇, 센서, 자율운항선박, 바이오테크와 나노기술, 재료공학 등이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은 성장 잠재력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도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최고의 해양 전문연구기관을 발판으로 해양과학기술 허브 도시 구현, 다기능 경제 융합의 복합항만도시 건설, 마린토피아, 해양안전, 글로벌 수산의 해양도시 건설이 충분히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에서의 해양 중심의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한 미래 해양과학기술을 전망하고, 해양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부산의 향후 도시발전의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미래 해양클러스터 융합 기술

2.1 해양공간 개발로 신(新)비즈니스 허브 구축

부산의 미래에는 해양공간 이용과 자연의 공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 매립에 의존하던 해상도시 구축 기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의 지반 조성 기법의 기술적인 제안을 통해 해상도시를 독자적인 거주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개발 방법의 다각화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과학분야 최첨단 기술의 융복합화와 고도화 기술로써 미래에 인류의 거주 및 생활공간 확장을 위해 창의적이고 선도적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양플랜트 건설 기술의 관심은 건설·엔지

니어링사, 중공업사, 기자재 기업 등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관심이 증대되어 시장 확대와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기술에 주목하고 있지만, 해양플랫폼과 이송기술 등에 대한 설계와 시공, 접합시스템, 운용·유지관리, 위해 환경 분석 등의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해양구조물은 고성능 소재 해상플랜트 기술개발과 공간디자인과 공학기술의 융합기술인 모듈형 구조형식 개발과 유지·보수를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적지 선정, 구조체 형식, 에너지 공급 형식, 거주민의 생활 유지와 이동을 위한 필요 기술의 확보가 요구된다.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성능 소재의 특성을 활용한 구조시스템 개발이나 강도 변형 특성과 성능평가 기술, 제작 및 현장설치 기술 등 연관 기술의 통합 개발을 통해 미래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극한지 역학모델개발, 대형구조물 해석과 설계, 내구성 확보 프로토타입 개발, 해수면 변화를 고려한 구조물 기초 개발 등과 유비쿼터스 구조의 내외측 해상구조물 환경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기술개발 등도 요구되고 있다.¹⁾

현재, 해상도시 시장은 아직까지 미개척 영역으로 집중적인 투자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나,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과 인력·물자 조달 등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 산업까지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호주 Waterford사가 'Goffs Coast'에 다목적 해저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공원 조성을 위한 해저돔으로서 수중 조각공원, 인공어초(artificial reefs), 해저생물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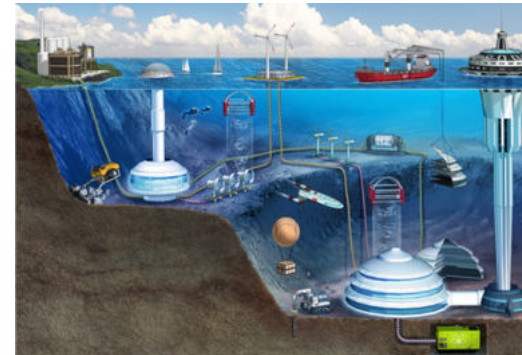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호텔에 개장된 수중 레스토랑

지(HABITAT Waterford) 및 수중 해양관광을 위해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Jules Underwater Lodge는 다이버의 수중 체류와 관광 이벤트를 위한 해중 숙박 공간으로 이용되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호텔에는 잠수함을 타고 입장하는 수중 레스토랑이 개장되었다.²⁾

이스라엘의 해안가 수심 5m 아래에도 'The Red Sea Star'라는 해중 레스토랑이 있으며, 몰디브에는 해안가 수심 5m 아래 투명 아크릴로 만든 'Ithaa' 해중 레스토랑이 있다.

이와 같이 해양공간 개발은 육상의 부족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단지개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양에너지 개발, 주거공간의 확보, 폐기물의 저장, 관광자원 확보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복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양을 활용한 미래가치 창조는 이미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관광, 생태, 에너지개발, 자원 재활용 등 복합기능을 추구하는 미래형 해상도시와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은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을 나타내는 랜드마크로 부각될 것이다.



해저기지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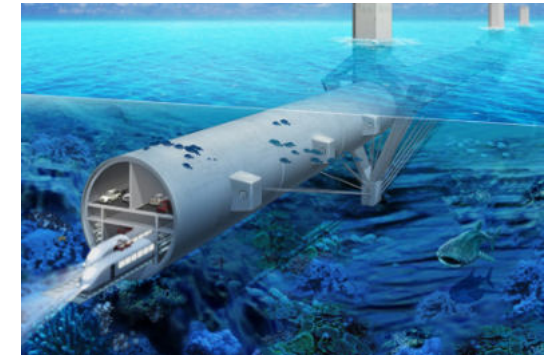
이미 세계적인 해양공간자원 활용기술은 기술적인 건설의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공간 디자인과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의 실현이라는 문화 콘텐츠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어 기술과 문화의 융합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해양플랜트기술 개발 및 공간 디자인과 함께 공학기술의 융합기술인 모듈형 구조형식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위한 서비스산업도 육성될 것이다.

2.2 해양개발을 위한 첨단 해양로봇·수중통신·장비 개발

최근 급속히 부각되고 있는 산업간 연계를 통한 ICT, ET와의 융복합기술의 활성화로 해저, 공해, 지상에서 군사용으로 특화된 이동체 개발을 중심으로 해양자원, 해양플랜트, 해양구조물 등에 있어 다양한 첨단 해양로봇 제품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심해 해양구조물의 정밀 시공·관리 로봇, 수중방위 무인화 체계, 장거리 수중 통신 모뎀 및 네트워크기술 개발, 11,000m급 심해유인잠수정, 무인항공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s: UAS) 및 드론 등을 통해 영상자료와 데이터가 방대하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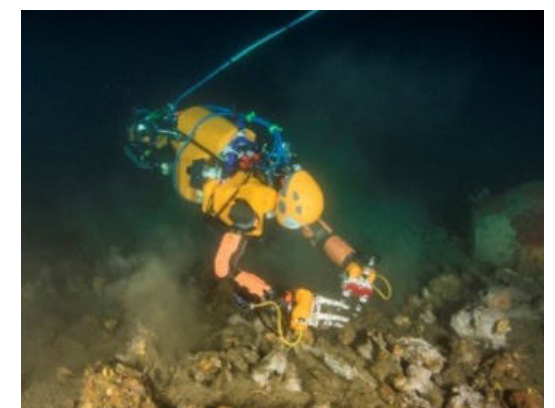


사상식 해저터널 개념도

집될 것이고, 해양개발을 위한 해양구조물의 수중 작업능력 고도화 및 수중 극한환경 조사·탐사 지원, 해역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구조물 시공 상태의 감시·유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로봇 및 장비도 첨단화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급증하는 해양구조물 시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중 시공현장의 위험성 및 유인공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수중건설로봇의 국산화가 성공되었으며, 원거리에 있는 수중 이동체 간에 음파를 이용한 실시간 제어, 명령, 감시가 가능한 장거리 수중통신 모뎀 및 네트워크기술도 고도화 되고 있다.

향후에는 항만 구조물 및 해양의 다양한 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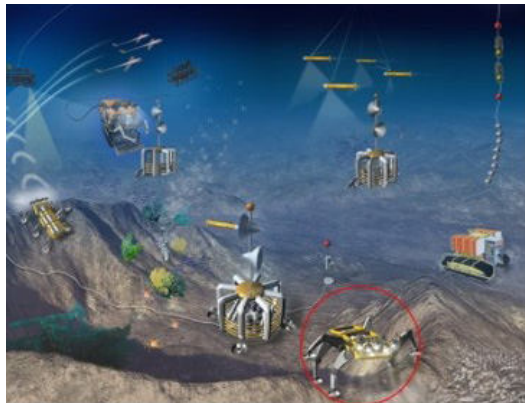


인공지능 해저로봇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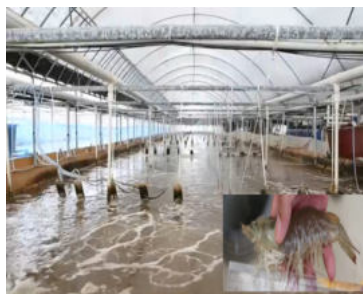
1) 한국공학한림원, 2030 미래해양산업 전략 보고서, 2014.04

2) 한택희, 해저기지 건설을 위한 핵심기술 조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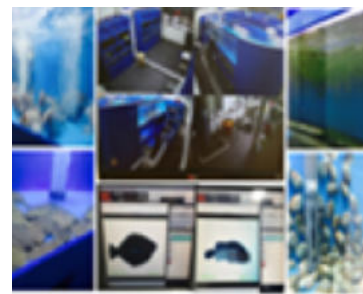
등을 자율·주기적으로 관측하여 조기 경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다기능 무선 수공양용 드론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자료 제공을 통한 사전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로봇 이용 미래 시공관리 및 광역무선통신시스템



ICT 활용 스마트 양식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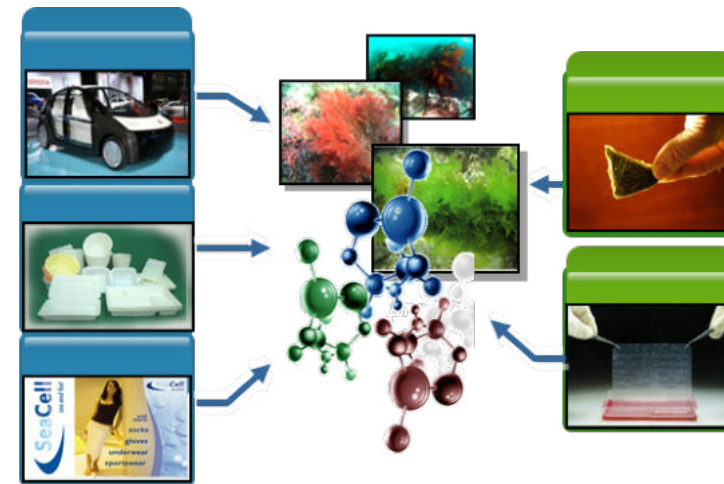
또한 빅데이터, 증강현실, AI 로봇 등의 신기술과 함께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헬스 분야 등에도 다양한 첨단 장비들이 활용될 것이다. 더불어 4차산업의 첨단기술 융합형 수산업의 혁신성장도 가속화되고 있다. RAS, BF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산양식 자동제어시스템을 개발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스마트양식기술은 양식경영체의 경제성 개선과 기자재 보급을 통한 첨단 수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3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국제 식물 신제품 보호협약(UPOV) 등에 의한 자국 유전자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주의와 자원 주권화가 국제적 추세이지만, 유전자, 활성물질, 나노 소재 등의 개발 원천기술과 산업화에 원천기술인 유용성 고속 발굴 및 정보처리, 해양 나노소재 응용, 인공 합성생물, 단백질, 대사물질 등의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기술 등의 첨단기술 발달을 통하여 해양바이오 신산업 소재의 대량생산과 제품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해양수산생물 유래의 생명공학기술은 원천 핵심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의 바이오 소재물질 연구

가 추진될 것이다. 심해, 극한지 등의 환경에 존재하는 해양생물의 특이한 특성과 지금까지 미(未)이용된 해양생물자원의 MT(해양), NT(나노)와 BT(생명공학), IT(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해양생물의 생체물질·유전자원으로부터 새로운 의약, 식품, 바이오화학 소재 등의 다양한 신산업 소재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3D 프린팅 기술 등을 활용한 생명 및 의료 신소재의 상용화 기술, 기능성 화장품·식품 개발을 통해 해양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가 일상생활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신소재 개발

향후 바이오 관련 핵심이슈는 신종 바이러스와 슈퍼 박테리아의 전 세계 확산,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형 치료제 개발, 모바일 기기로 질병 예측·예방 진단 및 관리, 애플·구글 등 스마트 헬스케어 전쟁,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표적 유전자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기술의 혁신, 유전체 발현 지휘 단백질 발견 등이 영향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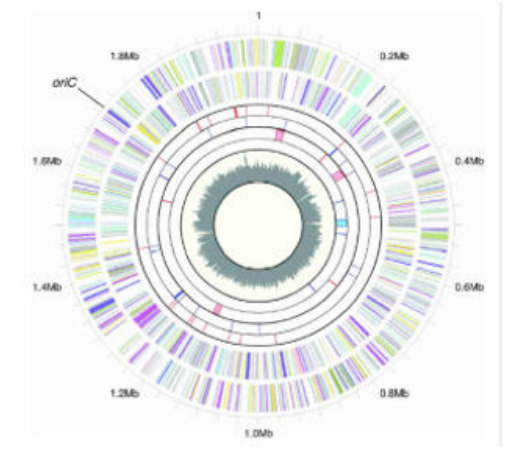
따라서 미래의 해양바이오기술은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기술, 대규모 임상 유전체 정보관리기술, 역학정보 분석기술, 모바일 인공지능 진단기술, 웨어러블 건강관리기술, 유전자 편집을 통한 질병

치료기술, 순환 종양세포 DNA 탐지기술, 연속식 혈당측정기술, 후성 유전학적 발생·분화조절기술 등에 중점 연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단세포 분리 및 분석기술 등에는 NT와 BT 융합기술이 적용될 것이고, 합성생물기술은 에너지, 화학, 바이오 신약, 식품 등에 활용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 자원 주권을 확보하고,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좌)와 유전체 분석(우)



보건, 식품, 항장산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이며, 해양을 기반으로 한 자원, 에너지, 식량, 의료 분야의 국부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 해양 재해·재난 대응과 예측을 위한 국가 통합해양안전망 구축

미래에는 해저 관측망, 해양과학기지, 해양위성 등 3차원 입체적·실시간 관측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해양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과 예측, 체계적·효율적 해양자원과 영토관리를 위한 해양정보 분석과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유류오염, 방사능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적조, 폭풍해일, 이상파랑 등 해양과 연안에서의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및 예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매미(2003.9) 때 마산·부산에서만 재산피해가 약 6,000억 원, 인명피해는 32명이 발생하였으

며, 이후 고도화된 사전 예측과 발생 시 적시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측·활용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의 실시간 통합관측모니터링과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첨단 예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자원·영토관리, 연안재해 저감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해양활동 구현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예보기술 확보와 함께 AR, VR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해양 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예보기술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합 해양관측 및 감시체계 구축, IoT 기반의 4D 해양관측플랫폼을 구축하여 AI 등을 활용한 첨단 예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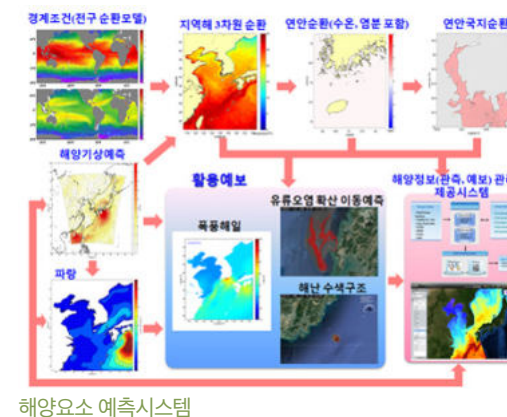
미래에도 해양을 근원으로 하는 기술적 우위 선점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 분야에서 미래 해양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초·원천연구 확대와 시장 선도를 통한 기술 주도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

실한 상황이다.

향후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여 해양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여건과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 기반의 육성과 인적, 물적, 조직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부산의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도시 경쟁력 저하 문제 해결에 해양신산업의 창출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해양예보 등의 개발과 함께 관련 지원 기술로서 해양환경보전, 해양방위 및 안전 등이 부산의 미래 삶을 풍족하게 하는 해양경제의 핵심 영역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해양 분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민간 투자가 저조하여 해양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계기능이 미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독자적인 R&D 수행이 어려워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상용화 기술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의 요구와 제한된 예산 외에 추가적인 시험과 지원 확대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는 연구소나 대학과의 사이에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산업 관련 유관 기업의 영세성과 낮은 산업화 수준, 그리고 낮은 R&D 투자, 전문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이다. 해양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부산의 해양과학기술 성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역량은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해양 관련 기관의 인력, 예산, 설비 등의 공동 활용과 정보기술의 개방형 해양플랫폼과 디지털 오픈라이브러리 구축과 운영을 통하여 과감한 혁신의 시너지효과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산지역의 교육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수한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물적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비전과 전략의 공유, 신뢰와 협력,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의 해양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박세현 프로필

도교대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20년 동안 해양산업, 해양정책, 전략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경상북도 도시사 정책자문위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해양에너지, 해양자원, 해양환경 등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경제성 분석 및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shpark@kiost.ac.kr).



통합 해양관측·감시체계 구축

융합·해기·글로벌 역량 갖춘 인재 육성 기업·정부·지자체·대학 협력 강화해야

윤 희 성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 교수



들어가며

해양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해양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두 가지 축으로 2D를 꼽을 수 있는데 2D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탈탄소화(Decarbonization)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디지털화는 4차 산업혁명의 제반 기술 즉,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해양산업의 판도를 바꾸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탈탄소화는 여러 각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환경규제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단어이다. 이러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성과 창출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인재의 역할이다. 한편 과거 해양산업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인적자원의 질(quality)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재 인프라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과거에 해운과 조선이 반복해온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적 역량이 확보되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인재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다. 해운과 조선이 경기변동의 하락과 침체 국면에서 실

패를 반복하는 것도 부산의 해양클러스터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부산 해양클러스터를 활성화하려면 우리는 어떤 인재 인프라를 가져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보기로 한다.

1. 융복합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자

경영전략을 연구한 마이클 포터는 클러스터를 '특정 분야의 기업,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다양한 형태의 외부성(externalities)과 보완성(complementarities)에 의해 지리적으로 집적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클러스터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결합이 만들어 내는 시너지이기 때문에 관련분야 간의 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미래의 해양산업 발전의 관점에서도 디지털화와 관련된 기술이 다양하게 결합하고 있고, 친환경과 디지털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 내는 성과가 기술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융복합적 접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역량을 결합하여 성과를 내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산·학·연·정'인 것으

해양분야 협업 체계



로 생각된다. 산업계와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실제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밀도에는 의문이 있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인프라로서 융합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의 형태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우선 생각되는 것이 기술영역 간의 융합이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선박도 건조나 운항에 전자적(electronics) 요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운항의 자동화와 최적화에 적용되면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조선 1위 이면서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 분야는 유럽의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 그 예로 '프로펠서에서 선교(船橋)까지(from propeller to the bridge)'라는 기치로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노르웨이 Kongsberg의 움직임은 인상적

이다. 우리도 다양한 기술분야가 개방성을 전제로 긴밀하게 협업한다면 미래 해양산업의 주도권을 쥐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융합적 접근이 아쉬운 또 하나의 형태는 기술, 법률 그리고 상업적 관점의 결합이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많은 R&D 과제들은 대부분 '기술'에 편중되어 있다. 기술개발이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적인 적용 가능성(legal applicability)과 상업적인 타당성(commercial viability)이 고려되지 않은 기술은 적용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실현되지 못하고 묻힐 가능성도 있다. 해운에서 요즘 뜨거운 이슈인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의 예를 들어보자. 자율운항선박도 여러 단계가 있지만 최종 단계인 완전 무인자율화를 전제로 하고 대형 유조선인 VLCC를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화물을 가득 싣고 운항하는 VLCC 1척의 총 가치는 선박 약 1,600억 원, 화물 약 2,800억 원으로 총

4,400억 원이다. 이에 반해 선원비 전액을 절감한다고 해도 연간 절감액이 2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자율운항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투자, 기기 미러링 등이 비용절감 효과를 줄이고 이에 더하여 해상에서의 유지관리(on-board maintenance) 부담이 육상으로 전가되는 것, 오염 사고에 대한 우려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기술개발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오히려 상업적 타당성이 아닐까?

융합은 다양하고 그 조합에는 한계가 없다. 해양과 금융, 해양과 법률, 해양과 ICT, 해양과 환경 등 다양한 융복합 영역에서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대학을 통한 인재의 양성 및 공급인데 문제는 대학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융합인재의 양성에는 인재의 수요자인 산업계에서 선제적으로 기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매칭하는 방법으로 대학이 적극적으로 과정을 구성하고 학생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R&D 과제는 기술과 경제성, 법률적 타당성이 대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선정 단계에서 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경제성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용-편익 분석 또는 산업연관분석보다는 상업적인 타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요소는 선후관계를 따지기 어려워 완벽한 협업으로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답을 찾기 어렵다.

2. 해기 역량은 해양산업의 기반 역량이다

이어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해양산업의 저변에 해양대학에서 출발한 해기 역량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해기 역량 즉, 해기사로서 교육받고 선박에 승선한 경험과 역량은 해운, 조선, 기자재에서 선박매매·용선중개, 선박관리, 대리점, 포워딩 등 다양한 부대산업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작용한다. 만일 해기 역량의 확보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해기인력의 비용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해운기업이 지금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들이 마린시뮬레이터 교육을 받고 있다

보상체제로 우리나라 해기사를 고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젊은 세대의 해상근무 기피현상으로 해양대학을 졸업한 인력들조차도 해상근무기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육상근무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겨둔다면 우리나라 해기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해기 역량의 전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약 10년 전에 대만 선사를 방문했을 때 선박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대부분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놀란 적이 있다. 이유를 물었더니 외국인 승선으로 과거 20년 동안 대학에서 해기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해양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필자가 약 30년 전 런던의 대학원에서 수학할 때에도 수업과정에서 세계 유수의 해양중심지인 런던에 해기인력의 공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해양중심지의 위상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가 주제로 다루어진 적이 있다. 이미 잘 정립된 해양중심지 입장에서조차 해기 역량이 존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런던은 다행히 세계 각국의 해기인력이 모여들 수 있는 글로벌 거점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이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대만도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정이 크게 다를 것이다.

해기 전승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 해기인력의 도태를 의미하며 이 공백을 해외에서 유입된 해기인력이 메우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국가필수선대 등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초급사관에서 육상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고급사관으로 양성될 수 있는 가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고급사관으로서 해기경력이 융합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전문 역량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양대학의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일정 기간 승선 후 융합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문과정을 운영하며, 해운기업이 육·해상 순환근무 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과감한 변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들이 한나라호에서 승선 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은 겨울 계절학기에 그리스의 아테네경제경영대학교에 가서 4주간 교환프로그램으로 6학점을 취득한다

3. 글로벌 역량은 영어만이 아니다

Menon Economics와 DNV는 해마다 세계 해양도시를 평가해서 보고서를 발간한다. 해운, 해양금융과 법률, 해사기술, 항만과 물류, 도시매력도와 경쟁력의 5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올해 세계 5대 해양도시로는 싱가포르, 로테르담, 런던, 상하이, 도쿄가 선정되었고 부산은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평가기준인 '반경 200Km' 내에 해운, 해양금융, 법률 기능이 변변치 않음을 생각하면 그런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Menon의 평가영역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이 많다.

글로벌 역량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닌 문화, 법률과 전문성(expertise)이 어우러진 총체이다. 영어가 되니까 글로벌 역량이 갖추어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최근에 국제기구가 주최한 회의에서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입장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다. 그런 자리

에서 발휘되는 힘은 탄탄한 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을 기반으로 구축된 대응전략과 빠지지 않는 언어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영어구사 능력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인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실제 글로벌 업무 역량이 아니라 는 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중에 특정 전문분야에서 고도의 문제해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이러한 인재를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양성되므로 일단 양성된 인재를 해당 분야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해운·조선업계는 대학과 연계하여 이러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육성된 인재를 해양업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또한 전문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특별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 필요가 있다.

글로벌 역량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글로벌 역량이 법률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 조선, 무역, 금융 등 대부분의 국제거래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다. 해운이나 조선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소송은 영어로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변호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실무인력이 일정 수준 이상의 법률적 지식과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과거 우리 조선업계가 해양구조물 분야에서 분쟁과 소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 영국 변호사는 “지금 한국 조선업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계약을 잘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평했다. 법적인 지식과 영어 소통능력, 거기에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까지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해당 산업계의 숙제이다. 해양과 같이 비교적 좁은 분야에서 우수한 젊은 인력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업계가 나서서 인재 양성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역량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인재들이 해외에서 교육받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등의 외향성 글로벌화뿐만 아니라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해외기업이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활용하게 되는 내향성 글로벌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해운과 같은 글로벌 사업은 일정 비율의 인력을 외국 인재로 채용해서 함께 일하게 한다면 우리 인력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우선 영어를 공용화해서 모든 규정과 문서를 이중으로 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싱가포르의 MPA(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등 글로벌화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해외의 기업이 부산 해양클러스터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맺음말

부산 해양클러스터의 발전에 있어 인재 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융합 역량, 해사 역량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해양과 같이 특수한 분야에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돈과 시간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반도체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와 같이 산업계와 정부, 지자체, 대학이 협력해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모든 것은 '사람'에서 나온다.

윤희성 프로필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 교수이다. 해운 대기업의 임원과 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장을 역임, 해운분야의 산·학·연을 두루 거쳐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다. 전통적인 해운과 해운금융에 이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해양분야 적용, 환경규제 대응에 대한 연구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동북아 해양수도’ 외화내빈 우려 해외 해양클러스터 적극 벤치마킹을

한 철 환 동서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인류의 역사는 바다와 함께 발전해 왔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무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영국 월터 롤리경(卿)의 말처럼 인류 역사는 해상교역을 둘러싼 투쟁의 역사였다. 기원전 3천 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해상교역이 시작된 이래로 기원전 1천 년경 페니키아가 티레와 카르타고를 해상거점으로 동부 지중해 해상패권을 장악하였고, 이후 로마시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지중해 시대가 펼쳐졌다. 이후 11세기 베니스와 한자동맹 시대에 이어, 15세기 대항해시대를 거치면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이 연이어 세계 해상패권을 장악하였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해상교역의 중심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옮겨 왔으며, 21세기 들어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해상교역을 둘러싼 패권경쟁을 통해 지중해에서 대서양과 인도양으로, 다시 태평양을 거쳐 바야흐로 아시아가 세계 해상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를 영국 해운경제학자 마틴 스톱포드(M. Stopford)는 ‘서향이론(Westline theory)’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해상교역거점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해외에서 평가한 해양도시 부산의 현실

노르웨이 컨설팅회사인 메논(Menon)은 격년으로 『세계 선진 해양도시』라는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세계 50개 주요 해양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운서비스, 해양금융 및 법, 해사기술, 항만물류, 도시매력도(경쟁력) 5개 분야에 대해 정량평가와 280명에 달하는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한 정성평가를 기반(총 40개 지표)으로 글로벌 해양도시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2022년 발표된 순위를 보면 세계 최고 해양도시는 단연 싱가포르이며, 그 뒤를 이어 로테르담, 런던, 상하이, 도쿄 순이었다. 싱가포르는 5개 부문에서 모두 강세를 보였으나 특히 해양기술부문과 도시매력도 부문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해양기술부문에서는 혁신전략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 디지털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례로 싱가포르 해운항만청(MPA)은 세계적인 해양기술업체, 투자자, 고객을 연결하는 생태계로서 ‘Pier 71’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혁신프로젝트 개발 및 테스트를 지원하

<표 1> Menon의 세계 5대 선진 해양도시 순위(2021년)

순위	해운센터	해양금융 및 법률	해양기술	항만물류	도시매력도와 경쟁력	종합순위
1	아테네	뉴욕	싱가포르	상하이	싱가포르	싱가포르
2	싱가포르	런던	오슬로	로테르담	런던	로테르담
3	도쿄	도쿄	부산	싱가포르	코펜하겐	런던
4	상하이	오슬로	런던	홍콩	로테르담	상하이
5	함부르크	파리	상하이	광저우	오슬로	도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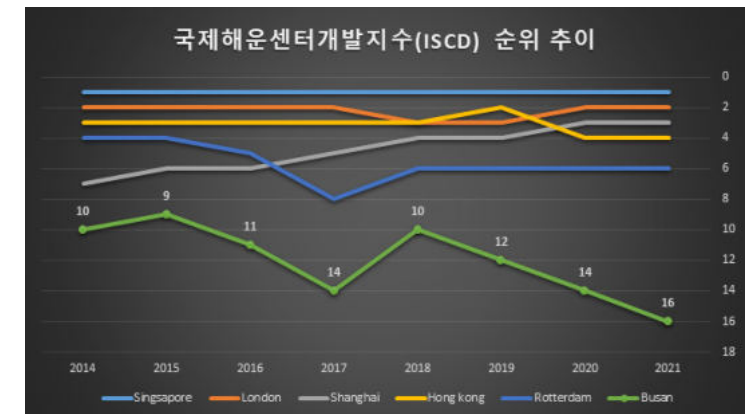
자료 : Menon, Leading Maritime Cities of the World, 2022

는 등 산학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상하이(4위)와 도쿄(5위), 홍콩(6위)이 뒤를 이었으며 부산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조선산업에 힘입어 해양기술부문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쟁 도시들에 뒤처져 전체 순위는 11위에 그쳤다. 향후 5년 뒤 세계를 선도할 해양도시 평가에서도 전문가들은 싱가포르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뒤를 이어 상하이, 런던, 로테르담, 두바이 순이었다.

한편 중국 신화통신과 발틱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가 2014년부터 매년 전 세계 43개 항만 도시를 대상으로 항만요인(컨테이너 처리량, 건화물 처리량, 액체화물 처리량, 크레인수, 선석길이, 항만수심 등 6개 지표), 해운요인(선박중개, 엔지니어, 비즈니스, 법률, 금융서비스 5개 지표), 일반환경요인(정부 투명성, 전자정부, 관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물류성과지수 5개) 3개 부문 16개 지표를 평가한 세계 해운센터개발지수(ISCID)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경우 싱가포르가

포르가 2014년 이래 부동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런던, 상하이, 홍콩, 두바이, 로테르담, 함부르크, 아테네, 뉴욕/뉴저지, Ningbo-저우산의 순으로 상위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부산은 2018년에만 하더라도 정부의 세계 2대 환적항 육성정책에 따라 10위에 올랐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에는 16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은 물론이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두바이, Ningbo-저우산에도 뒤처지는 순위이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입지 우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해운생태계, 정부

<그림 1> 세계해운센터개발지수 추이



자료 : Xinhua-Baltic International Shipping Centre Development Index Report, 각년도

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7년 연속 세계 최고 해운센터로 평가받고 있다.

외화내빈의 동북아 해양수도 전략

그렇다면 동북아 해양수도를 목표로 하는 부산의 현실은 어떠한가? 부산은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일 번지로 사업체수는 전국대비 30.4%(이 중 해운항만업은 56.4%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전국 대비 26.4%(이 중 해운항만업이 31.2%)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해양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매출액은 전국대비 19.5%에 불과하고,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국제해운거점으로서 부산의 위상은 점점 약화되는 양상이다.

Menon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2019년에는 세계 10위(아시아 5위)에 선정되었으나 2021년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해운서비스부문에서 해운 기업들의 본사가 몰려있는 서울(세계 12위)이 오히려 부산을 앞질렀다. 그야말로 부산은 해양수도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해양금융부문에서는 뉴욕, 런던, 도쿄 등 전통적 강호들과 최근 중국은행들의 선박금융 진출이 증가하면서 부산은 변방에 머무르고 있다. 항만물류부문에서도 컨테이너 화물처리량에서 한때 세계 3위를 자랑하던 부산항은 중국항만들의 부상으로 세계 7위까지 떨어지고, 부산에 본사를 둔 글로벌 터미널운영회사가 전무한 관계로 중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싱가포르항의 PSA, 상하이항의 COSCO, 홍콩항의 허치슨, 로테르담항의 AMPT, 두바이항의 DPW 등 세계적 항만들이 글로벌부두운영사(GTO)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나마 조선관련산업, 선박

량, 특허권수, 해사교육기관 등으로 평가한 해사 기술분야에서 싱가포르와 오슬로에 이어 부산이 세계 3위를 차지한 것은 위안 삼을 만하다.

종합해보면 부산은 조선관련산업과 항만 물동량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선박금융, 해사법, 해사중재 등 해사서비스분야에서는 아직도 세계적 도시들과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도시 부산의 문제점

이처럼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체계적인 정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세계 해운강국들은 정부 주도로 장기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착실히 국제해운거점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국제해운센터전략(IMC 2030), 영국의 Maritime 2050, 덴마크의 Maritime Denmark, 네덜란드의 Dutch Maritime Strategy 등이 그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목표와 전략,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적극 활용하는 선도자(First Mover) 전략, 클러스터기반의 산업육성정책,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부산 영도 동삼동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을 한곳에 모아 해양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으나 클러스터의 핵심구성요소인 민간기업의 부족과 클러스터 촉진자(cluster facilitator)의 부재로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물동량 유치 우선정책에 따라 고부가가치 해사서비스분야를 육성하지 못한 것도 세계적 해양거점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 다음으로 해운항만분야 기업들의 혁신역량 부족을 들 수 있



부산시 영도구 동삼지구 혁신도시에 해양·수산 관련 4개 이전 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대(제2캠퍼스) 등 9개 유관기관이 들어서 있다

다.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인 강한 해운항만업계도 이제 단순한 해상화물운송이나 하역작업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기술의 적극적 활용과 세계적인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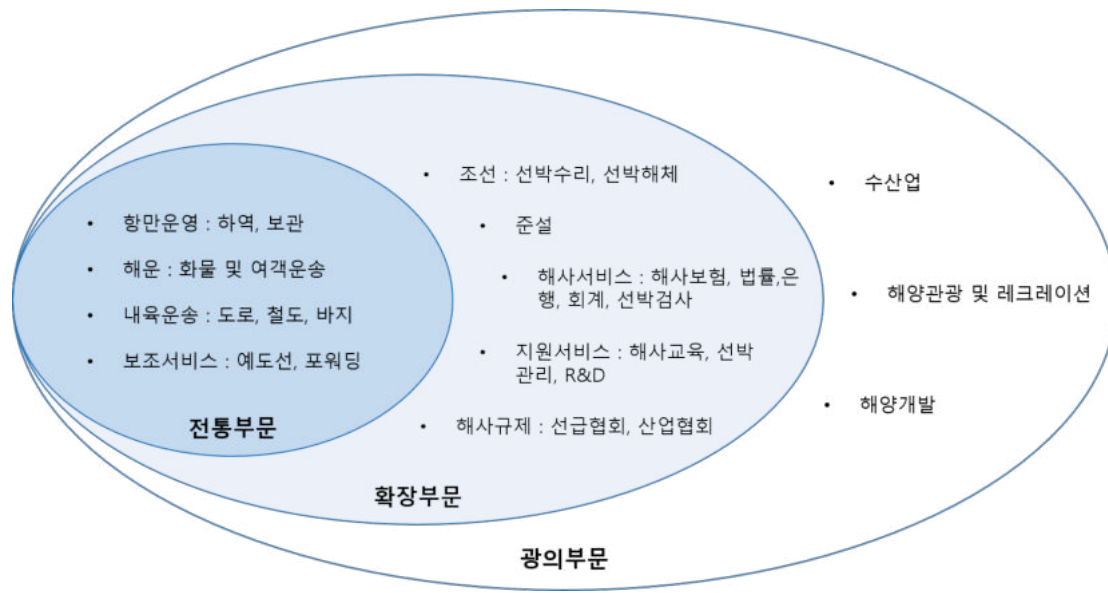
선진 해양허브의 공통점, 해양클러스터

세계적인 해양거점은 모두 클러스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클러스터란 개념은 일찍이 마샬(A. Marshall)의 산업지구(industry districts) 개념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 하버드대학의 포터(M. Porter) 교수가 경쟁우위에서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후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

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세계화와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경쟁우위에서 입지(location)의 중요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거리의 소멸’이다. 그러나 혁신에 필요한 지식은 서류화할 수 있는 형식지가 아니라 암묵지로서 이는 대면접촉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포터 교수는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전문지식을 교환하고 경쟁자와 관련기관 고객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클러스터 정책이 해운항만분야에 적용된 개념이 해양클러스터(maritime cluster)이다.¹⁾ 따라서 해양클러스터란 특정지역에 해운항만물류관련 기업, 협회, 공공기관 등이 집적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당산업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산업 및 지역정책이라고 정의

1) 엄밀한 의미에서 Maritime Cluster는 해운과 항만을 핵심산업으로 하는 해사클러스터를 의미하며, 이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Ocean Cluster가 있으나 여기서는 Maritime Cluster를 해양클러스터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림 2> 해양클러스터의 구성



할 수 있다. 해양클러스터의 구성은 항만과 해운 중심의 전통부문(traditional sectors), 조선 및 기자재, 선박수리 및 해체, 해상보험, 선박금융, 해사교육, 컨설팅, 선급 등 확장부문(extended sectors) 그리고 수산 및 양식, 해양관광 및 레크레이션, 해양개발 등 광의부문(broad sector)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해양클러스터의 유형은 화물운송과 관련된 물류기반 해양클러스터(해운중심의 클러스터 또는 항만중심의 클러스터)와 상거래, 자본, 정보흐름과 관련된 서비스기반 해양클러스터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 해양클러스터는 화물운송(물류) 관련 활동인 해운과 항만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형성되었으나 이후 물류기능의 통합과 글로벌 공급망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점차 업그레이드되었다. 샌프란시스코, 나폴리, 리버풀, 뉴올리언즈 등은 한때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명성을 날렸으나 경쟁 심화와 전통적인 항만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

소로 과거의 명성을 잃은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에 반해 런던과 싱가포르의 해양클러스터는 외부 환경 변화와 자신들의 강점을 적절히 결합하여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해운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클러스터는 기술 및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물류기반에서 서비스기반 클러스터로 변신해 나가며 이에 실패할 경우 결국 도태되고 만다.

해양클러스터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개도국의 경우 정부가 해양클러스터 발전의 추진 주체로서 클러스터의 발전전략과 정책개발에 책임을 지는 하향식 접근방식(top down approach)과 전통적 해운선진국들의 경우 민간기업이나 협회가 중심이 되어 클러스터 구성원들 간 상호교류와 혁신을 촉진하는 상향식 접근방식(bottom up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클러스터가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특정지역에 관련 기업이나 기관들

이 밀집해 있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노동력, 다양한 공급업자들과 시장기반, 지식 파급효과, 낮은 거래비용 등 소위 응집효과(agglomeration effect)를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클러스터 효과를 통해 일자리 창출, 조세수입 증가, 수출 및 투자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한편,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 간 정보공유와 경쟁을 통한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내부적 공생효과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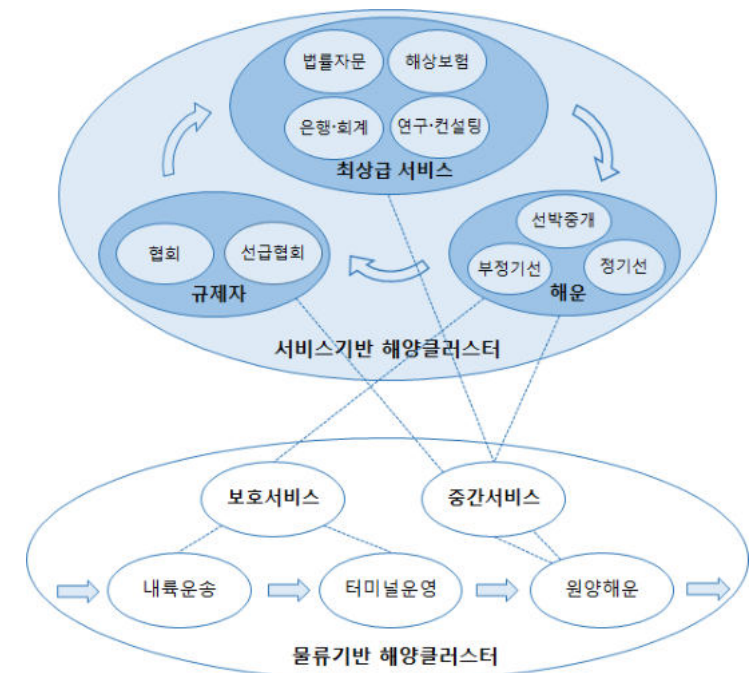
세계적인 해양클러스터의 성공사례

영국 런던의 경우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과 선박 건조를 위한 조선소가 발달했었으나 현재 이들 기능은 쇠퇴하

였고 대신 선박금융과 보험 등 해사서비스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런던은 전통적인 조선산업을 강화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보유한 전문인력, 풍부한 정보 역량, 선진화된 서비스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세계적인 해사서비스센터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사례이다. 2016년 기준 'Maritime London'은 세계시장에서 해상보험의 35%, 선박중개의 26%, 해사법률의 25%, 해사교육의 20%, 해사금융, 회계, 컨설팅의 1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²⁾

오랜 기간 아시아의 해운거점으로 역할을 해온 홍콩 역시 최근 선전과 광저우 등 인접한 중국 본토 항만들의 성장에 따라 신규 항만을 추가 건설하기보다는 금융과 보험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해

<그림 3> 해양클러스터(Maritime Cluster)의 두 가지 유형



2) 이는 런던에 관련 및 지원산업이 풍부하다는 점과 연관성이 높다. 2018년 기준 런던 금융산업은 1,320억 파운드(영국GDP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런던에 등록된 변호사수는 약 19만 명에 달함.

사서비스센터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싱가포르르는 2003년 런던과 같은 해사서비스클러스터 기반 위에 허브항만과 선박등록 등 싱가포르의 강점을 더해 여타 해운센터와 차별화하는 '런던플러스(London+)' 전략에 이어 2017년 이를 업그레이드한 국제해사센터전략(IMC 2030)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투아스(Tuas) 신항프로젝트 추진과 더불어 선박금융, 해상보험, 병커링, 기타 다양한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해운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기업친화적 정책 개발과 시행, 산업계로부터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오늘날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해운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든 요인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클러스터 촉진자로서 해운항만청(MPA), 싱가포르해사재단(SMF), 싱가포르해운협회(SSA)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운항만청(MPA)은 해운항만 관련 규제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싱가포르의 국제해운센터를 위한 기업 유치와 이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해사재단(SMF)은 대정부 정책 제안 및 피드백 채널로서 정부와 민간기업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해운협회(SSA)는 단순히 회원 기업들의 이익집단으로 역할하기보다는 고위직에 외국인들을 임명하여 싱가포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편익을 도모함으로써 국제해운센터로서 싱가포르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해양클러스터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

싱가포르, 런던, 홍콩 등 선진 해양클러스터의 성공 요인들과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지역 및

산업발전에 있어서 해양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주요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도 중앙정부나 부산시 차원에서 해양클러스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비전과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둘째, 세계 최상급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조성, 조세 및 재정 인센티브, 진입장벽 제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피드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세계적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기반 클러스터의 장점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되 우선적으로 선박등록, 선박거래 관련 기업과 선주협회나 포워딩협회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이후 금융, 법률, 보험, 기술 관련 기업이나 기관들을 유치하는 단계적 유치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양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 클러스터 구성원들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보공유와 혁신 유도를 담당할 클러스터 촉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싱가포르처럼 정부기관이나 유럽처럼 민간차원의 협회가 담당할 수 있다. 부산의 경우 해양클러스터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성되었으므로 부산항만공사나 한국해양진흥공사 같은 준공공기관이 클러스터 촉진자로서 초기 해양클러스터의 정착에 노력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 해외 해양클러스터와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해양클러스터의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해양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 간 네트워크 강화도 중요하지만 해양클러스터와 인접 산업과의 연계 강화 및 해외 선진 해양클러스터와의 교류 강화를 통한 기술개발이나 국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대와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해양클러스터(K-해양클러스터)의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해양거점의 서열화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산이 항만물류기반 해양클러스터에서 글로벌 물류거점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선진 해양클러스터와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스마트항만과 친환경항만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례로 세계적인 해상 전자상거래(e-business)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표준 및 규칙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면 부산에 이와 관련한 기업과 기관들을 집적시켜 글로벌 해양플랫폼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혁신만이 살길이다

시오노 나나미는 『바다의 도시 이야기-베네치아공화국 1천년의 메시지』에서 자원이라고는 하나 없는 손바닥만한 나라 베네치아가 지중해의 해양대국으로 성장한 비결로 혁신을 꼽았다. 갤리선이라는 배와 항해술의 발달, '콜레간차(한정합자회사)'라는 자본확보와 위험분산을 가능케 한 상업제도, '무다리는 제도를 통해 국유상선단에 일반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무역이 발달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결합된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제노바나 피사가 아닌 베네치아가 지중해 해양패권의 최후승자로 살아남게 된 비결이 혁신에 있었다는 점은 싱가포르를 비롯해 상하이, 도쿄 등과 동아시아 해양거점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철환 프로필

동서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부산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Shipping & Transport College에서 수학했다. 10년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근무한 후 2005년 동서대로 자리를 옮겨 창의인재육성처장과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영남지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저서로 <해운항만산업의 미래 신조류(공저)>가 있다. 현재 국제물류와 공급망관리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연구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제13회 동북아협력 국제심포지엄 지상중계

‘동북아협력 국제심포지엄’이란

한·중·일은 서로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긴밀한 상호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비록 한·중·일 사이에는 많은 갈등 요인이 존재하지만 3국은 공동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동북아협력 국제심포지엄은 한·중·일 평화와 공동 발전 및 동북아지역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2009년 10월 12일 첫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 한·중·일 순서로 포럼을 개최하고 다양한 연구자를 초청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한·중·일 경제·정치·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여러 주제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하고 각 국가의 다양한 견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1세션]

- 한·중·일 안보협력 방향 차두현(車斗鉉)
- 동북아협력의 현재 도전과 미래 전망 류밍(劉鳴)
- 한·중·일 정치안보 보장 협력 메커니즘 고가 케이(古賀慶)

[2세션]

-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CJK 경제협력 과제 양평섭(楊平燮)
- 일본의 핵 폐수 배출 문제와 동북아의 환경관리 쉐샤오핑(薛曉芃)
- 전통 속에서 현대 인문·문화 교류 및 그들의 미래를 본다 히라이 토시하루(平井敏晴)

아래의 글은 2022년 11월 8일 제13회 동북아협력 국제심포지엄이 온라인으로 실시한 포럼 발제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하였고,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중국연구센터, 일본연구센터), 일본 게이오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에서 함께 주관했습니다.

이번 포럼 대주제는 [지역 메커니즘이 현재 직면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역할]로 현재 한중일이 직면한 정치와 안보, 경제와 무역 방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 학자들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및 발전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한중일 국가·민간 교류 축소 위기 3국 전문가 협력방안 모색 큰 의미

장 제 국 동서대학교 총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입니다.

동서대학교를 대표해서 제13회 동북아협력 국제심포지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중일 3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시는 한중일 협력사무국(TCS)의 어우보첸 사무총장님, 그리고 상하이사회과학원 왕더쥔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애를 많이 써주신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의 왕젠 소장님,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 신정승 원장님,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 니시노 준야 소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중일 동북아협력포럼이 설립된 지 올해로 벌써 13년이 됩니다. 2010년 본 포럼이 설립되었을 당시만 해도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어렵게 출발했던 본 포럼이 오늘날 규모 면에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성장해 명실상부한 동북아를 대표하는 학술정책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창립 멤버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 중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국가 차원에서 의 행사와 민간교류가 매우 축소되어 일반 국민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작금의 미·중 갈등의 심화와 구조화, 양안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미사일 위기의 고조, 한중/한일/중일 등 양자 간 갈등의 지속은 한중일 협력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중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방치할 경우 우리 동북아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동북아의 평화 유지와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중일 협력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이 심포지엄은 한중일의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해안 도출의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자국의 관점을 기본으로는 하되 한층 높은 동북아라는 관점에서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인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와 함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협력포럼의 한국 측 주최자로서 저희 동서대학교는 앞으로도 본 포럼의 지속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여러분 모두를 대면으로 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중일 안보협력 방향 : 서로 차이 인정하며 공통분모 확대를

차 두 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국, 중국, 일본 모두는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며 유교문화권을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현대사의 궤적을 걸어왔고, 지금은 상이한 정치·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체제가 다르다는 것이 모든 국가들이 갈등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과거 그러한 시대를 거쳐 왔고, 그것이 모두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은 각각 다른 문화와 가치, 그리고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고, 때론 경쟁적이기도 하지만 협력의 분야 역시 충분히 존재한다. 최근의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서로 다른 체제 간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경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경쟁이 상호에 대한 증오로 발전되어 '전쟁'이나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발전할 경우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현상은 상대방과 나의 다른 점만을 강조하고, 나와 다른 것을 적대시하면서 발생한다.

한일 간에는 상이성 못지않게 공통분모 역시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이슈들이다. 테러, 마약, 국제범죄, 불법 이민, 환경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으로,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필

요하다. 또한 국가 차원의 대비태세 구축 역시 단순한 '대응'(response)의 차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심리적 안심(common wellbeing)까지 고려해야 한다. 다문화융합, 노령화, 도시화 등과 같은 사회 문제 역시 안보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국가 간 협력의 여지는 더욱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신흥안보 이슈들마저도 서로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빌미로 활용되어 왔다. 한중일 3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솔직히 인식하는 가운데, 이 다른 것이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의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흥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이 분야에 관한 한 한중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습득된 경험과 노하우를 교환하면서 신뢰의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 마약이나 해적, 해난사고 등과 같은 공통의 신흥안보 이슈에 대해 『동아시아 위기정보센터(가칭)』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기구는 초기에는 정보의 교류와 공유를 바탕으로 신흥안보 이슈 관련 정보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경험이나 상호협력의 경험이 축적되면 신흥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의 경보(Alert)나 관리방안을 협의하고 조정할 사무처 등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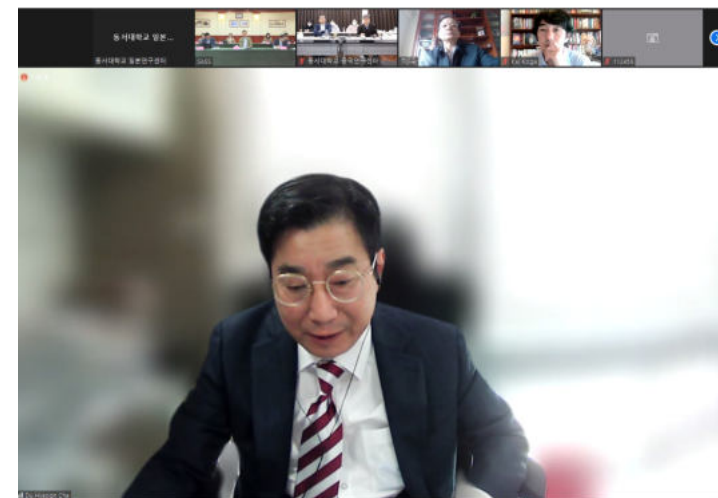
한중일이 또 하나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비확산 분야이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는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 우려할 만한 것은 최근 들어 핵무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불문율이나 묵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핵을 보유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함부로 침공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것, (2)핵은 보유하기만 할 뿐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 자체를 비추지 않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핵문제에서 이러한 원칙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인다. 이 분야에서도 한중일 간의 협력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

우려할 만한 것은 주요국들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한 핵문제 역시 한반도와 지역 안보 차원의 공통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한 카드처럼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관련국들이 서로 공통의 목표 하에 협력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차두현 프로필

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 취득, 한국국방연구원KIDA 근무, 청와대 위기정보상황팀장, 한국국제교류재단KF 교류협력이사,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 등 역임. 현재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줌 방식으로 열린 동북아협력 국제심포지엄(2022년 11월 8일 화요일)

동북아협력의 현재 도전과 미래 전망 : 불안정·불확실 극복 위한 리더십 중요

류 밍(刘鸣)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1. 동북아협력구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하지만 불안정한 경향은 커지고 있다

올해 한-중수교 3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의 해이다. 양국 관계는 각종 이견과 교란에 대처하여 전체적으로 구동존이(求同存異)와 평화공존(和平共处)과 공동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21년 일본과 한국은 중국의 4, 5위 교역 상대국으로 무역 수출입은 각 3,714억 달러(17.1%), 3,624억 달러(26.9%) 증가했다. 2021년 중-한-일 총교역액은 7,337억 5,000만 달러(21.%) 증가했다. 2020년 6월까지 일본의 對중국 직접투자 누적 총액은 1,166억 달러였고,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의 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불안정 요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전략'은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를 분열시키고, 자유무역 체제를 흔들며, 동북아 경제협력을 방해한다.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및 핵심 광물에 대한 제재가 확대되었다. 이는 동북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일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게 된다면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점차 잃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할 것이다.

2. 중-일-남-북 양자 전략 관계가 대립적 또는 불확실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현재 중일, 한일, 남북 관계는 상호 신뢰도가 낮으며 무역적자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문건 3건을 수정하고 있으며 자민당은 이를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본 일각은 "대만의 일은 바로 일본의 일이다"라고 주장하며 대만을 강력히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 외교전략이나 외교중심의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한국은 미국-서방의 글로벌 전략과 그 체계로 통합시키려고 한다. 자유민주적 가치관과 국제규범으로 한-중 관계를 주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 외교부 장관과 양국 정상의 발언과 행동은 매우 조심스럽고 한-중 양국은 안정적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3. 동북아협력과 도전의 전망은 지도자의 정치적 비전과 지혜에 달려 있다

도전과 기회가 공존한다. 예를 들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중일 경제협력에 공

간과 동력을 가져온다. 한중일 무역의 무관세 범위는 86-90%로 높아져 서비스와 무역의 개방 정도는 WTO보다 높은 수준이 된다. 중국과 일본은 상호 보완적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의료 및 연금, 재정 및 금융, 기술혁신, 디지털 경제 및 전자 분야에서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중일, 한중, 남북한이 분쟁의 통제, 각자 핵심 국가 이익의 존중 및 이해, 타협과 조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지역 내 개방적으로 경제체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결국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다.

동북아 각국은 미·중 사이에서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협력의 기회는 사라지고, 각국의 경제 발전과 정치관계가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동북아는 '냉전' 때와 유사한 집단적인 대립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지역의 생존과 발전의 운명을 스스로 쥐고,

외세적 강권주의·패권주의·일방주의의 개입을 배제하고 단결해야 한다.

류밍 프로필

복단대학 국제정치학과 석사학위, 법학박사 학위 취득. 상하이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아시아태평양포럼' 부편집장, 미국 컬럼비아대, 한국 서울대, 미국 스탠포드대 방문연구,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역임. 현재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박사과정 지도교수로 재직 중이다.



Zoom 방식으로 열린 동북아협력 국제심포지엄(2022년 11월 8일 화요일)

한-중-일 정치·안보 보장 협력 메커니즘 : 불신감 씻기 위한 대화 재개 선결돼야

고 가 케이(古賀慶) 난양 공과 대학(싱가포르) 부교수



1. 한-중-일의 정치·안보 협력의 현황

한-중-일 3국 간의 정치·안전보장 협력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한일 관계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용노동자 문제 등 긴장요소가 존재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은 외교적으로 접근해 왔다.

2022년 9월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일 정상이 유엔 총회 때 '간담회'를 했고 정식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중국과 관련해서는 2020년 4월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긴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회담이 연기되었고, 이후 대면 중-일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미-중 전략경쟁 격화, 한-일 정권 교체, 한-중-일 각국의 코로나 경제·사회적 영향 그리고 코로나 대책 등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큰 시각에서 보면 미-중 관계 악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對中 제재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때도 견고했으나 현재 바이든 행정부도 여전히 유지 중이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관계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쿼드(the Quad)와 오키스

(AUKUS) 그리고 인도태평양경제체제(IPEF) 같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 틀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동맹국인 일본이나 한국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한-중-일 3국 간의 정치·안보 협력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협력 모색: 한-중-일 3국 간 협력

3국 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외교 도구는 존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한-중-일 3국 협력의 틀일 것이다. 한-중-일 3국 협력은 1997년 설립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주도하는 아세안+3 틀에서 파생된 틀로, 1999년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거의 매년 진행되어 왔다. 2009년에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사무국 설치가 제안되어 2011년부터 시동을 걸게 되었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제도화는 외교문제가 존재하는 3개국에서 연략망을 끊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또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대화도 실시하고 있어 테러 대책, 사이버 협의, 방재 탁상 연습 등 범위는 다양하다. 이들 분야는 영토 문제와 같은 국가 간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비전통적 안전보장 분야에 속하지만 협력을 통해 신뢰 양성을 하는 것이었다. 또한 2019년에는 '3개국+X'의 틀을 설정하고, '방재' 등을 포함한 특정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이 핵심이 되어 협력의 틀을 넓혀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협력은 직접 한-중-일 3국 간, 양국 간의 정치·안전보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나 협력을 통해 위기관리 메커니즘의 설치 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2020년 이후 이 틀에서의 서밋 수준에 더해 다른 차원에서도 대화의 진전이 멈춰버렸다는 점이다. 주요 원인은 코로나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양국 관계 악화 등도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온라인 회의 개최는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를 보는 한 그러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3. 협력 모색: ASEAN+3과 EAS

중-일 간 3국 협력의 틀에 한계가 있다면 ASEAN+3의 틀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 코로나

대책 초기 단계에서는 ASEAN+3 틀이 자주 사용되었다. 물론 각국의 코로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대응책은 최종적으로는 내놓지 못했지만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지역 내 감염 대책이나 정보 교환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로 탄생한 ASEAN+3의 주요 초점은 당연히 경제이긴 하지만 그 협력범위를 다른 기능적 협력으로도 넓혀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긴급 쌀 비축 지원과 코로나 대책 의료지원, 아세안 감염병 대책센터 설치 계획 등을 들 수 있다. 단, 단점은 이들 협력의 벡터는 아세안 각국을 향하고 있어 한-중-일 3국에서 협력한다기보다는 양자 간 아세안에 대한 지원의 형태가 되는 경향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협력 프레임워크로서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는 한 활용이 어렵다. 또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환경, 국제보건 및 감염병, 재해관리 등 비전통적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분야를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2011년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가맹으로 해양협력이라는 전통적 안전보

장도 포함한 분야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뢰 구축 조치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정한 안보협력이 기대된다. 단, EAS의 단점은 미국의 동맹국끼리 정책 조정이 아무래도 강해지기 때문에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이다.



줌 방식으로 열린 동북아협력 국제심포지엄(2022년 11월 8일 화요일)

4. 향후 전망

일-한-중 간 안전보장협력이 전망될 수 있는 지역적 틀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중-일 3국 협력 틀, ASEAN+3, 그리고 EAS 등의 제도는 생각했듯이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양자 간 대화 조정 및 3개국 협력의 대화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

또 ASEAN+3의 틀을 이용하여 현재 안보에도 관련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문제인 메콩 개발은 하나의 협력 분야의 어젠다로 생각할 수 있다. 3개국 모두 메콩 개발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정책·개발 조정이나 협력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점에서 우선 불신감을 불식하는 양국 간·3국 간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이다.

고가 케이 프로필

일본국제교류포럼 연구위원/국제관계실장, 동아시아공동협의회 사무차관보, 일본 보건과학대학 시간강사, 일본개방대학 시간강사,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 벨퍼센터 연구위원 등 역임. 현재 난양 공과 대학(싱가포르)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CJK 경제협력 과제 : 고강도 한-중-일 FTA 추진 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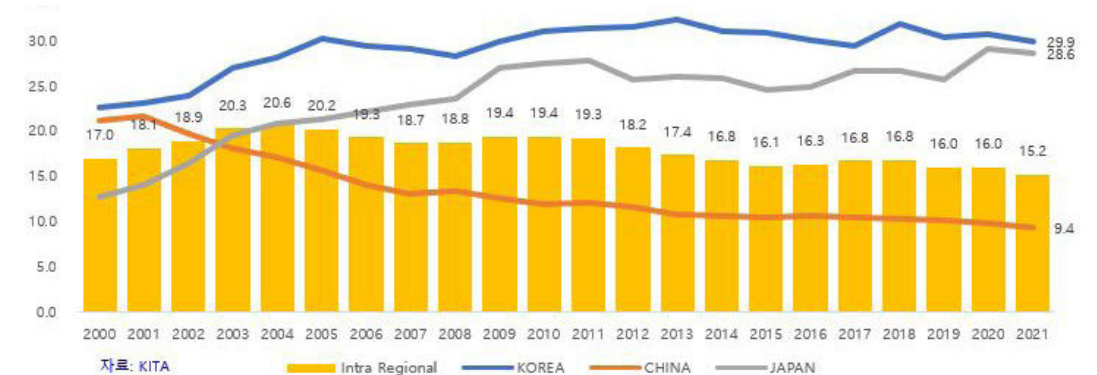
양 평 섭 (楊平燮)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1. CJK(중국-일본-한국) 경제협력 현황

한-중-일은 상호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양자 간 경제 협력은 한중일 관계에 있어 안정적인 기반이다. 한-중-일의 기존 경제 협력 논의 과제는 경

제 통합, 금융 무역과 투자 편리화였으나 최근 들어 공급망, 디지털, 환경 등으로 재편되고 있다. 對 CJK 수출/對세계 수출 비중과 CJK 협력 분야는 다음 아래 그림과 표와 같다.

<그림 1> 對CJK 수출/對세계 수출 비중(%)



<표 1> CJK 기존 경제협력 분야 및 新협력 분야

협력 분야	Korea	Japan	China
경제통합 협력	• CJK FTA • 한국과 중국의 CPTPP 가입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무역 및 투자 자유화 : RCEP, CJK FTA	• CJK FTA 촉진 (RCEP+ model)
금융 협력	• 한일 통화 스와프 재 추진 • 금융안전망 협력	• 금융 통합 및 금융 안전 협력	• CJK 금융협력 확대 (currency swap, CMIM)
공급망 협력	• 중간재 분야의 공급망 협의 채널 구축	• GVC 회복력 강화 협력	• CJK 산업 체인 협력 심화
규범 협력		• 글로벌 이슈 협력 : 기후변화 • CJK 공통 이슈 협력 : sports, health, aging	• 글로벌 자유무역체제 보호 공동 노력
디지털 협력	• 디지털 기술 표준화 협력	• 경쟁과 협력 • IOT와 AI 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디지털 인프라 생태계 공유 •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 협력 • 국제 규범(rule) 제정 협력 • 통일된 디지털경제 측정 framework 개발
기타	• CJK의 중심성 강화	• Think-tank 공동 연구와 TCS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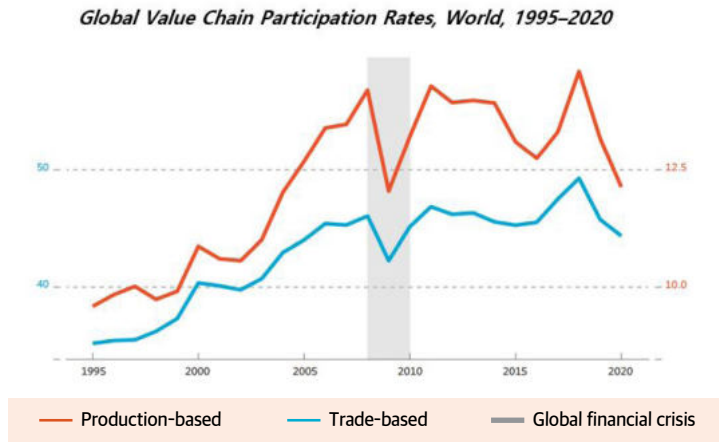
자료: TCS, Trilateral Economic Report 2011-2020

2. CJK 경제협력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에 의한 이슈를 보면 최근 특히 2022년에 들어서 공급망의 압력을 받고 있다. 압력을 받는다는 것은 코로나도 있고, 지정학적 압력도 있고, 미-중 간의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째, 글로벌 벨류체인(GVC: Global value chain)의 문제는 과거의 미국, 독일, 일본 중심의 GVC였다면 최근엔 동아시아의 GVC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ICT와 관련해서 공급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롭게 형성된 GVC의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은 한-중-일 경제협력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에 있어서 최전선은 동북아다. 미-중의 반도체, 배터

<그림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



리 등 기술패권 문제는 지금 한-중-일 3국의 협력 연결고리가 가장 크다. 이러한 미국의 위협 요인이 한-중-일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산업에서도 한-중-일 3국이 끈끈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미국의 對중

국 제재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중-일 3국 안에서 미-중 간의 반도체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 등이 현재 한-중-일 협력의 연결부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 아래의 그림과 표는 미국의 對중국 안전보장정책의 3대 축과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국 경제안전보장 강화(decoupling) 조치에 대한 예시이다.

3.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CJK 경제협력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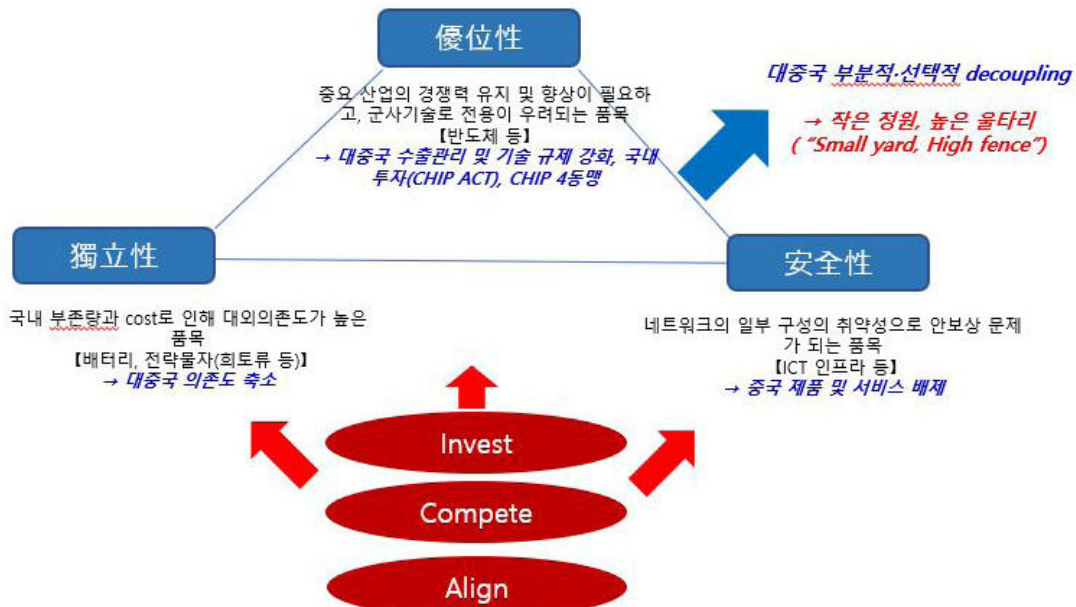
미-중 전략 경쟁시대의 한-중-일 경제 협력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RCEP 기반의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CPTPP 가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한-중-일 FTA를 통한 동아시아 규칙을 제정하고 높은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과 Negative 방식의 투자 개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플랫폼(세계 3대 제조강국의 협력) 개방과 공급망의 안전도 보장 가능하며, 환경, 디지털/데이터, 노동, 경쟁정책 등 선진국형 협력 규정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전환과 규범의 협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 전환, 디지털 산업 육성, 산업의 디지털화, 디지털 정부,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계획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하여 3개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존재한다.

셋째, 한-중-일의 탄소중립 실현 협력으로 기후변화대응, 탈탄소 협력, 녹색 전환 협력 등이 필요하다. 다자 간 탄소중립 실현, 차세대에너지 감축 협력, 자연재해 공동 대응, 에너지 구조 전환 협력, 수소 경제, 친환경 자동차 산업 협력 등 다자간 공동 협력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의 환경 요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그림 3> 미국의 對중국 안전보장정책의 3대 축(Pillar)



<표 2>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국 경제안전보장 강화(decoupling)조치 예시

구분	優位性	獨立性	安全性
대상품목 (핀셋)	- Critical기술관련제품 - 반도체	- 높은 대외의존 품목 - 배터리, 희토, 의약품	- 신기술 산업 - AI, 양자컴퓨팅,.....
대중 규제 (compete)	- 수출관리, 투자규제 (미상장기업 관리 강화) - 중국 군복합기업 주식상장 금지	- 대중국 의존도 축 - 공급원 다원화, 중국 이외 지역으로의 생산거점 이전 지원	- 수출, 투자 제한 - 정부조달 시장으로 부터의 배제 - 중국 제품 및 서비스 사용 제한
국내 투자 (invest)	- 생산거점 국내회귀 - R&D 투자 및 제품 수요 환기 - 동맹국 기업 유치	- 생산거점 국내 회귀 - 에너지 절약, 대체 재료 및 신기술 개발 - 중국 배제(IRA)	- Buy America 강화 - 연구개발투자 - 중국제품 배제를 위한 보조금(IRA)
다자 제휴 (align)	- 수출관리·투자규제 등 조화(다자간 대중 수출관리를 구축) - 국제표준화 규칙 형성 제후 - 공동연구개발, Non-China Supply Chain의 구축	- 공동연구개발, Non-China Supply Chain의 구축 - 공급국 대체를 위한 제3국 지원	- 중국 제품 및 서비스 사용 제한 - 안전한 기술의 공동 개발 - 공동으로 제3국 인프라 정비 지원
• IPEF(2022.5), US-EU TTC(2021.6), QUAD 안전망(SCRI), CHIP4동맹, MSP(광물안보, 2022.6)			

<표 3> 한-중-일의 디지털 경제 발전 전략 협조

	KOREA	JAPAN	CHINA
목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소사이터티 5.0 실현	网络强国, 数字中国 건설
추진 방향	- 기반강화 : AI·데이터·클라우드 - 신산업 :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 디지털정부 구축 - 산업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산업기반 정비	- 디지털 경제의 新우위 - 디지털 사회 건설 - 디지털 생태 환경 - 디지털 정부
주요 사업	-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 클라우드·SW 육성 - 한계 돌파 新기술 확보 -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세계 3위권내 AI 국가(~2027), 데이터 시장 2배 이상 성장	- 협조 영역 데이터 공유·AI시스템개발 촉진 - 플래투 프로젝트: 도시정비, 스마트시티, 물류 - AI 터미널 - Post 5G, 데이터센터	- 디지털경제 전환의 4화(化) 추진 : 디지털 산업화, 산업 디지털화, 데이터 가치화, 디지털화 거버넌스 - 핵심 디지털산업/GDP : (2020) 7.8%→ (2025) 10% -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공업인터넷, 블록체인, AI, VR/AR 등 7대 디지털경제 중점산업
기타	- 디지털 전환 3법 - 한-싱 DPA 서명, DEPA 가입 협상 타결, IPEF/CPTPP 디지털 협상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 (2021.6)	“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 (2021.12) - DEPA 가입 신청(20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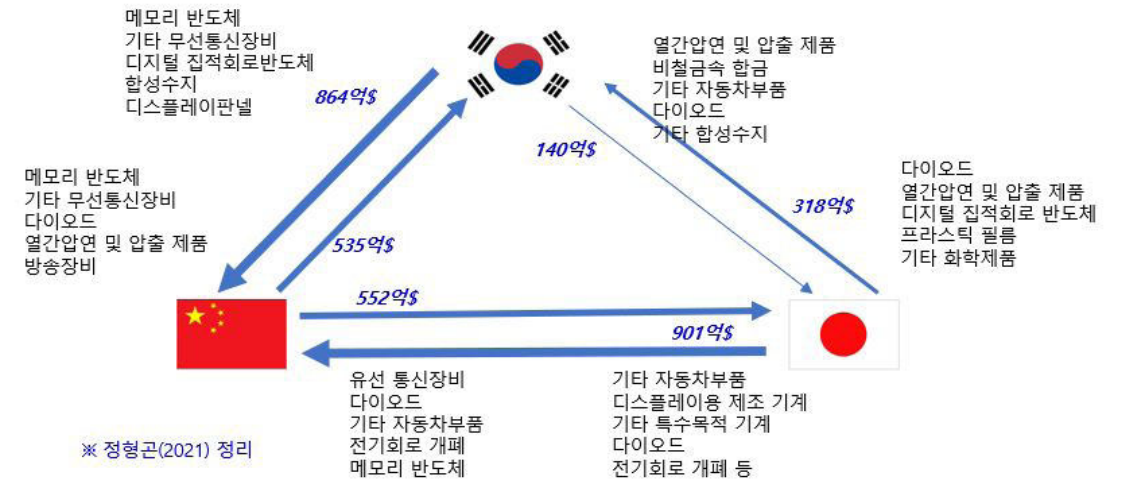
※ 자료 : 김규판(2021) :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등

<표 4> 한-중-일 탄소중립 실현 협력

구분	한국	일본	중국
목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 미래 구축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그린성장전략(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2020.12, 2021.5 수정)	绿色中国, 美丽中国 건설
NDC 목표	3050	3050	3060(2030년 CO2배출량 감소 전환, 2060년 탄소중립 실현)
중점 분야	- 과학적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 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 탈탄소 전력에 의한 전기화(electrification) 14대 중점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	- 에너지 구조 전환 - 탄소저감 기술 개발
주요 사업	2030년까지 GHG 배출 40% 감축 - 조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 수소, CCUS 등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산업 조기 상용화 - 화력발전 완전중단(또는 일부 LNG 잔존) - 전기 및 수소차 완전 전환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50~60%, 수소 및 암모니아 발전 10%, 원자력 및 CO2 회수 화력발전 30~40% - 해상풍력, 수소, 자동차·배터리, 반도체·정보통신 등 14개 중점 분야 기술 개발 2035년, 전기차(신차) 비율 100% 2040년 반도체·정보통신산업 탄소중립화 2050년 탄소중립 회복가능의 쾌적한 삶 구현	2030년까지 GDP 단위당 배출량 2005년 대비 65% 이상 삭감 - 비화석에너지 (풍력·태양광) 비중 : (2025) 20% → (2030) 25% → (2060) 80% - 친환경 교통, 친환경차 보급 확대 : 2030년 신에너지차량 비중 40% 달성 - 친환경 도시화 - 친환경 생산 및 소비 - 순환경제
주요 조치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2.3) -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22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대응기금 (2022.1~)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 탄소가격제, 규제개혁·표준화, 국제협력	'1+N' 정책 체계 2030년 탄소배출 피크 달성 행동방안(2021) - 탄소중립 업무 영도소조(2021.5~)
국제 협력	- 환경조치(EU CBAM) 대응 - 환경보호 협력(WTO, APEC, OECD, G20) 논의 참여 - 청정 수소 교역 기반 확대	- 미국, EU와의 협력강화 - Asia Energy Transition Initiative - Tokyo Beyond Zero Week(국제총보)	녹색 일대일로 (Green BRI)

자료 : KIEP (2022)

<그림 4> 중국 중심의 한-중-일 소부장 무역구조: 중국 수요, 한국과 일본 공급



넷째, 한-중-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업 안정화 협력을 위해 한-중-일 FTA를 통한 중간재 조기 관세인하 추진이 필요하다. 한-중-일이 전 세계 부품 수출의 27.3%(中: 16.4%, 日: 5.9%, 韓: 4.9%)를 차지하고 자본재의 35%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수직적 분업체계에서 수평적 분업 및 경쟁 체제 전환을 통하여 한-중-일 중심의 GVC 공급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급망의 불안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드(THAAD)로 인한 규제보다는 코로나 확산, 미중 마찰, 차세대 공급망 변화가 크게 작용한다.

중-일 협력이 필요하다. 국익에 도움이 될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균형 감각을 가진 한-중-일 협력이 필요하다. 한-중-일 관계, 한-미-일 관계 등을 재구축하여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양평섭 프로필

국민민간경제협력의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대우경제연구소, 국민민간경제협력의회 등 역임.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지역전략팀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4. 맺음말: 비대칭적 전략적 협력 구조의 리스크

미-중 갈등 장기화는 한-중-일 협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중-일의 전략적 선택은 상당히 부분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택은 미-중 갈등 시대에 필수적이다. 균형 감각을 가진 한-

일본의 핵 폐수 배출 문제와 동북아의 환경관리 : 3국 거버넌스 시급

쉐 샤 오 평 (薛晓芃) 대련외국어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첫째, 일본 핵 폐수 배출 문제의 현황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30년 내에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내의 핵 폐수 100여만 톤을 태평양으로 방류하기로 했다. 2022년 8월 4일, 도쿄전력은 본격적인 배출설비 공사를 시작해 해저터널을 굴착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40년 내에 모든 핵 폐수의 배출을 완료할 예정이며, 배출 총량은 100만 톤이 넘는다. 앞서 수립된 2023년 봄에 본격적인 핵 폐수 배출 계획이 연기되어, 2023년 여름부터 배출이 시작될 수 있다.

둘째, 관계자의 입장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 수산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은 아래 표들과 같다.

No.	이해관계자	입장	안전요구
1	중국	강력 반대, 협상 일치 전 배출 금지, 추가 행동 권리 유지	고도 안전
2	한국	강한 유감, 절대적으로 용납 불가, 새정부 정책의 변화	고-중 안전
3	러시아	강한 관심	고도 안전
4	일본	후쿠시마 재해 복구, 도쿄전력 폐수 처리	탈안전화
5	동맹	개별국가의 우려	마지노선 안전
6	미국	일본 결정지지, 글로벌 핵안전기준 준수, IAEA 모니터링 참여	마지노선 안전
7	후쿠시마 민중	수당 지급	고도 안전
8	수산기구	수산물 신뢰도, 배출 모니터링 참여, 경제적 보상 획득	중도 안전
9	국제원자력기구	일 오염물질 배출 기술 실행 가능, 건강에 미치는 영향 소	마지노선 안전
10	제3자 연구기관 및 환경보호단체, 인권단체	방사성 물질 배출은 태평양 전체에 영향을 미침. 인도양에 들어가면 트리튬 이외의 다양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해양 생물군에 융합되거나 해저에 퇴적 우려	고도 안전

셋째, 일본 핵 폐수 배출 문제의 지역 관리

모든 거버넌스 문제가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일차적 조건은 각국의 일관된 거버넌스 요구사항이다. 일본의 핵 폐수 배출 문제는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안전화의 정도가 다르다. 적절한 안전화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이며, 높은 안전화와 불충분한 안전화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를 자극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일본의 핵 폐기 문제를 놓고 중-마-일의 안보 게임이 지역 거버넌스의 핵심에서 벗어나 지역 거버넌스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는 분명하다. 일본은 핵 폐수 문제의 탈안전화를 시도하지만 한국과 중국과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동북아에는 거버넌스 실력과 거버넌스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가 없어, 지역 거버넌스 리더십이 부족하다. 한국은 지역 거버넌스의 주요 추진국으로서 강력한 거버넌스 동기를 가지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의 두 거버넌스 대국을 움직이기 어렵다. 일본은 통치력이 가장 큰 국가로 한때 ODA 프로그램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공적개발원조를 주도했지만, 동북아 지역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요는 부족했다. 중국은 아직 충분한 통치력이 부족하고 지역 안보 구도의 한계로 인해 수요와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지도력 부족은 지역 거버넌스 목표를 구할 수 없고, 거버넌스 범주와 경계를 수립할 수 없게 되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핵 폐기 문제에 대한 주장과 관점을 제시하는 지역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아직 없으며, 이는 이러한 협력 메커니즘의 느슨한 거버넌스 특성과 관련이 있다.

넷째, 일본 핵 폐수 배출 문제에 관한 지역의 협력 공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체제는 핵심 조정 기능을 발휘한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체제는 협상과 소통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일본의 핵 배출은 협력의 금기가 아니라 중요한 협력 의제이다.

지식 공동체는 인지적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식 공동체는 3국의 과학연구기관, 대학, 지역 및 국제기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체들은 동북아 해양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과학 연구를 통해 오염상황을 추적하고 장기적인 상호작용에서 인지적 공감대를 발전시킬 수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감독 및 각국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거버넌스 영역을 확장하고 거버넌스 협력을 형성한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핵 폐수 방류를 결정하고 발표하여 이미 국제법을 위반하였고 국제기본적 윤리 규범도 위반하였다. 동 문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업, 관광업, 식품 안전, 광범위한 연대 파생 문제도 포함한다. 동 분야의 거버넌스에 대한 시급한 요구는 지역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쉐샤오핑 프로필

심양사범대학 외국어학원 문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 중국외교대학 국제관계연구소에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현재 다롄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통 속에서 현대 인문·문화 교류 및 그들의 미래를 본다

-한일 교류제의 경험에 의거-

히라이 토시하루 (平井敏晴)

한양여자대학교 실무일본어과 조교수



1. 주요 내용

인문 교류는 다른 문화 간에 상호 접촉으로 새롭게 발견되고, 특히 사람과 물자 간 교류로 발전되어 다양한 교류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교류의 촉진은 경제적 교류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 교류는 정부 간 교류보다 훨씬 빨라 2007년 민간 주도로 변경되었다.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고 여러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문화적 견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 및 국가와 교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동 교류를 통하여 양자 및 다자 간 문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여러 방면의 문화교류가 필요하다.

2. 도입 현대의 인문·문화 교류

유행 문화는 드라마, 음악, 애니메이션(오락)으로 교류가 지속되었고, 각 국가와의 예술로 인한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수입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입 제품 구매(다른 지역의 산물) 비중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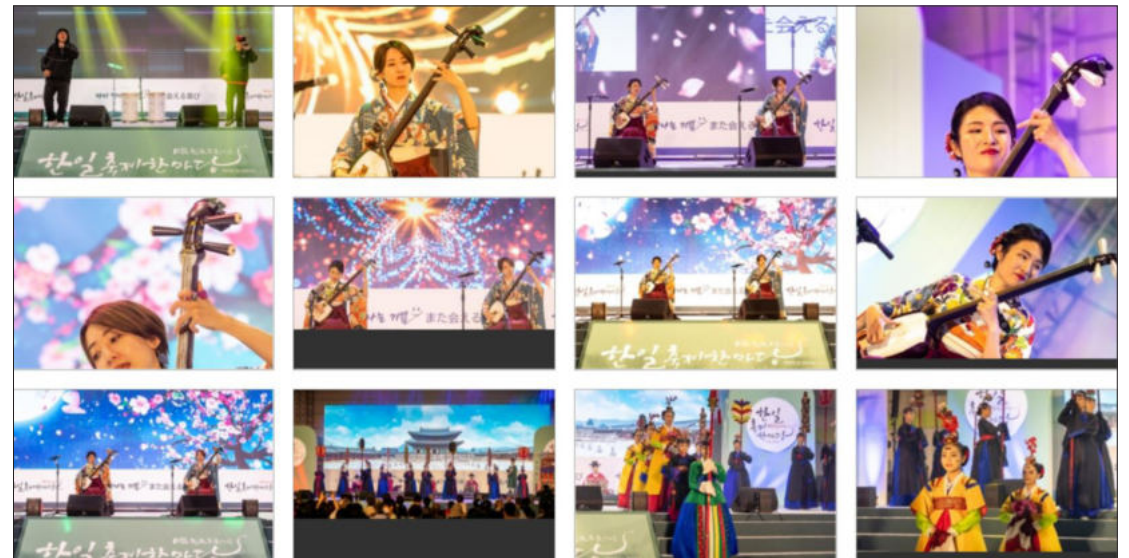
아울러 휴식의 욕구와 새로운 장소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해외여행 수요도 상당부분 증가하여 해외여행을 통한 인문·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되었다. 각 국가 국민들의 해외여행으로 문화적 교류와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특히 국가별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전통의 힘 한일교류제

한일 교류제란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정부 주도로 서울에서 '한일 우정의 해'라는 주제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으로, 한일 최대의 민간교류행사로 양국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동 행사는 수만 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가는 최대 규모의 한일 교류 행사이다.

한일 문화교류, 시민교류, 청소년 교류, 지방자치단체 교류 등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축제를 통하여 한일 문화의 차이를 더욱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07년부터 민간의 주도로 행사가 개최되었고, 2009년 이후로는 서울과 도쿄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었다. 한일 교류제의 사진은 다음 아래와 같다.

<그림 1> 한일 교류제



자료 : 한일교류제 2022 in Seoul 공식 홈페이지

4. 사람과 문화 상호 융합

동아시아 지역의 한·일 간, 사람과 문화 간의 교류가 있었다(한일 교류제의 기획안도 이 점을 활용하였다). 서기 1세기,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숙신 민족은 <사마천>의 사기에도 등장했으며 주로 강남 지역에서 활동했다. 아울러, 여행 답사를 통하여 중국(중원, 강남, 동북부, 연해지역)과 베트남 등을 통하여 상호 간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중화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의 문화 활동을 통하여 대립과 포용 등 다양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에서 통일성이 생기고 서로 다른 동일성은 문화 간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 문화 간의 위화감은 이념 간의 대립(문화 대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인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협력하고 발전하고자 노력하였다.

5. 놀라움과 발견 속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

서로 다른 지역 간 현대 문화의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및 국가 간 문화 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론적 견해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문화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3국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기획안(전통 및 현대)의 틀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자 간의 문화적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의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히라이 토시하루 프로필

일본 가나자와대학 화학학, 일본 도쿄도립대학 독문학 석사학위 취득, 일본 도쿄도립대학 박사 수료. 경희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시간강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실무일본어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 영향력 커진 중국 '핵심이익' 강조 중일 관계, 미중 경쟁에 호전 기대 난망

신 정 승 전 주중대사 /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원장 신정승입니다. 방금 과분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한일 신시대포럼 월례회에서 '최근의 중일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첫 부분은 현재의 중국, 그리고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회원분들이라면 중국에 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중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에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중일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의 중국

저는 중국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든지 큰 나라라는 느낌입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지금 14억 명이 조금 넘고, 국토 면적은 전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일본의 25배가 되고, 한반도의 44배, 한국만 따져놓고 본다면 한 100배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지만, 물론 한족이 중심이고 인구의 9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56개 민족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큰 지방 행정구역으로는 4개의 직할시인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을 포함한 31개의 성급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그 외에도 홍콩, 마카오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만을 추가해서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중국 1979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 가속 군사력도 커져 국제사회 영향력 급속 확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개혁개방을 1979년부터 시작하여 이미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2010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2021년의 중국경제를 보더라도 GDP가 달러 베이스로 약 17조 7,000억이 되었고요, 2021년에 8.1% 성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GDP는 현재 전 세계 GDP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올해 성장목표를 5% 내외로 잡았습시다미는 어제 인민대학에서 예측한 것을 보면 성장률이 대략 4.7% 전후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베이징 사무소는 그보다도 낮은 3.5% 내외로 예상하고

있지요. 다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1인당 GDP는 현재 12,500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자신들이 개도국(개발도상국)이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 세계 1위 무역 대국입니다. 2021년에 대외무역 총액이 6조 2,000억 달러가 되었고 21.4%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7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무역흑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환보유고도 역시 세계에서 제1위인 3조 2,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1조 3,0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미는, GDP로 대비해 보면 중국이 일본과 비슷한 비율로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하면 전 세계의 제조공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그렇고 자동차도 그런데 2021년도 자동차 생산은 중국이 2,600만 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785만 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일본보다 훨씬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것은 각각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숫자일 것입니다. 일본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아마 숫자가 더 커지겠지요.

중국의 국방예산은 2022년도 중국 전인대 회의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 2,250억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PPT 화면에 2,250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 정도라고 한 것은 중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다른 정부 예산에 사실상 국방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산시켜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추측하는 바에 의하면 중국의 국방예산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의 대략 1.5배 내지 2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국방예산은

세계 제2위입니다. 미국의 7,700억 달러 수준에 비하면 그것보다는 아직 3분의 1 수준이긴 하죠. 물론 일본이 대략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일본보다는 훨씬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2050년까지 공식적으로 세계 일류의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상 그때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그것을 '강군몽(強軍夢)'이라고 하는데 중국몽(中國夢)의 한 부분으로서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군의 현대화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국이 대륙 국가로서 오로지 중국 대륙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오늘의 중국은 경제 대국이 되고 국력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해양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해·공군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력도 커지고 군사력도 커지면서 당연히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도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제 사회에서는 중국이 기존의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중국위협론'이라고 합니다만, 서구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Miersheimer라는 분은 시카고의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이분은 중국이 기존 질서를 깨고 새로운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성장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이러한 중국위협론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펴고 있지요. 2차대전 이후에 일본과 독일이 발전해 온 것을 예를 들면서 중국은 기존 국제 질서의 틀에 맞춰서 노력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기존 국제 질서를 바꾸면 중국에게도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평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며 국제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Graham Allison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쓴 용어이지요. 옛날 그리스 BC 5세기 정도 되는 시기에 기존 강국이었던 스파르타에 아테네가 국력이 커지면서 스파르타의 지위에 도전한 그 결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중국이라는 신흥 강국이 이를 위협하고 서로 대응하다 보니까 결국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투키디데스 함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중국의 대외정책

중일 관계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중국의 대외정책이 뭔가 하는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 시점

이 100년 만의 대변국(大變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라고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과거 제국주의에 침략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대로부터 10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세상이 달라질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중국 인민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 시대를 보고 있는 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고, 중국 국민들에 대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의 외교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국정 목표가 중국의 꿈을 달성하는 것에 있다면 이를 위한 대외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그 답은 바로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외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도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북한이 가끔가다가 무력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

북한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잃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동란이나 어떤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위협론에 대응하면서 평화 발전을 강조하고 모든 인류가 함께 대화와 평화적 협상을 통해서 주권 평등을 바탕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일대일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중국의 친구들을 가급적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선진국들도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자주 모이지만 중국은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우군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늘 개도국들에게 중국식 발전 모델을 홍보하고 그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있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국 대외정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시진핑 이전 등소평(덩샤오핑) 시대에는 중국에서 도광양晦(韜光養晦)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도광양晦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하게 지내면서 시간을 벌어서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과거 중국 대외관계의 기본 지침이었습니다. 등소평의 방식이었는데 시진핑 들어와서는 대신 분발유위(奮發有爲)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도 할 말은 하면서 자신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적극 외교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서방에서는 assertive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 전랑외교(戰狼外交)라고 불리는, Wolf Warrior라는 용어도 사용되

고 있습니다만, 자신의 핵심이익을 수호한다는 논리로 상당히 공세적인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lobal governance에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요즘 크게 강화시키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해양 문제라든가 또 북극 남극과 같은 극지 문제라든가 우주, 사이버 같은 데에서는 아직 국제규범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규범들이 생겨나는 그런 분야에서 중국이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등소평 이전 '도광양晦'... 이전 '분발유위' "국력 위상 걸맞은 공세적 적극 외교 추구"

앞서 언급했지만, 중국은 특하면 자신의 '핵심이익'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에서 이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신의 핵심이익을 주권과 영토, 국가의 안전, 그 다음에 발전환경과 발전이익이라는 3가지 분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권과 영토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부분이나, 한 가지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이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의 안전은 소위 공산당 일당 지도체제를 포함해서 중국의 체제에 대한 안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더하여 공산당이 주도하는, 소위 말하는 Party State라는, 그런 정체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는 뜻이지요. 발전이익이나 발전환경은 중국이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가 인위적으로 그런 환경을 바꾸지 못하



한일 신시대포럼 6월 월례회

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에서는 “신(新)”자가 들어가 있는 용어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우리 포럼에도 “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최근 중국은 자주 “신”자를 붙입니다. 이는 아마도 서구적 의미가 아닌 중국 특색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신형국제관계’를 언급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대국들한테는 ‘신형대국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대국에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지요. 중국으로서는 특히 미국과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같이 협력하여 발전해 나가자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조심할 것은 상호존중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중국이 얘기하는 상호존중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그 전제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권익이라든가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라, 이런 것들이 중국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중관계 발전의 전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중일관계 현황

그러면 지금부터 중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시아시퍼 최근 중일 간 정치 관계 역시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저조한 상태를 유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의사소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0월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후에 시진핑하고 통화를 하였지요. 양제츠 정치국원이라고, 지금 중앙외사

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을 맡고 있는, 실질적으로 중국 외교 실무의 총책임자인 분이 있습니다. 아키바라는 분은 일본 내각부에 있는 국가안보국장이죠. 이 두 사람이 지난 6월 6일에 통화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마는, 아마도 미일 정상회담 시에 일본이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중국 측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대화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로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경제 관계는 이런 정치 관계와 별도로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는 양국 간 무역이 약 3,500억 달러 정도로 전년 대비 14.8% 성장을 했지요. 물론 한중 간 교역도 2021년에는 24% 정도 신장되었는데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역이 여러 가지로 좀 싹통치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21년 숫자가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일본의 2대 무역상대국이고, 중국에게도 개별국가로 따지면 일본이 2번째 무역상대국입니다. 인적교류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숫자가 별 의미가 없습니 다마는 2019년 코로나 직전까지의 통계를 보면 당시에 중국인 1,000만 명가량이 일본을 방문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268만 명이고요, 아마도 일본인의 중국 방문 숫자는 지난 몇 년간 거의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42,000명의 중국인이 방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중일 양국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난 5월 18일 하야시 일본 외상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화상으로 회담한 내용입니다. 하야시 외상은 일중 관계가 다양한 곤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고, 일본 국내의 대(對)중

국 여론이 극히 엄중하다고 한 다음에 앞으로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다 하되,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적절한 형태로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일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조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지요. 회담 내용을 보아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포함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또 홍콩의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일본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해협에 관해서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결국, 일본은 중국에 대해 할 말은 다 한다, 그러면서도 경제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은 협력해 나가자는 생각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왕이 외교부장 언급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마는, 중일 관계를 지도하는 4개 정치문건의 원칙과 정신을 견지하자고 언급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대만 문제에 관해 일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 과거 4대 정치문건의 원칙 얘기를 꺼낸 것이지요. 물론 왕이 부장도 중일 간에 경제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했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언급을 하였는데, 그중에는 요즘 첨단 산업과 관련한 부분에서 중일 간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중일 간에도 2022년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공감하기도 하였습니다.

4. 중일관계에서의 제약 요인과 주요 현안

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미일의 대응

중일 관계에서의 제약 요인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중일관계에서도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한중관계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입니다. 이것이 중일 관계에 있어서 큰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은 지금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내정책도 그렇고 대외정책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은 전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미국과 본격적인 세력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대양해군 지향...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미국, ‘전략적 경쟁국’ 규정... 일본도 동조

우선 중국의 국방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보겠습니다.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해양국가로서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접근(anti-access), 지역거부(area denial)라는 해양전략을 갖고 있지요. 지도를 보시면 중국에서는 도련선(島鏈線)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섬과 섬을 연결한다고 해서 도련선인데 영어로는 Island Chain이라고 하죠. 여기에 첫 번째 제1도련선이 있고, 좀 멀리 제2도련선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미국이나 다른 해양 세력을 제2도련선에서부터 저지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현실적으로 중국의 능력이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로만 책정해 두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제1도련선의 접근을



2009년 7월 용수자오

어렵게 하는 수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1도련선 내에서는 중국이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등 해군력을 크게 증가시키는 한편, 중국 연안에 미사일 부대라든가 남중국해에서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를 하면서 미국 해군 등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했지요. 이 사진은 중국에서는 용수자오(永暑礁)라고 하는 섬인데 영어로는 Fiery Cross Reef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1988년도 중국이 처음 점유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산호초 섬이었는데 이후 오른쪽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비행기 활주로가 있고 곳곳에 레이더가 있으며,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중국의 해군함정들이 들어와서 정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부근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합니다. 한 3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남중국해에서 해군함정을 사열까지 했습니다. 아마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중국이 해양 대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



2016년 6월 용수자오

기다가 2021년 2월에는 해경법을 발효시켜서 해경이 필요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남해구단선'이라고 해서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선 내에 있는 조그마한 섬들은 자기들의 영토이고 해양 권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과 분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섬 Fiery Cross Reef는 바로 이 남중국해 남쪽에 있는 난샤군도(Spratly Islands) 안에 있는 산호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 시절부터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잠정 국가안보 전략지침'을 2021년 2월에 공개해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바이든이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미국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7,700억 달러 수준 국방예산이 상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가, R&D에 투자를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중국과 경쟁할 때 실력으로 뒷받침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그것이 트럼프하고는 좀 다릅니

다.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만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바이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대중국 정책에 관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 현재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요소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자신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Invest가 첫째이고, 동맹국들 또는 파트너 국가들과 같이 연계해서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Align이 두 번째이며, 다음으로 Compete인데 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전에는 3C라고 해서 Confrontation, Cooperation, Competition 이런 용어들을 썼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Confrontation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려고만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 당초 Confrontation을 언급할 때 그 대상이 뭐였느냐고 한다면, 홍콩 민주화 문제라든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그리고 중국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킨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이에 대해 미국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2월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자유롭고 열린(Free and Open)'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개념은 2007년 일본에서 아베 1기 때 최초로 제안했고 이에

따라 몇 번 실무급에서 회의도 열렸지만, 별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다시 아베 총리가 'Free and Open Indo-Pacific' 개념을 제시했고, 트럼프 때 들어와서 중국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일본이 제시했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개념을 미국이 수용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는 이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면서 정상회의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QUAD라는 협력체가 있는데, 이에는 해양 국가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국제 해양질서를 변경하려는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만든 게 QUAD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QUAD는 정상회담으로까지 발전되어 왔고요. 그 밑에 실무 그룹을 몇 개 만들었는데 한국도 거기에 현재 참가 중입니다. 또한 TTC라는 것은 주로 유럽의 중심 국가들과 함께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이라고 해서 주로 무역과 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입니다. NATO는 잘 아실 거고, AUKUS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세 나라가 기본적으로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협력을 합의하기도 하였지요. 어쨌든 미국은 Align이라는 개념에서 양자 동맹 강화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협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기에는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기 때문인지, 전적으로 미국을 신뢰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았는데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공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징대학에 주평이

라는 동아시아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은 “일본의 안보외교와 군사전력에 있어서 미국이 최우선 대상이라는 것은 이미 확립됐다”고 얼마 전에 기고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미국에 밀착되어 있음을 중국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 중일 양자 관계에서의 모순

중국과 일본 양자 사이에서 모순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중 간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양국 간 국력 차이가 점점 벌어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천안문 사태 후 서방의 제재가 있었을 때에도 일본은 우회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지만, 제가 2010년에 동경에서 일본 분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 많은 일본 분들은 저한테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도 이에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2010년이야말로 GDP 세계 제2위의 자리를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차지해서 아마 일본 분들의 쇼크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일본 경제가 장기간 침체되고, 동북대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겹친 것도 이유이겠습니다만, 이후에도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강도로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부정적 인식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중국도 대략 2010년 전부터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일본이 중국어선 선장 그리고 선원들을 일본 순시선에 충돌했다 이 유로 체포를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고, 회도류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을 크게 압박했습니다. 중국이 왜 2010년께부

터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사실은 2008년에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했지만, 반면에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합니다. 또 2010년에는 상하이 엑스포도 매우 성황리에 끝나게 됐죠. 이런 일들로 인해 중국 사람들의 자신감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 요인은 국수주의 성향이 강한 시진핑은 2012년부터 최고 통치자가 되지만, 2010년에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2010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미중 관계도 이때부터 전략적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보지만, 이런 요소도 중국의 대일 강경 자세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결국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게 되었고,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서로의 인식에 변화를 주고 일본의 대중정책, 중국의 대일정책에 변화를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싫다’ 중국인 66%, ‘중국 싫다’ 일본 90% 외교 대치, 경제·문화 교류 확대는 상호 공감

2021년도 중일관계 여론조사 응답자 중에서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중국인의 비율은 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여전히 66% 정도인데 반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일본인은 90%가 넘습니다. 그만큼 일본 국민 여론이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악화되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내에서도 비슷한 숫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과 일본이 수세기 전부터 나름대로 경쟁 상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GDP가 일본을 제치고 크게

올라가니까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지만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라는 부분이 중국의 거친 공세적 대외정책과 더불어서 날이 갈수록 일본 국민들한테 더 각인이 되고, 그런 것들이 중국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애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 내 애국주의 움직임의 상당 부분은 중앙의 방침에 따라 동원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시진핑이 권력을 확대하고 강하게 장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국민들의 단합을 통해 중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압박용으로도 가끔 활용되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민족주의가 배타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이런 것이 현재 상호 국민감정들이 악화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중일 간의 주요 현안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네요. 센카쿠 문제라든가 대만해협 문제, 동중국해 해양권익 관련 문제, 역사 문제 다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5. 중일관계 전망

마지막 부분인 중일관계 전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중일관계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양국 관계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미중 간에 전략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입장 표명하는 것을 다소 자제하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게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압박하면 오히려 미국 쪽으로 더 가버릴까 하는 그런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을 보면 중국을 직접 지칭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 정도였고, 그 내용도 일본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정도로만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역시 일본의 기술과 자본은 중국이 여전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도 필요하고, 한국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체제하에서 중국은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공세적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양보를 하면 바뀔 수 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각자의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역사와 영토 문제, 대만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는 어느 순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크게 부상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와 문화교류 방면에 대해서는 중일 양국이 상호 간에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이 부장은 하야시 외상과의 회담에서 디지털 경제라든가, 저탄소 환경 기술, 기후변화 대책

같은 부분에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공통이익을 누리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파나소닉이나 토요타 같은 경우인데 이 두 회사는 현재 중국 내 공장도 확장하고 최신 설비를 들이면서 여전히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간에도, 요즘은 물론 메일이나 화상회의를 통해서입니다만, 순조롭게 서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무라타는, 반도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있던 공장을 태국으로 이전하면서 사업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적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간의 상호교류는 당분간 저조할 듯합니다. 역시 코로나 때문이고요. 제 느낌으로는 2023년 3월까지의 중국이 지금의 코로나 방역정책을 계속할 것 같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까지는 국민들 간 교류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인들이 일본 방문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젠가 방역 조치들이 완전히 해제되면 중일 간에도 국민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되어 이 정도에서 제 말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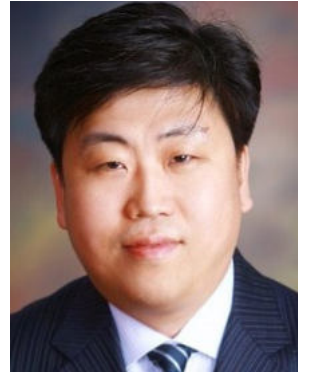
※ 상기 내용은 2022년 6월 27일에 개최된 '한일 신시대포럼 6월 월례회' 강연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질의응답 부분을 포함한 전체 내용은 『한일 신시대포럼 강연집 Vol.1-3(2022)』에 수록되어 있다.

신정승 프로필

현재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서울대 문리과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직업외교관 출신으로서 주 미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주일본 대사관 참사관, 주 중국 공사, 주 뉴질랜드 대사에 이어 주 중국 대사를 역임하였다. 국내에서는 외무부 중국과장,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공보관 겸 대변인,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역임하고 고려대 정외과 겸임교수, 경기도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지냈으며 2010년 국립외교원의 중국연구센터를 창설, 2015년 6월까지 초대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있었으며, 동료 전직 대사들과 함께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의 대응'(2011), 그리고 '대사들 아시아 전략을 말한다'(2013)를 출판하였으며, '외교', '동북아논단'(중국 길림대) 등의 기고와 더불어, 중국 중앙당교, 중국 외교학원 등 많은 곳에서 중국 관련 강연을 한 바 있다.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 시진핑 체제와 동아시아 : 갈등과 협력 요인 병존

이 홍 규 동서대 캠퍼스아시아학과 교수·중국연구센터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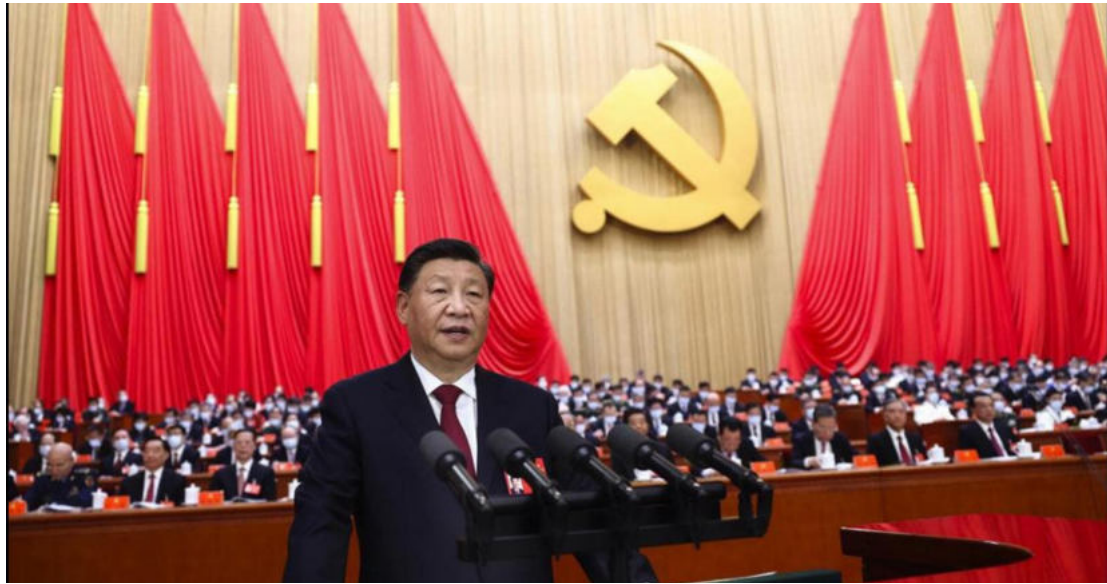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전체 중국 공산당원 9671만 2천 명 가운데 당 대표 2,296명과 특별 초빙된 83명 등 총 2,379명의 대표가 참가한 이 대회에 세계의 주목이 집중된 것은 이 대회가 사실상 시진핑(習近平)의 장기집권 여부 그리고 향후 중국 공산당의 정책 노선을 명확히 가늠할 수 있는 행사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1년 전인 2021년 11월 중국 공산당 19기6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역사상 세 번째로 역사적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시진핑 1인의 장기집권 체제를 역사적 문건으로 정당화한 바 있었다. 당시 “당의 백년 분투의 중대 성과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의”(이하 ‘3차 역사결의’)라는 역사적 결의문은 중국 공산당의 세 번째 역사결의로서 2021년까지의 중국 공산당의 첫 번째 백년 역사를 총결하고 2050년까지의 두 번째 백년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한 역사적 선언문이었다. 여기서 시진핑은 당 중앙의 핵심이자 전당의 핵심 지위에 있음이 역사결의로 확인됐으며 당의 영도 방식도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을 의미하는 ‘집중통일 영도(集中統一领导)’라고 명기되었다. 이는 당의 역사결의를 통해 시진핑 1인 권력 지위를 보장하여 시진핑의 장

기집권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미 1년 전 ‘3차 역사결의’를 통해 시진핑 1인 체제가 중국 공산당사에서 역사적 지위를 획득했고 따라서 시진핑의 장기집권 정당성이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는 시진핑 1인 체제 구축이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 시기에는 당내 1인 권력체제 구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정치체제의 오랜 불문율이었기에 과연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불문율을 버리고 개혁개방 이전 마오쩌둥 시기로의 회귀로 간주될 시진핑 1인 체제를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 것이다.

특히 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당 총서기의 업무 보고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그리고 당 대회 마지막 날에 보통 통과되는 공산당 장정(章程) 즉 당헌 수정안에 어떤 새로운 내용이 삽입될지가 크게 주목되었다. 당 총서기의 업무 보고 내용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 노선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중국 공산당의 정책 노선 방향을 점쳐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당 장정 수정안에 새로 삽입



2022년 10월 16일 낮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출처 : 조선일보)

되는 용어나 개념은 향후 5년간 강력하게 요구되는 중국 공산당의 규범으로서 작용한다.

한편, 당대회 폐막 직후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즉 제20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20기1중전회)에서 드러나는 당 총서기 인사안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정치국원 인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시진핑의 당 총서기 3연임은 당 대회 개최 이전에 이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향후 중국의 5년을 이끌어갈 당내 최고 권력엘리트 집단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즉,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역시 시진핑 세력이 다수가 될 것으로 대체로 인식되긴 했지만 그래도 시진핑 세력이 아닌 다른 파벌 즉 親후진타오(胡錦濤) 세력인 공청단(共青團) 파벌이나 親장쩌민(江澤民) 세력인 상하이파(上海幫) 같은 파벌 등도 여전히 존재하여 최고 권력엘리트 그룹 내의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했던 것이다.

20차 당대회 당 장정(章程) 수정안에서 나타난 미완성의 시진핑 1인 체제

20차 당대회는 10월 22일 당 장정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 205명, 중앙후보위원 171명 등을 선출하는 등 새로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폐막하였다. 당 장정 수정 관련해서는 당 주석직 신설 및 ‘兩個確立, 兩個維護’(두 개의 확립, 두 개의 수호)의 삽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兩個確立’은 시진핑 주석의 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의미하며, ‘兩個維護’는 시 주석의 당 중앙 및 전당의 핵심 지위 수호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 영도의 수호를 의미하는 용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에 통과된 당 장정 수정안을 보니 당 주석직 신설은 없었고 ‘兩個確立, 兩個維護’

가운데 ‘兩個維護’만이 삽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주석직 신설이 시진핑 1인 권력 체제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兩個確立, 兩個維護’의 당 장정 삽입은 시진핑 1인 권력 체제에 대한 당헌의 서사를 통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상술한 결과는 다소 예상 밖이었다고 할 수 있다. ‘兩個確立, 兩個維護’를 모두 긍정했던 제3차 역사결의문의 내용과 비교해도 이는 사뭇 다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아직 시진핑의 1인 체제에 대한 이견이 중국 공산당 당내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시진핑 개인을 위해 당 주석제와 같은 제도의 확립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으며 시진핑이 마오쩌둥 수준의 사상적 지도자 반열 즉 개인숭배의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을 의미했다. 다만 兩個維護의 당 장정 수정안 삽입은 최소 향후 5년 동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 체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에서 드러난 시진핑 1인 체제 구축 의지

그런데 시진핑 1인 권력 체제 구축이 당 장정 수정안에서 완전히 보증되지 않았으리라는 이러한 해석을 비롯기라도 하듯, 20차 당대회 폐막 직후 개최된 20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20기1중전회)에서 발표된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엘리트의 인사안 결과는 역으로 아주 놀라운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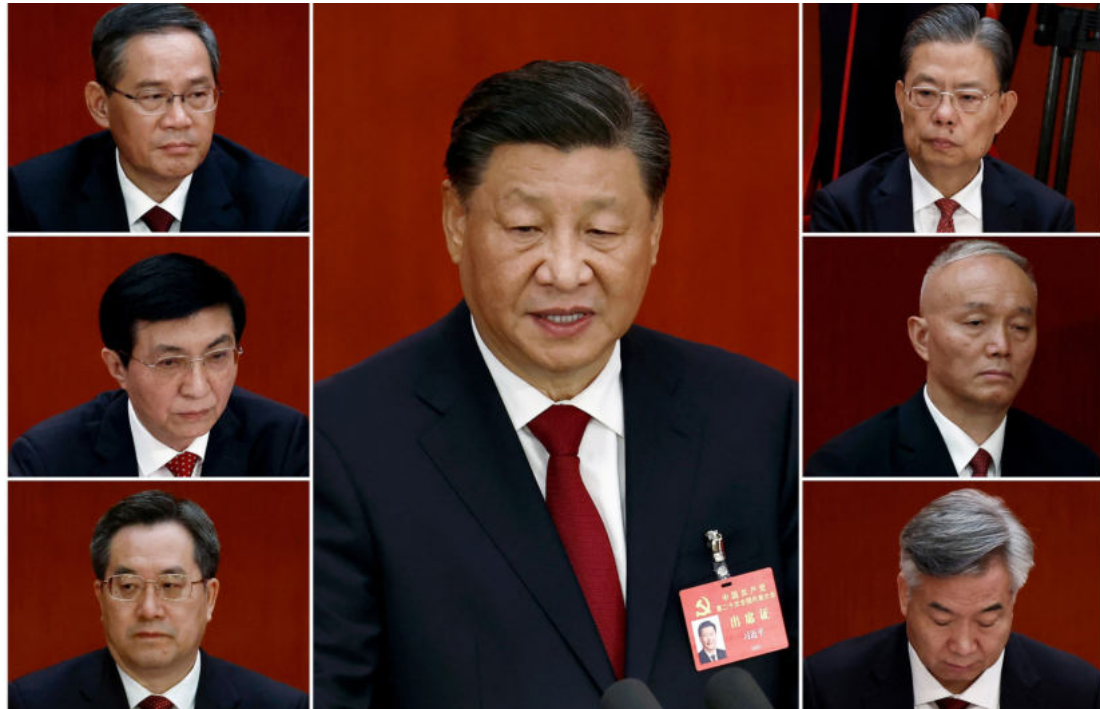
20기1중전회에서 결정된 최고 권력엘리트 인사 내 용을 보면, 우선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었다. 이는 2연임 이후 후계자에게 물려졌던 권력 승계의 관례가 완전히 깨진 것을 의

미하며 현재로서는 시진핑의 당 총서기직의 계속적인 연임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역시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됨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물리적 권력 역시 시진핑에게 집중된 상황이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가운데 가장 상급자인 장요우샤(張又俠)는 72세로 당 직무 연령규범인 73살8개월을 넘긴 것도 처음 맞는 상황이다. 장요우샤는 시진핑과 부모세대부터 동고동락한 군내 대표적인 시진핑 지지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어록처럼 이제 시진핑은 군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기1중전회에서 드러난 정치국 상무위원 즉 중국 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 그룹의 인사 구도를 보면, 이제 완전히 親시진핑 세력 일색으로 그나마 그동안 계파(파벌) 정치를 통해 이뤄졌던 시진핑에 대한 당내 권력 내부의 견제와 균형 장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유임된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은 각각 시진핑 집권기의 칼(사정 작업)의 역할과 붓(이데올로기 선전)의 역할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이미 제3차 역사결의 초안 기초조의 조장이었던 시진핑에 이어 부조장을 맡아서 시진핑의 역사적 우상화를 시도한 인물들이다. 신임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른 인물들은 리창(李強), 차이치(蔡奇), 덩쉐샹(丁薛祥), 리시(李希) 등 4인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시진핑의 부하였거나 최측근으로서 시진핑 세력 즉 이른바 시자쥘(習家軍)의 핵심 인물들이다.

특히 상하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뽑혀 향후 국무원 총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든지 베이징의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들. 맨 위 왼쪽부터 리창, 자오러지, 두번째줄 왼쪽부터 왕후닝, 차이치, 세번째줄 왼쪽부터 덩쉐샹, 리시.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측근들인 리창·차이치·덩쉐샹·리시 등 4명을 최고 지도부에 새롭게 진출시키며 집권 3기를 공식 출범시켰다/연합뉴스

<표1> 20기 1중전회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인선 내용

정치국 상무위원(7명)	출생지 나이(출생연도)	학력	주요 직책 (현직 혹은 예상)	비고
시진핑 (習近平)	산시(陝西) 69세(1953년생)	칭화대 학사(화공) 칭화대 박사(법학)	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	유임
리창 (李強)	저장(浙江) 63세(1959년생)	저장농업대(농기계) 홍콩이공대 석사(경영)	국무원 총리(예상)	신임
자오러지 (趙樂際)	산시(陝西) 65세(1957년생)	베이징대 학사(철학)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예상)	유임
왕후닝 (王滬寧)	산둥(山東) 67세(1955년생)	상하이사범대(외국어) 푸단대 박사(국제정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주석(예상)	유임
차이치 (蔡奇)	푸젠(福建) 67세(1955년생)	푸젠사범대(정치경제) 푸젠사범대 박사(정치경제)	중앙서기처 제1서기	신임
덩쉐샹 (丁薛祥)	장쑤(江蘇) 60세(1962년생)	푸단대 학사(행정관리) 푸단대 박사(행정관리)	국무원 상무부총리(예상)	신임
리시 (李希)	간수(甘肅) 66세(1956년생)	시베이사범대(중문학) 칭화대 석사(경영)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신임

재개발 과정에서 서민 거주지를 강제철거해서 비난 여론에 직면했던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어 중앙서기처 제1서기로 승진한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 발탁 기준은 능력보다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치국 상무위원 인선에서 더욱 놀라웠던 점은 비시진핑 세력으로 공청단과의 대표라 할 리창, 왕양(汪洋) 등의 정치국 상무위원 유임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정치국 상무위원 발탁이 유력시되던 후춘화(胡春華)가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탈락한 것은 물론이고 정치국원 유임도 좌절된 것이다. 후진타오의 공산주의청년단(이하 공청단) 파벌의 대표적인 차세대 인물로서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시진핑 이후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지정한 이른바 '격대지정(격대지정)' 규범의 대상이었던 후춘화의 낙마는 이번 정치국 상무위원 및 정치국원 인선의 초점이 시진핑의 1인 권력 체제 구축에 맞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1인 장기집권체제 공고화에 주력할 전망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시진핑 1인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시간적 간극이 존재함으로 발견할 수 있다. 즉, 20차 당대회의 당 장정 수정안에서는 시진핑 1인 체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20기 1중전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에서는 시진핑 세력이 전부 장악함으로써 실제 권력은 시진핑 1인체제 하에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향후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장악한 시진핑 세력은 시진핑 1인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데에는 아직 이에 걸맞지 않은 당 장정의 재수정 시도도 포함될 것이다. 당장 올해 가을에 열릴 중국 공산당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20기3중전회)가 그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兩個確立’은 시진핑 주석의 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의미하는 만큼 결국 향후 당 장정 재수정의 주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장정에 공산당의 지도 이념 가운데 하나로 삽입되어 있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란 용어도 향후 당 장정 재수정 과정에서 ‘시진핑 사상(習近平思想)’으로 명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시진핑을 마오쩌둥과 같은 중국 공산당의 사상적 지도자의 반열로 올려서 시진핑 1인 체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당 장정 재수정에서 당 주석제의 부활 여부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20차 당대회로 사실상 시진핑 1인의 장기집권 체제가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비록 이번에 통과된 당 장정 수정으로는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반열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향후 추가적인 당 장정 수정이 가능하도록 이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에서 시진핑의 후계자로 평가할 만한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 덩쉐샹이 1962년생으로 연령 면에서 후계자가 될 수 있으나 시진핑의 가신 이미지가 강한 인물이라서 후계자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국원 24명 가운데에도 연령 면에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1960년대생 인물은 10명 정도이나 이들 가운데 일부가 차기 즉 2027년에 시진핑의 후계자로 부각될 수 있다 하더라도 최고지도자로 권력을 승계받는 것은 2032년이 될 것이므로 시진핑이 향후 10년 동안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7상8하 연

령 규범, 적대지정 규범 등이 시진핑에 의해 와해된 것도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현상이다. 결국 시진핑은 2012년부터 20년 동안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셈이 된다.

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1인체제의 대외노선과 동아시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치열한 국면에서, 향후 시진핑 1인 장기집권 체제가 동아시아에 미칠 파급력도 간단히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1인체제를 구축한 중국 공산당의 강조점은 국가안보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안보(安全)로 총 91회 언급될 정도이다. 이는 19차 당대회에서는 55회 언급되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과거 경제발전을 핵심 키워드로 하던 당대회 보고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중국 공산당은 특히 중국을 압박하는 외부의 시도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 즉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직접적인 경계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진핑 체제는 강력한 현대적 군사력의 확보를 통해 안보 강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즉 중국 공산당은 당대회 보고에서 2027년까지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군대 및 국방 현대화와 강군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투 준비 태세와 실전 능력 향상을 강조하면서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강대한 전략적 억지력 시스템의 조성(打造强大战略威慑力量体系)”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것

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핵 무력의 확장을 통해 미국의 대만해협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당대회 보고에 나타난 향후 시진핑 체제의 국정 목표는 여전히 ‘중국몽’의 구현이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국식 현대화’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따라서 중국은 이에 걸맞게 주변국 외교를 추진할 전망이다. 여기서 ‘중국식 현대화’라는 개념은 중국의 거대한 인구 규모, 전 인민의 공동부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고려한 현대화로서 ‘서방식 현대화’와는 다른 방식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중국식 현대화 노선의 수용 여부가 미·중 갈등의 국제관계 국면에서 親중국 국가를 선별하는 기준이 되는 외교적 수단임을 시사한다. 중국은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가 경제발전과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의미의) 자주 독립 유지를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미중 경쟁 국면에서 친중국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시사하고 있다.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과 대립 국면에서 주변국 특히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간주된다.

당대회 보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 대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읽을 수 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처음으로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외세개입 배제, 무력사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또한 당 장정 수정안에도 대만독립을 결연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민감성을 드러내고 있다. 대만 군사개입이나 중국 핵군축 등이 거론된 미일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론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20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가치외교를 중시한다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보적 긴장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체제 강화는 결국 중국의 강군 건설과 긴장 국면을 조성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이나 일본이 홍콩 문제에 대만 문제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로 접근하는 가치외교를 강조할 경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협하는 외세의 개입으로 간주하여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미중 사이의 기술경쟁 과정에서 조성된 칩 4(CHIP4) 동맹과 같은 사실상 중국 디커플링 전략에 한·일이 참여할 경우, 한·일과 중국의 경제관계 역시 냉각될 것이다. 20차 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이 과학기술과 기술안보를 강조한 것은 중국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비전통 안보 영역 가운데 기후위기나 전염병 방역, 마약 등과 같이 여전히 한중일이 무조건 협력해야 할 신흥 안보 영역이 다수 존재한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에게 중국은 여전히 제1위의 교역상대국이며 일본과 한국은 중국에게 각각 4, 5위 교역상대국으로 한·일과 중국 사이에는 경제적 관계는 여전히 긴밀하다. 한국의 경우 한·중 FTA 추가협상도 진행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재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경제 금융 협력의 필요성도 여전하다. 전통적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문제는 핵무기 사용의 불분몰을 깨뜨려 한중일 사이의 공동 위협으로 인식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고, 현재

는 중국이 외교적 카드로 방치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 역시 한중일 모두에게 위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시진핑 1인 체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사이에는 갈등 요인과 협력 요인이 병존하고 있는 구도이다. 시진핑 1인의 장기집권 체제의 구축 그리고 이에 기초한 안보 요인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한중일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스마트한 외교를 기대해본다.

이홍규 프로필

동서대학교 캠퍼스아시아학과 교수 겸 중국연구센터 소장.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정치학) 박사. 주요 관심 분야는 중국 정치경제, 중국의 민주화, 동아시아 협력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중국모델론』(공저, 2008), 『체제전환의 중국정치』(공저, 2010) “보시라이 숙청과 충칭모델의 미래”(2012), “중국식 민주주의의 형성과 의미”(2017) “동아시아지역주의와 평화: 역사, 구조, 함의”(2020), “동아시아 공공성은 가능한가? - 새로운 동아시아지역주의의 사상적 기반” (2022) 등이 있다.

- 01 동서대 개교 30주년 기념식 '미래형대학' 청사진 공개
장제국 총장, "GELS 1000+, 영화감독형 교육시스템 등 현장위주의 교육 진행"



- 02 리투아니아 국립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교 총장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 미래 지도자를 꾸준히 육성한 공로와 업적을 높이 평가



- 03 동서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맞아 각종 공모전 수상작 상영회 개최
국내외 각종 공모전 수상 작품을 모아 대중에게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 마련



- 04 개교 30주년 국제학술대회 <포스트 휴먼 시대의 지혜>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



05

개교 30주년 특별전 'IcoXAhN Art Project: 'The Garden of Ideas 전' 개최

이탈리아 환경디자이너 이코 밀레오레 교수와 디자인대학 안병진 학장의 국제적인 협업 작품



07

발전기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

지난 30년간 동서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기부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명예의 전당 신설



06

지속가능발전센터 (DSU-SDGs센터) 개소식

사회문제 해결, 운영방식의 변화 등 실천을 모든 구성원과 협업하기 위해 설립



08

개교 30주년 기념 '설립자·이사장 자료 전시회'

출판도서를 포함하여 캐리커처, 기념사진, 상징적인 기념물 등을 민석도서관 1층 Book Cafe에서 전시



09 개교 30주년 기념 '민석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 앙상블 '매직 브라스' 초청 공연



10 민석도서관 '소장작품전' 열어
백남준의 <TV 첼로>를 위시하여 사갈, 이우환, 쿠사마 야요이 등 민석도서관 소장작품 소개



11 동서대학교 - (주)EMK 뮤지컬컴퍼니 산학협정 체결
뮤지컬 인재 양성을 위해 뮤지컬과 재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인 발굴 오디션 개최



12 간호학과,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전국 2만 4,175명이 응시했으며, 교수·학생 최선 다해 '전원 합격' 값진 결실



13

2022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교육부·한국공학교육인증원 주관 -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선정



14

동서대, 인공지능 시나리오·배우로 드라마 제작

15분 분량의 4편으로 구성, 4명의 가상 배우 출연



15

로마영화제 홀린 '정순'-심사위원대상·여우주연상 수상

동서대 출신 정지혜 감독 작품, 기획부터 후반작업 영상위가 지원



16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경찰청 공익영상 제작

반전 '소름' 영상 12만뷰 달성 및 부산광역시경찰청장에게서 감사장 받음



동남아 10개국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친밀감 확대 통해 상호 공동이익 도모

이 인 혁 KFA세안문화원 원장



ASEAN(아세안)?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시아(ASIA)'와는 다른 의미라고요?

'동남아 10개국 연합(ASEAN)'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동남아...', '관광하러 여러 번 가 보았어요.', '야자수와 휴양지', '더운 날씨', '비교적 낮은 물가', '친절한 사람들', '다양한 역사와 문화' 등...

우리가 가진 동남아에 대한 일반적이고 고정된 인상을 넘어서 이제는 동남아 10개국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전략적 의미와 ASEAN의 현재와 미래의 가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KF아세안문화원(KF ASEAN Culture House)'은?

'한국과 아세안을 잇는 공감과 동행의 문화 플랫폼'이라는 비전하에 2017년 9월 개원 이래 약 14만 명의 우리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KF아세안문화원을 방문하였습니다.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만찬'이 KF아세안문화원에서 개최되어 아세안 내 메콩 5개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頂上) 내외가 참석, 국내 거주 자국민들의 위상과 자부심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특별한 만찬행사를 통해 KF아세안문화원은 메콩지역을 포함한 아세안에 대한 존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음'을 잇는 정상외교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부산광역시



KFA세안문화원 개원식



KFA세안문화원 전경

역시가 협력하여 부산에 설립하고 외교부 산하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 Korea Foundation)이 운영을 맡아 우리 국민 대상으로 아세안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한-아세안 쌍방향 문화 교류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세안(ASEAN)이란 무엇인가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함께하는 준국가연합체로서 아세안 국가들의 역내 협력을 통한 공동 이익을 모색하기 위해 1967년 창설되었습니다. 현재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아세안(ASEAN)은 유럽연합(EU)과 비슷한가요?

그렇습니다. 아세안은 궁극적으로 유럽연합(EU)과 같은 국가연합이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며 동남아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공동체로서 매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세안(ASEAN)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아세안이라고 통칭하여 부르는 연합체이지만, 사실 국가별로 볼 때 각국의 역사, 민족, 종교, 문화, 언어, 사회, 정치체제 등 너무나 다양합니다. 아세안은 모두 6.6억 명의 인구, 면적 449만km²(한국10만km²

/한반도 22만km²), GDP 3조 3천억 달러(한국: 약 2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 시장으로 지리적 근접성, 통상과 자원의 상호의존, 첨단기술과 우수인력의 교류에 있어 대한민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아세안(ASEAN)과 관계를 발전시켜 왔나요?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 1989년 부분대화관계를 맺었고, 1991년부터는 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격상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냉전이 해체되면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가진 아세안과의 관계가 심화되었고 1997년에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1일에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KF아세안문화원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KFA세안문화원은 아세안 10개 완전 대화상대국 가운데 비(非)아세안 회원국에 설립된 최초·유일의 아세안 문화 복합공간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세안 국가들을 대신해 KF아세안문화원을 건립한 것은 바로 아세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와 친밀감을 확대하여 상호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외교는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받을 때 실질적 추동력을 가질 수 있는데, GDP의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에 있어 국민의 전략적 시각 및 외교적 사고와 우리 국민, 기업의 현지 진출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국민이 관광 등으로 아세안 지역 국가를 많이 방문하고 있으나 과거의 고정된 아세안에 대한 시각에서 벗어나 급격한 변화와 발전과정에 있는 현



제1차 한-메콩 정상회담 환영만찬 행사



재의 아세안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세안과의 '연대와 협력'이 궁극적으로 한-아세안 간 상호이익과 동시에 그 영향이 양 지역 국민에게 돌아감을 생각할 때 아세안과의 전면적 교류 확대를 위한 깊이 있는 상호 이해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양측 간 교류인원은 연간 약 1,326만 명(2019년 기준)으로 앞으로도 활발한 상호 교류가 지속·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내 거주 아세안 출신 체류자들이 한국인들로부터 편견 없이 존중받을 때 아세안도 한국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KF아세안문화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요?

아세안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 공연, 영화, 언어 교육, 요리, 문화이해 교육, 인적 네트워크 교류, SNS를 통한 디지털 사업 등 지금까지 160여 개 프로젝트를 실행해 왔습니다.

특히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메콩 5개국 정상들을 위한 환영만찬이 이곳 KF아세안문화원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KF아세

안문화원 상설전시실을 방문하시면 당시 만찬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또한 만찬 메뉴도 볼 수 있습니다.

한류의 압도적 영향력에 따른 아세안과의 문화교류 불균형성 해소가 필요합니다. 공공외교는 일방성이 아닌,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편견과 오해를 최소화하고 공감과 진정성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 보편 가치의 기반하에 아세안 각국이가진 특수성, 상대성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차원의 교류와 실질적이며 지속가능한 상호이익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KF아세안문화원이 부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산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앙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지만, 제2의 중앙, 중심으로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부산의 역동성에 문화원은 기여할 예정입니다. KF아세안문화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우리 국민이 KF아세안문화원의 활동과 설립 목적을 이해하고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내의 아세안과 우리 국민을 연결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KF아세안문화원은 국내외 다양



<찾아가는 아세안>



<아세안 어린이 공연 시리즈>



<아세안 오디세이>



<알기 쉬운 아세안>



<2022 아세안 마켓>

한 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원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는 동서대학교를 비롯하여, 부산시,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시교육청, 영화의전당,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 유관기관, 학계와의 MOU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궁

극적으로 부산의 발전이 전체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인천시 교육청 산하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등 다른 지자체 유관기관과도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미래세대의 학습 교과과정에 아세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을 둔 세계

화된 시민 육성을 위한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 및 교류를 지향하는 우리의 목표하에 아세안에 대한 이해와 우호적 친밀감 형성은 교육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특히 부·울·경 지역에 사는 아세안 이주민들과 다음 세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ACH-해운대백병원



ACH-인천동아시아국제교육원



KF-부산시교육청

이분들의 한국 내 위상 제고를 위해 KF아세안문화원은 다양한 역할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아세안의 각계 고위인사, 언론, 학계, 관광객들이 한국 내 아세안을 소개하는 KF아세안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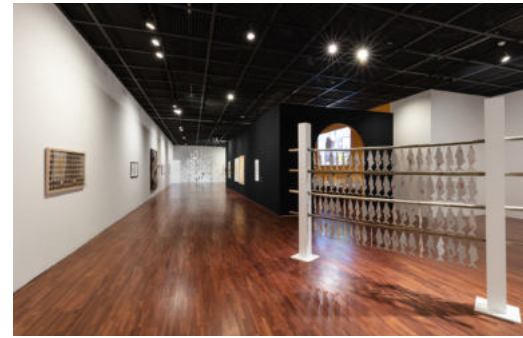
특별히, 현재 중요한 부산의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KF아세안문화원은 아세안사무국(ASEAN Secretariat)을 비롯하여 아세안재단(ASEAN FOUNDATION), 한-아세안협력기금(AKCF) 등 아세안의 주요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 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여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KF아세안문화원의 변화와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개원 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오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더 실감나게 아세안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아세안 디지털 문화체험존' 구축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방문객들이 VR, AR 등 4차 산업 기술을 통해 아세안 각국의 문화를 더욱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구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3년



KF-AF MOU 체결식



KONNECT ASEAN 협력전시

초에 현대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 예정입니다.

디지털 문화체험존은 오프라인 전시 소개 시 제약이 되었던 콘텐츠 구성과 다양성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무궁한 디지털 콘텐츠는 제반 분야에서 더욱 실감나게 아세안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대표적 랜드마크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사람들, 산업 등의 발전내용을 체험하여 동시대의 아세안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아세안 미래지향적 교류를 위해 한-아세

안 청년 간 대면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의 아세안 회원국 방문 기회 제공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현지 청년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한편 KF아세안문화원은 2021년에 제1종 전문박물관(명칭: 아세안문화박물관)으로 등록된 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아세안 관련 박물관으로서 다양한 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시 관람객들에게는 양질의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더욱 발전된 한-아세안 문화교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F아세안문화원을 운영 중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어떤 기관인가요?

1991년 외교부 산하에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KF글로벌센터와 부산에 있는 아세안문화원을 잇는 3원화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해외에는 7개국 8개처(워싱턴DC, LA, 도쿄, 베이징, 모스크바, 베를린, 하노이, 자카르타)의 센터와 사무소를 두고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30여 년간 전 세계 한국학 확산, 정책네트워크 확대, 한국문화 소개라는 큰 구분하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국격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으며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외교'를 위해 앞으로도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범위가 방대하여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전 세계 18개국 100개 대학에 한국학 교수직 156석을 설치하고 43개국의 중요 정책 싱크탱크와의 협력하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전 세계 12,000명의 고위 정치가, 석학, 청년 지도자와 각계 주요 인사들이 KF의 초청에 따라 방한하고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영국박물관(대영박물관)을 방문하신다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중 박물관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설치한 한국 갤러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동 박물관을 포함,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프랑스 기메박물관 등 세계 10개국 28개 해외박물관 내 한국실 설치에 KF의 역량으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앞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글로벌 가치를 세계인들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엄중하고 어려운 외교 환경하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외교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데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외교는 대중외교인 바, 우리 국민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프트파워에 기반한 각종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국민, 특히 부산시민들의 열렬한 관심과 지지가 가장 관건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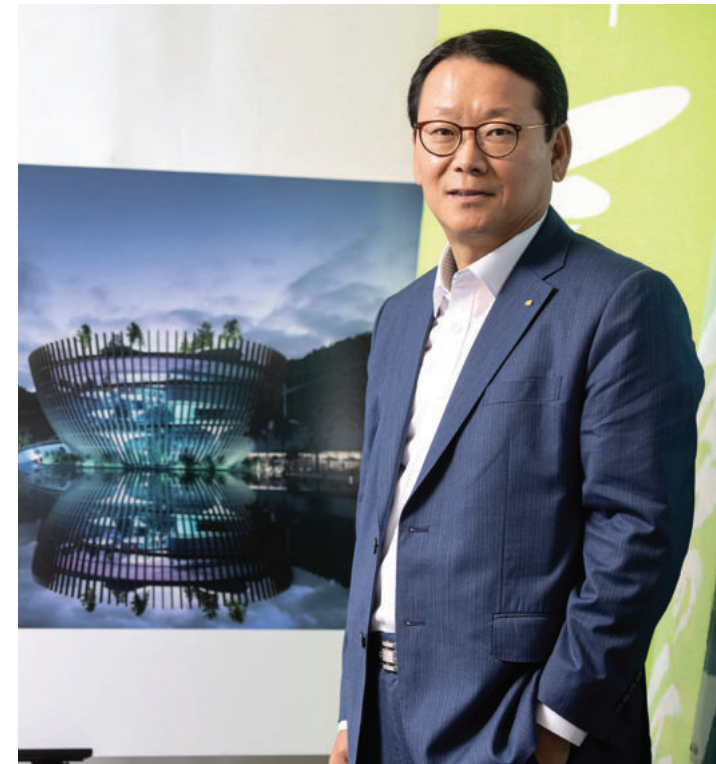
이인혁 프로필

1992년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 입사해 전략사업팀장, 사업혁신단장, 국제협력2실장, KF해외사무소장(베이징, 하노이)을 거쳐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경영협력실장을 역임했다. 현장 기반 지역연구,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추진 경력에 더해 조직, 인사, 예산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아세안문화원의 핵심사업인 한국과 아세안 간 쌍방향 이해와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

“건설에서 관광레저·게임으로… 글로벌 디벨로퍼의 꿈은 끝이 없다”

대담: 장 지 태 지역사회연구소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

이끄는 수장이 한국 최고의 디벨로퍼를 지향하는 최삼섭 회장이다.

디벨로퍼는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던 땅의 매입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사후관리까지 총괄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나 뉴타운 건설까지 도모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이다. 기존 시행사가 건축과 분양을 모두 대형 건설사에 위임하는 것과 달리 디벨로퍼는 사업의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지고 처리한다. 방치된 부동산을 발굴,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여 생명을 불어넣는다. 따라서 날카로운 통찰력과 적극적인 개발 마인드, 면밀한 계획, 시스템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해야 유능한 디벨로퍼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미래를 만든다(We Build the Future)’.

부산에 본사를 둔 대원플러스그룹의 사훈이다. 이 그룹은 2011년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아시아 최고 높이(299m)의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를 건설, 한국 건설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이 그룹을

최 회장은 모두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외면하던 부산 수영만 매립지를 수십 번이나 찾아가 살펴본 끝에 사업 진행을 결심, 여러 난관을 이겨내고 결국 최고 높이 80층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를 성공시켰다. 그야말로 예리한 통찰력과 치밀한 계획, 적

극적인 도시재개발 마인드였다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는 그의 독심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대원플러스그룹은 이제 주거 상업시설부문 한국 최고의 디벨로퍼로 성장했으며, 그 간의 역량을 결집시켜 국내 최초 해상케이블카, 세계 최대 인공서핑파크 등 테마파크와 관광복합시설 및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사업까지수행하고 있다.

작은 해안 도시였던 울산을 세계적인 공업도시로 만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를 한국 역대 최고의 디벨로퍼로 존경한다는 최 회장은 경북 봉화에서 1964년 태어났다. 동아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등을 이수했고, 최근 동아대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택 건설은 물론 관광·테마파크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경영 역량을 발휘하고, 스포츠와 문화, 예술, 교육 분야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최 회장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창의적 도시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디벨로퍼(developer)’

— 현재의 대원플러스그룹을 있게 한 그 창업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최삼섭 회장(이하 최 회장) : 1990년대 초에 중견 건설업체의 최연소 부산사무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1994년에 호주 유학을 준비하다 해운대 동백섬에 갔는데, 좌판을 놓고 회를 팔던 할머니가 특 던 말을 듣고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 유학의 꿈을 접고 건설 분야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산의 골목을 죄다 누볐습니다. 축적 1:5000 지도에 번지수, 지명이 나오는데 골목 지번을 다 외울

정도로 부산을 살살이 훑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1999년 ‘대원건설탕’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분양 대행이 아니라 경영 리스크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게 주 업무였죠. 이후 부산 최고의 주택건물 전문 컨설팅 회사로 거듭나고자 2000년 ‘대원플러스건설’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2002년 부산진구 양정동 ‘대원플러스빌’의 완공이 첫 시행작이었습니다. 이듬해 해운대구 마린시티 해안가 럭서리 주상복합단지 ‘두산위브포세이돈’을 시행했지요. 당시 ‘두산위브포세이돈’은 해운대 바닷가와 접해 있어 동백섬과 바다 조망이 양호하고, 대형 쇼핑 시설과 교육 환경까지 갖춘 마린시티 내 최상의 주거공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회장님께서 일구신 대원플러스그룹의 현황과 비전, 경영철학을 소개하신다면?

최 회장 : 그룹 모회사격인 (주)대원플러스건설이 건설 및 관광레저시설 조성의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는 (주)대원플러스개발, (주)송도해상케이블카, (주)웨이브파크, (주)세인개발, (주)대원바이오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룹 비전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의 디벨로퍼 그룹’입니다. 철학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사람을 위한 최적의 도시를 개발 (Development for Human)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적 사고로 세계 도시 문화를 선도 (Innovation of City)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최상의 가치를 창조 (Creation of Value) △궁극적으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 (Contribution for Society) 등 4가지입니다.

경영철학이라면, 무엇보다 신뢰와 믿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직원에게 믿음을 주는 경영을 중시합니다. 당연히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신뢰를 얻게 되겠죠.

— 대원플러스그룹 역사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최 회장 : 부지만 30번 넘게 살펴보고 2004년 땅을 매입했을 때 실패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대형 건설사도 선불리 나서지 못하는 와중에 지역 무명 건설사가 단독 입찰했으니까요. 건축 허가를 받는 데까지 4년 반이 걸렸지만 어려워도 버티는 독심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디벨로퍼로서 “5년 뒤, 10년 뒤 이 땅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늘 염두에 두다 보니 그림이 그려졌지요. 해운대 파도와 장산 능선을 형상화한 최고 명품 아파트. 그걸 제대로,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독창적인 미관과 입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최적의 조합을 만들고자 당

시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4개 설계회사로 태스크포스팀도 꾸렸습니다.

당시 분양가격도 서울 강남보다 비쌌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평수 없이 40평대 이상 대형 평형만 넣어 주위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업부지 면적 1만 5천 평, 연면적 약 18만 평, 총 3개 동 1,788세대, 사업비 총 2조 원 규모로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 현상이었습니다. 2007년 11월 착공해 2011년 11월 수영만 매립지 위에 최고 높이 80층 규모의 세계 최고층 주거용 아파트인 ‘두산위브더제니스’를 완공했습니다. 지금은 이 아파트가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아파트 단지이자 마천루가 즐비해 관광객들이 인증샷을 찍는 명소로 떠오른 ‘마린시티’가 두산위브더제니스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해운대 마린시티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지역 랜드마크가 된 두산위브더제니스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RedDot) 디자인상의 건설부문 본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해양도시인 부산의 특색을 주택 외관은 물론 인테리어, 조명, 조경 등에 반영하여 부산의 도시 미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고, 초고층 건물의 외형적 디자인은 물론 지진, 화재 등 안전설계에서도 완벽을 기했다는 점이 본상 수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산 관광 경쟁력을 높인 랜드마크 해상케이블카 설치

— 건설업을 해오던 대원플러스그룹이 국내 최초로 해상케이블카를 설치, 관광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최 회장 : 디벨로퍼는 건설인과 다르게 늘 상상을 현실화하고픈 목표가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시작 전에도 관광자원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을 갖춘 부산에 해양을 활용한 관광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부산 서구 송도 지역에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제1호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라는 지자체의 제안을 우리가 처음 받아들였을 때 다들 말렸습니다. 현금 800억 원으로 다른 사업을 하면 했지, 케이블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케이블카로 대출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송도해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에 들어서 부산의 관광지도를 바꾼 송도해상케이블카

상케이블카 오픈 이후 금융권에서도 그 조건들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86m 높이에서 송도해수욕장 동쪽 송림공원~서쪽 암남공원 구간 1.62km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송도해상케이블카는 2017년 완공됐습니다. 개장 당시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전 세계 6대륙 95개국에 설치된 1만 5천여 개 케이블카 중 경영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보도됐습니다. 부산의 10대 히트상품 1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송도해상케이블카가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부산 관광 지도를 바꾸고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덕분이겠지요.

또한 직접고용 150명, 간접고용 6,000여 명을 이끌어낸 것은 물론 해상케이블카 개장 효과가 더해지면서 송도해수욕장의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관광호텔이 신규로 조성되는 등 송도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도해상케이블카는 다양한 콘텐츠와 관광, 이벤트가 연계된 창의적 프롭테크(Proptech)의 대표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 개장으로 해양관광레저 분야 발전 이끌어

—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이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을 완공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서핑'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최 회장 : 처음 '서핑'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14년 무렵인데, 당시 한국의 서핑인구는 약 4만 명으로 해마다 2배씩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서핑전문 숍이나 서핑관련 업체들도 꾸준히 늘기 시작했는데, 서핑이 한시적 이슈로 그치지 않고 해양레저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

견했습니다.

한국에는 서핑하기에 좋은 파도가 없어 서핑문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산 송정해수욕장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인공서핑을 하기 좋은 마땅한 부지를 찾던 중 경기도 시흥시의 추천을 받아 시흥 해변에 세계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최초의 야외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2020년 10월 개장했습니다. 인공서핑이라는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도입한 거죠.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인공서핑의 스포츠 관광 인프라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이브파크'는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내 거북섬 일대 16만 6천여㎡ 부지에 5천63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인공 서핑장입니다. 서핑장과 파도 풀, 수상레저 체험장, 다양한 놀이시설 등을 갖춰 유아부터 성인 서퍼까지 즐겨 찾는 해양레저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장 후 '웨이브파크'는 해양레저 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인공 서핑장 최초로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을 획득했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관, 군인, 경찰, 보건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의 해양레저 시범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웨이브파크는 다양한 기관과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서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시흥시 서핑협회 등과 협약을 맺고 소속 서핑 실업팀이 훈련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수련 활동과 서핑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지역 대학교

들과 협약해 소속 대학생들을 우선 채용하고, 시흥시·고용노동부·시흥시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계 사업인 '수상안전 및 응급 구조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이브파크’ 완공을 계기로 대한서핑협회, 부산서핑협회, 시흥서핑협회 등과 손잡고 부산과 대한민국의 서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양도시 부산과 한국이 해양스포츠 종목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8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발표한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평판조사에서, 2019년 28위에 불과하던 시흥시가 18위로 10단계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도시 시흥’이라는 도시브랜드까지 변모시킨 ‘웨이브파크’ 역할이 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흥시 인구는 51만 명 정도지만, 관광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웨이브파크 바로 옆에 부산

의 대형 호텔보다 객실이 더 많은 약 2천 호실의 호텔도 건설 중입니다.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는데, 수도권을 비롯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심, 황령산 랜드마크 전망대 조성과 스노우캐슬 사업 정상화 추진

— 대원플러스그룹은 2021년 부산시와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을 통한 부산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핵심 사업에 해당하는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은 어떤 사업인가요?

최 회장 : 여행객들은 세계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 첫 번째 관광코스로 전망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곳에서 그 도시 전체나 멋진 야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세계 유명 관광지마다 전망대를 포함한 관광상품을 앞다퉈 홍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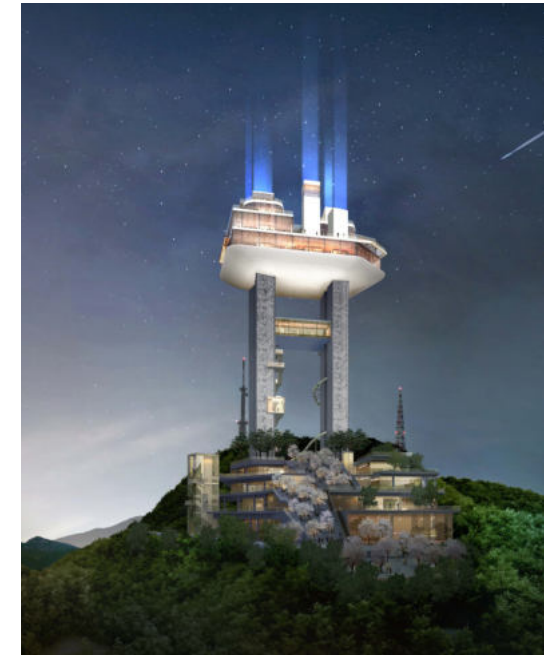
드론으로 촬영한 '웨이브파크' 내 '미오코스탁존'

그런 관광객들의 발길이 도심 전체 상권에 큰 활기를 가져오기도 하지요.

황령산 봉수전망대는 부산의 중심인 황령산 정상에서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도심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세계적인 랜드마크 전망대와 국내 최초 관광교통형 케이블카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서부산 관광 축을 단절하는 장벽이 되고 있는 황령산에 서울 남산타워보다 높은 세계 최고 높이의 전망대를 만들면 2030월드엑스포 유치 앞둔 부산의 킬러 콘텐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허가 절차가 모두 끝나는 대로 곧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2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의 또 다른 축인 스노우캐슬의 변화도 궁금합니다. 너무 오래 홍물로 방치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왔는데요.

최 회장 : 황령산 스노우캐슬은 2008년 사업 시행자의 부도로 영업을 중단되면서 14년째 홍물로 방치돼 왔습니다. 대원플러스그룹은 민자 1조 2천억 원을 들여 황령산 유원지(23만 2632㎡)를 자연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매력적인 세계적 도심형 복합 휴양관광단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가 성사되면 5,000만 명이 넘게 온다는데, 그 관광객들이 다 어디서 먹고 잘까요? 부산에 더 많은 호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노우캐슬 자리에 6성급 호텔을 비롯한 휴양·유흥시설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감도

부산과 한국의 산업·경제 토대를 바꾸고자 하는 열망

— 미국 유명 게임대학인 ‘디지펜 공과대학’ 유치도 진행 중인데, 회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의 폭이 날로 확장되고 있군요. ‘디지펜’과는 어떤 협력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최 회장 : 디벨로퍼는 항상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산업 발전으로 큰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국내외 게임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정작 국내에서 게임 제작을 담당할 인력 양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위치하고 싱가포르, 스페인 빌바오에도 분교를 둔 ‘디지펜 공과대학’은 닌텐도사가 설립을 지원한 세계 최초 4년제 게임대학으로, 포브스지가 선정한 최고의 게임디자인 대학으로 이름



항령산 유원지 조감도

을 올리며 게임계의 '허버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무/프로젝트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유명한 이 대학의 졸업생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구글, 닌텐도 등 세계 최고 기업에 진출했으며, 800개가 넘는 글로벌 게임기업의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요.

1998년 디지펜 공과대학 개교 당시 디지펜이 위치한 미국 워싱턴주 레드몬드/시애틀에는 게임회사가 단 9개뿐이었으나, 20년이 지난 2019년 기준 400개 이상의 게임회사에 2만 3천 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 세계적인 게임산업 허브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대원플러스그룹은 '디지펜 공과대학'과 2021년 10월 첫 투자유치협약을 시작으로 부산시-디지펜과 함께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 및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3자 업무 협약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게임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 프

로젝트의 일환으로 ▲게임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K-12 포함) ▲국내외 기업/연구소 유치 및 산학협력 조성 ▲게임테마파크 조성 ▲고부가가치 4차 산업 메카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지펜과의 협력은 도시개발을 넘어 부산, 나아가 한국의 경제 토대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위기를 대원플러스그룹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최 회장 :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말처럼 모든 사업이 늘 잘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의 디벨로퍼 그룹이라는 비전처럼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위기를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로도 눈을 돌리고 있는데,



2022년 4월 11일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 및 게임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식이 체결됐다. 사진 가운데가 박형준 부산시장, 왼쪽이 제이슨 추(Jason Chu) 디지펜 공과대학 부총장(COO), 오른쪽이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의 경우 낮은 금리와 환율 차이로 투자에 용이한 점이 있어 2022년부터 여러 가지 관광사업 진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부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하신다면?

최 회장 : 관광분야 활성화입니다. 국민 소득이 많아질수록 문화, 관광에 대한 관심은 커지기 마련인데, 부산은 현재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머물만한 관광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양도시라고 바다라는 자원에만 의지한다면 부산은 앞으로 변화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숙박의 경우 5천만 명의 방문이 예상되는 2030월드엑스포를 준비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숙박업은 관광사업의 필수 요소이나 사실상 수익을 보기 어려운 사업으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리조트와 대형 컨벤션센터가 추가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교육 분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후원·기부 활동

— 부산국제광고제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오셨지요?

최 회장 :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이자 2022년 15회째를 맞이한 세계적인 광고제인 부산국제광고제에서 2008년부터 부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부산국제광고제는 2008년 출품 규모가 29개국 3천여 편이었는데, 2019년부터 60개국 2만여 편으로 늘어 아시아 최대의 광고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행사 후원, 아트부산 조직위원 활동, 한국해양소년단부산연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저소득층 및 성적 우수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부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등 지역대학과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서구청장학회, 한국영재학교, 부산국립과학관 등을 대상으로 발전기금과 장학금 기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숨은 사회봉사와 꾸준한 지역사회 헌신 “청년은 긍정적 마인드와 자신감 가져야”

— 부산산업대상 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하시기도 했는데, 평소 지역사회 헌신에 대한 소신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최 회장 : 평소 봉사와 헌신은 드러나지 않게 꾸준히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에 설치한 ‘사랑의 쌀독’은 10년 넘게 항상 쌀이 가득 채워져 있어 누구나 마음껏 쌀을 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지만 꾸준한 나눔이 기업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기며 지역사회에 헌신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여 향토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범죄 예방 위원회 부산지역 운영위원을 맡아 지역 사회 청소년들의 지도 및 선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고, 수영세무서 세정자문위원과 명예서무서장을 역임하는 등 기업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세금납부 의무에 대해서도 솔선수범해오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시청자위원, 부산국제교류

재단 이사, 주부산스페인 명예대사, 부산고등법원 조직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원 등 언론, 국제교류, 법무, 행정과 같은 분야에서도 꾸준히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 최근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최 회장 : 청년들에게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실패를 하더라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응용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부산에 왔을 때 전 재산이 175원, 군복 한 벌, 담요 하나뿐이었지만 공사현장, 타이어공장 등에서 다양한 일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에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삼섭 회장 프로필

1964년 경북 봉화군에서 태어나 1999년 (주)대원건설을 창업했고, 현재 대원플러스그룹 내 (주)대원플러스건설, (주)대원플러스개발, (주)송도해상케이블카, (주)웨이브파크 등 여러 계열사를 두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부산국제광고제 부조직위원장, 주부산스페인 명예영사,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부산국제교류협회 부회장,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공동조직위원장, 부산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책을 읽자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주일날은 뭐 하는데?”
“예배당 간다.”
“예배당에는 왜?”
“예수 믿으러 간다 아이가...”

갠상도 사람들에게 ‘예수’는 ‘예수’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예수가 어렵다고? 그런데도 ‘언지 예’ ‘어테 예’ ‘~했거든 예’ 할 때 ‘예’는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다. 신기한 노릇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쌀’이 ‘살’로 발음된다. ‘승리’가 ‘성리’로, ‘의’가 ‘으’로 발음된다. 그따위 발음이 뭐 대수냐고? 아니다.

성경에는 발음으로 인해 4만 2천 명이 죽는 비극이 기록되어 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더라”(삿 12:6)

요단강 나루턱은 길르앗 땅에서 에브라임 땅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의 땅으로 도망하기 위해 건너야 하는 필수 루트다.

입다는 에브라임 외에 다른 지파의 살상을 막기 위해 그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징적인 발음을 이용한다.

‘십볼렛’은 영어로 ‘Shibboleth’이다. ‘SH’, 즉, ‘쉬’ 발음을 해야 한다. 에브라임 지방 사투리는 ‘쉬’ 발음이 되지 않아 그냥 ‘시’라고 발음했다. 즉, 십볼렛(Sibboleth)으로 발음하는 특징이 있었다. ‘위대한’이라는 발음이 안 되어 ‘이대한’이 되는 것과 같았다. 운명을 가른 ‘쉬’와 ‘시’, 복모음의 장애가 그들을 죽음으로 끌고 갔다.

이런 일은 프랑스에서도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다. 프랑스의 작은 섬 코르시카 출신의 병사가 진격 명령을 알아듣지 못해 명령불복종죄로 처형당한 것이다. 코르시카어는 불어와 크게 달랐다. 바로 이곳 출신의 또 다른 소년이 있었다. 브리엔(Brienne-le-Château)의 육군유년학교를 거쳐 파리의 군사 학교(Ecole Militaire)에 진학한다. 동급생 귀족 자제들은 코르시카 사투리가 심한 그를 거의 외국인 취급을 하며 놀려댔다. 말수 적고 친구 없는 곱슬머리 코르시카 청년은 독서에 매진하였고, 계몽주의 사상과 문학, 역사에 흠뻑 빠졌다. 그 청년이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

다. 같은 코르시카 출신인데 한 사람은 세계적인
영웅으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살아있고 한 사람은
이름조차 모른다.

#. 경상도 학교 수업시간

학생(안득기라는 친구)이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
생님께 들려서 불러 나갔다.

선생: 니 이름이 뭐꼬?

학생: 안득습니다.

선생: 안드까나? 니 이름이 머냐꼬? 드끼제?

학생: 예!

선생: 이짜속 바라! 내..., 니 이름이 머냐꼬 안 무
리했나?

학생: 안득습니다.

선생: 정말 안드까나?

학생: 예!

선생: 그라모 니 성 말고, 이름만 말해 보그라.

학생: 득습니다.

선생: 그래! 드끼제? 그라모 성하고 이름하고 다 대
보그라.

학생: 안득습니다.

선생: 이 지속 바라. 드킨다 겠다, 안 드킨다 겠다.

니 지금 내한테 장난치나?

학생: 샘요, 그기 아인테예!

선생: 아이기는 머가 아이라카노! 반장아, 니 퍼뜩
몽디 가온나!

(꺾을 몰래 꺾고 있던 반장은 안 꺾은 척 입을 다물
고 나간다)

반장: 샘예. 몽디 가꼬왔는데예 ~~~.

선생: 이머꼬? 몽디 가오라카이 쇠파이프를 가왔
나? 하~ 요새키 바라, 반장이라는 새키가 청구를 직

일라꼬 작정 했꾸마..., 아~ 니 이반에 머꼬?

반장: 예~~?? 입안에..., 꺾인테예~~.



송길원 목사가 앰블런스 소원재단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원나들이를 떠나고 있다

선생: 머라꼬? 니가 이반에 꺾이라꼬? 날씨도 더버
서 미치겠는데.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노! 지금 느

그들이서 널로 가꼬노나?

그날~~~~~
반장과 득기는 돼지게 맞았다.

최근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에 출연한 A씨는
지난 5월 동료 배우 사망 소식을 접하고 사회관계
망서비스(SNS)에 '명복(冥福)을 받다'고 올렸다. 그
런데 누군가에 의해 '명복을 반대 x웃겨 ㅋㅋ'란 댓
글이 달렸다. 말 그대로 웃픈 일이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을 놓고 "여왕께
서 붕어(崩御)하셨다"고 했다. 그러자 "여왕께서 저
녁 반찬으로 붕어조림을 드신 거냐. 혹은 워낙 심
심하셔서 붕어 문양 옷을 입고 코스프레를 시작하

셨느냐. 아니면 왕궁 뒤쪽 저수지의 낚싯대에 드디
어 붕어 월척이 낚였느냐." (서현교수)고 반응하는
꼴이다. 글을 읽기는 하는데 의미를 모른다. 이를
문해력(文解力)이라 한다.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3 발표)에 따
르면 한국의 '문해력'은 273점으로 평균 266점보다
높았다. 16~24세 한국인은 4위였다. 나이가 많을수
록 떨어졌다. 45세 이후는 하위권, 55~65세는 최하
위권이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성인 22%인
960만 명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
추지 못한 실질적 문맹"이라고 발표했다(2017년).

9월 8일은 '세계 문해의 날'이다. 1966년 10월 26일
에 유네스코 제14차 총회에서 9월 8일을 세계 문해
의 날로 선포했다. 유네스코는 우리 정부의 지원으
로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1990년부터
세계 문해의 날을 기념해 <유네스코 세종대왕



스승 이정삼 목사님을 모시고 엔딩파티를 하던 날 별을 그려냈다

문해상>을 수여하고 있다.

문해상을 제정한 대한민국의 문해력이 이러니 이 또한 웃픈 일 아닌가? 그동안 세종대왕을 얼마나 많이 웃프게 했는가? '일해라 절해라(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에어컨 시래기(실외기)'로 시작해 '미모가 일치얼짱(일취월장)' '삶과(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곰셈(꽃샘)추위' '괴자(계좌)번호'... 이제는 그만 '우끼자'. 진짜 웃음은 따로 있다.

YS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다. 두 번째 만남이라 반가웠다. 클린턴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고 인사한다.

"Who are you?"
클린턴이 재치 있게 답한다.
"I am Hillary's husband."

1990년대 일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혀를 찰 일이다. 누구나 긴장하면 헛소리가 나올 수 있다. 적어도 경상도에서는 반가운 친구를 만날 때 쓰는

말이 있다.

"이기 누꼬?"

영어로 하면 'Who is this?'쯤 된다. YS는 틀리지 않았다. 나머지는 통역관의 몫이다. 성경은 말한다.

"내가 들으니 너는 온갖 신비스러운 문제를 잘 해석하고 풀어낸다고 하는데 만일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나에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며 너를 나라의 제3인자가 되게 하겠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에게 줄 상과 선물은 왕이 가지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해 그 글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단 5:16-17, 현대인의 성경)

다니엘이 다섯 왕을 섬기는 지도자가 된 비결이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주먹으로도 못 친다."



하이패밀리 주기도문 산책길에서 친구 이규현 목사(수영교교회·왼쪽)와 함께 서로의 이마에 St. 글자를 새기며 환하게 웃고 있다



Good tv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송길원 목사

1974년 조지 포맨을 상대로 경기를 치르기 직전 무하마드 알리가 한 말이다. 그는 링 위에 올라서기 전에 이미 입으로 상대방을 기죽였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나는 악어와 레슬링을 했고 고래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번개를 잡고 번개를 감옥에 던졌다. 바로 저번 주에는 돌맹이를 죽였고 바위를 다치게 했으며 벽돌을 응급실로 보냈다. 내 포스는 약도 아프게 만든다."

"나는 훈련하는 1분 1초가 힘들고 싫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했다. 포기하지 말라. 지금은 고통이지만 남은 나의 일생을 챔피언으로 살 것이다."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 한 리포터가 훈련에 대해 질문했을 때.

"쓰라린 패배를 맞본 사람만이 경기가 대등할 때 영혼 깊숙이 남아 있는 그 작은 한방으로 경기를 끝낼 줄 안다." 그의 전적에서 5번의 패배를 회상하면서.

이 때문에 인간을 일러 호모 로쿠엔스(Homo Loquens·언어적 인간)라 하거나, 또 호모 그라마티

쿠스(Homo Grammaticus·문법적 인간)라고도 한다. 언어의 기술을 수사학(修辭學)이라 부르며 수사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문학 중의 인문학이다.

책을 읽자. "You are What you read." (무엇을 읽는지가 당신을 말해준다.)

송길원 목사 프로필

고신대학교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RTS에서 가정사역 논문으로 목회학 박사학위(D.Min)를 받았다. 명예보건학 박사(고신대학교)로 가족생태학을 연구하며 가르친다. 최근 들어 죽음의 문제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을 돕는 글을 집필하고 있으며 하이패밀리 대표로 있다. 현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다.

조선시대 동래는 ‘그림의 도시’ 명성 임진왜란 이후 서화류 일본 수출 활발

류 승 훈 부산박물관 학예관



동래는 옛 그림의 도시

조선시대 동래는 ‘그림의 도시’였다. 동래를 ‘조선시대 그림의 도시’라면 의아하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 필요한 그림을 제작했던 도화서(圖畫署)가 있었던 서울, 공식적으로 관청 소속으로 화가를 두었던 평양이면 몰라도 동래가 왜 그림의 도시인가? ‘그림의 도시’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 도시에 대한 그림이 많이 남아 있거나 도시에 서 많은 화가가 활동했거나 둘 중 하나다. 조선 후기 동래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가들은 20여 명으로 추정된다. 서울, 평양 외에는 이렇게 많은 화가가 활동했던 도시를 찾기 어렵다.

조선시대 부산의 화가 중에는 변박, 변탁, 변지한, 변지순, 이시눌, 김달항 등 이름이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옥천(玉泉), 해옹(海翁), 운암(雲菴), 삼락재(三樂齋), 청풍주인(淸風主人) 등 호(號)만 남긴 화가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들이 부산에서 활동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조선시대 동래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서 기인한다. 임진왜란 이후로 동래는 대일 외교를 전담했던 도시였다. 용두산 아래에는 일본인 마을인 초량왜관이 설치되었으며, 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하고 귀환하는 곳이었다.

초량왜관을 통해서 조일 무역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문물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일본인들은 조선 화가들이 그린 서화를 매우 좋아했는데, 이런 서화류가 동래에서 제작되어 왜관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인에게 판매의 목적으로 그린 수출화이다. 이런 회화는 공통점이 있다. 한결같이 그림에 ‘조선(朝鮮)’ 또는 ‘조선국(朝鮮國)’이란 국명을 쓰고 자신의 호를 기재하였다. 이처럼 동래는 대일 교류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화가들의 예술 활동도 활발해졌다. 그 결과로 동래는 ‘그림의 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옛 그림들이 많이 남게 되었다.

<동래부순절도>의 임진왜란 이야기

조선시대 부산은 임진왜란의 첫 격전지였다. 전란의 마지막까지도 부산은 왜적들의 주둔지와 보급로로서 역할을 했다. 요컨대, 임진왜란의 상처가 제일 컸던 곳이 부산이다. 임진왜란을 설명할 때 꼭 등장하는 그림이 <부산진순절도>와 <동래부순절도>이다. 이 두 유물은 부산에서 벌어진 임진왜란 전투상황을 묘사한 작품이다. 순절도(殉節圖)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우다 죽은 인

물들, 즉 송상헌 동래부사와 정발 부산첨사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동래부의 가장 유명한 화가이자 부산의 회화 수준을 한층 높였던 술재(述齋) 변박(卞璞)이 그렸다. 변박은 순절도를 비롯하여 왜관도, 유마도(柳馬圖), 묵매도(墨梅圖) 등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1763년 통신사행시에 조엄 정사에게 선받되어 일본에 갔는데, 이때 여러 작품을 그리기도 하였다. 그는 밀양 변 씨 집안

이다. 밀양 변 씨들은 동래에서 역관(譯官) 또는 무임(武任)으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화에도 재주가 뛰어났다. 앞에서 언급한 변지한은 그의 아들이며, 변탁과 변지순도 같은 친족이다.

순절도가 처음 제작되었을 때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60년이 지나서였다. 1658년 동래부사로 부임을 한 민정중(閔鼎重)이 화가를 시켜 순절도를 그리게 하였다. 1709년 권이진(權以鎭) 동래부사도 송상헌

부사와 정발 장군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전하고자 순절도를 제작하여 걸어두게 하였다. 5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그림이 퇴색하지 이를 안타깝게 여긴 홍명한(洪名漢) 부사가 변박에게 순절도를 재차 그리게 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변박의 순절도는 두 번째로 모사된 것이며, 순절도가 처음 그려진 이후로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재탄생한 것이다.

이 그림은 동래 충렬사에 대대로 보관되었지만 1970년대 육군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순절도는 숨진 위인들을 추모하는 충렬사 제향(祭享)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했다. 나는 충렬사 제향과 관련한 사진을 정리하다가 중요한 사진 한 점을 발견한 적이 있다. 1976년 충렬사 제향 때에 소줄당(昭率堂)에서 학생들이 고개를 숙여 참배하는 장면이었다. 이 소줄당 앞에는 순절도 두 점이



<동래부순절도> (육군박물관 소장)

걸려 있었다. 순절도가 충렬사 제향 시에 참배를 위한 상징물로 기능을 했다. 순절도는 보는 이로 하여금 임진왜란 당시의 정황을 체험하게 하였다. 순절도 속에는 동래성 전투의 다양한 장면들이 담겨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전란 속으로 자신을 투영시키고, 실감하듯 당시의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동래부순절도>는 송상현 동래부사와 백성들이 왜적의 동래성 침략에 맞서 싸운 4월 15일의 장면을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송 부사는 빨간 갑옷을 입고 성루에 서 있다. 굳게 닫힌 남문 밖에는 2개의 푯말이 있다. 하나는 왜군들의 손에 들려있는 '가아도(假我途)' 푯말, 또 하나는 땅바닥에 던져진 것으로 '가도난(假途難)'이라 적혀 있다. 실제로 동래성을 포위한 왜적은 “싸우고 싶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길을 빌려 달라(戰則戰矣 不戰則假我道)”라는 목패를 남문 밖에 세웠고, 송상현 부사는 “싸워서 죽는 것은 쉬워도 길을 빌려주는 어렵다(戰死易假道難)”라고 쓴 목패를 왜군에 던지도록 했다. 중과부적의 상황에서도 송 부사는 결사 항전의 자세를 보여줬다.

안타깝게도 <동래부순절도>는 패배로 끝을 맺는다. 동래읍성의 군민은 처절하게 싸웠음에도 왜군이 성벽을 파괴하고 침입함으로써 급격히 진영이 무너졌다. 순절도에서도 왜군들이 동문 위쪽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떼거리로 몰려오고 있다. 창칼을 휘두르는 왜군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좁은 성안은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됐다. 그 와중에도 백성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낫과 칼, 그리고 맨손으로 저항하였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붕 위로 올라간 선비 김상(金祥)과 여인 두 명이 기왓장을 왜군들에게 던지며 저항하고 있다.

항거의 장면 위에도 송상현 부사가 등장한다. 중앙

에서 조복을 입고 앉아있는 인물이 송 부사다.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동래성 전투에서 함께 싸우다가 순절한 노개방(盧蓋邦) 교수의 일행이다. 순절도가 말하는 핵심적인 장면은 송상현 동래부사가 순절하는 이 마지막 이야기다. 송 부사는 성이 함락되자 죽음을 예감하고 갑옷 위에 조복을 입은 채로 의연히 앉아 최후를 맞이한다. <동래부순절도>는 비겁한 자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고 있다. 북문 위쪽을 보면, 흰말을 탄 경상좌병사 이각(李栻)이 휘하의 군사들과 함께 성을 탈출해 도망가고 있다.

동래읍성이 사라진 <동래부치도>

부산에 남긴 임진왜란의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부산은 물리적 복구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평상시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1608년 동래부사로 부임한 이안눌(李安訥)은 4월 15일에 비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집마다 곡(哭)을 하기에 놀란 이안눌 부사는 그 이유를 늙은 향리에게 물었다. 향리는 임진년 왜구가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천 명 중 한두 명이 살아남은 날이 오늘이라고 답을 했다. 곡할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고, 온 가족이 다 죽어 곡할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안눌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후로 이 부사는 전란 복구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허물어진 동래성을 복원하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조선 정부의 재정상황도 그렇지만 전란 직후 수만의 백성들을 부역시키는 축성 사업을 감히 기획할 수 없었을 게다. 병자호란 이후로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무너진 성곽을 정비하는 일도 진행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동래성 복원사업은 한참이 지난 후에 거행되었다. 정언섭(鄭彦燮) 부사가 동래에 도착했을 때 동래성은 임진왜란 때 무너진 상태 그대로였다. <내주축성비(萊州築城碑)>에 따르면 “동래는 임진년에 성이 함락된 후부터 140여 년 사이에 그 주변의 옛터가 무너져 백성들의 집이 되어 한 조각의 울타리를 친 설비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위 비문은 조선 전기의 동래성이 허물어지고 140여 년 동안 성곽이 없어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동래부치도(東萊府治圖)>는 <내주축성비>가 언급한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기록화이다. 이 그림은 『봉래수창록(蓬萊酬唱錄)』이란 서화첩에 포함되어 있었다. 1725년 동래부사 조석명(趙錫命)은 홍성, 정석유 등 지인과 어울려 동래의 여러 곳을

다니고 시문을 지은 뒤에 『봉래수창록』을 편찬하였다. 이 책 안에 어느 무명의 화가가 그린 <동래부치도>를 끼워 넣었다. <동래부치도>는 1731년 정언섭 부사가 동래성을 짓기 이전에 그려졌으므로 성곽이 없었던 동래부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동래성이 없는 그림의 가치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 전기 동래읍성과 조선 후기 동래읍성에 관한 그림은 있지만, 그 간격을 보여주는 자료는 희귀하기 때문이다. 이 기록화를 보면, 성곽이 무너진 자리에 백성들의 민가가 가득 들어서 있다. 위 비문처럼 한 조각의 울타리 설비도 없었으니 동래부와 마을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동래부 외곽은 논밭으로 꽉 차 있으며, 지금은 사라져버린 농주산과 삼성대도 잘 묘사되어 있었다. 북쪽에는 왕의 전패를 모신 객사 건물인 봉래관(蓬萊館), 서쪽에



<동래부치도> (봉래수창록 중)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는 동래부사가 근무하는 동헌의 정당인 충신당(忠信堂)도 나타나 있다. 동쪽에 모여 있는 건축물은 동래향교의 대성전을 비롯한 시설들이다. 동래향교는 조선 초기엔 지금의 동래고등학교 자리에 지어졌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몇 번을 옮겨 다녔다. 이처럼 <동래부치도>는 140여 년의 역사적 틈을 채워주는 소중한 기록물이다.

<동래부사접왜사도> 속 조선-일본의 만남

조선시대 부산을 그린 기록화에는 파노라마식으로 엮어진 병풍도 있다. 대표적인 병풍이 19세기에 그려진 <동래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이다. 이 그림은 10폭의 병풍으로 동래부사가 초량왜관에 온 일본 사신(倭使)을 접대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예전에는 겸재 정선이 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요즘은 부산의 화가가 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그림에는 동래부사가 일본사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초량왜관까지 가는 경로, 동래부와 부산진의 경관, 왜관의 풍경들이 잘 묘사되어 있다.



<동래부사접왜사도> 중 숙배식(8폭), 연향대청(10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특히 초량객사에서서의 숙배식(肅拜式)과 연향대청(宴享大廳)에서의 연회 풍속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체결하여 임란 이후 단절되었던 양국의 왕래와 무역을 정상화했다. 이 약조에 따라서 일본의 사절단이 왜관을 방문하면 조선에서는 관리들이 접대를 나가게 된다. <동래부사접왜사도>에는 이러한 외교 관계에 따른 동래부사와 일본 사신의 공식적인 만남이 그려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과 일본이 만날 때 매우 꼼꼼한 절차와 예식, 그와 관련된 풍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왜사들이 왜관에 도착하면 먼저 조선의 왕에게 절을 하는 숙배식에 참가해야 한다. 조선의 왕을 직접 볼 수 없으니 왕을 상징하는 전패가 있는 객사에서

신고식을 해야 하는 법이다. <동래부사접왜사도>의 8폭에는 초량객사에서 치러지는 숙배식이 그려져 있다. 숙배식에서의 조선과 일본의 만남은 매우 엄숙하면서도 딱딱해 보인다. 왜사 일행은 마당에서 절을 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있고, 동래부사 일행은 객사 안과 앞쪽에 서 있다. 객사 안에는 흑단령을 입은 4명의 관리가 서 있다. 동쪽 벽의 인물은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서쪽 벽은 통역을 담당하는 훈도(訓導)와 별차(別差)이다. 왜사들은 뜰에서 전패를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조선 통신사가 에도(江戶)에 가서 쇼군을 만날 때면 대청 위에서 절을 하는데, 일본 사신들은 대청 위가 아닌 마당에서 전패를 향하여 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굴욕스럽게 생각한 왜사들은 대청 위로 올라갈 것을 요청하였지만 조선 조정은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왜사들이 뜰에서 숙배하는 대신 판자(板子)를 깔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조선 정부는 수용을 해줬다. 그림 속에도 일본 사신이 무릎을 꿇은 곳에 장방형의 자리가 깔려 있다.

엄중한 숙배식에 비하면 연향대청에서의 만남은 흥겨운 자리였다. 연향대청은 지금의 광일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지금의 대청로란 지명도 연향대청에서 유래하였다. 연향대청 그림(10폭)을 보면, 동쪽에는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의 일행이, 서쪽에는 왜사 일행이 각자 붉은 포를 두른 교의(交椅)를 앞에 두고 있다. 이 상에는 7찬의 맛있는 음식이 올라갔는데, 식사 이전에 술을 여러 차례 돌려 마셨다. 연향대청의 중앙에는 동래 기생들이 팔을 쭉 펴고 멋진 춤을 추고 있다. 즐거운 행사에 춤과 악이 빠질 수는 없는 법이다. 조선 조정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여악(女樂)이 적절치 않다고 여겨서 소동



<조선 해왕 매 그림> (부산박물관 소장)

(小童)들의 춤으로 대신하였다. 그러자 왜사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여악의 공연을 주장하였다.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꺼렸던 조선 정부는 승인해주었다. 연향대청에서의 공연을 위하여 동래부는 특별히 교방(敎坊)을 만들고 관기(官妓)를 차출하였으며 기생들에게 가무와 음악을 익히게 하였다. 이처럼 <동래부사접왜사도>는 임진왜란 이후 복원된 조선과 일본의 교린 관계를 보여주거니와 흥미로운 행사 풍속까지 조명한 그림이다.

호랑이 그림에서 산수화까지

조선시대 부산의 화가는 앞서 설명했던 기록화 외에도 다양한 그림을 그렸다. 부산 화가들의 그림에는 일본인들은 좋아하는 소재가 담겨있다. 특히 호랑이와 매 그림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호랑이와 매는 일본에서는 서식하지 않지만, 일본인들이 관심을 가진 동물이었다. 호랑이와 매는 사악한 기운을 쫓는 벽사(辟邪)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온 호랑이와 매 그림을 방에 걸어두고 벽사진경(辟邪進慶)을 기원하였을 것이다. 부산을 통해서 일본에 수출된 그림 중에는 남종화 풍의 산수화도 많았다. 이런 산수화는 문인들의 사상과 관념을 담은 문인화의 일종이다. 세부적 묘사보다는 자연 풍경과 인물을 담담하게 그려냄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출한 그림이었다. 일본에서도 이런 산수화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애호가들은 조선시대 부산의 그림과 서예를 컬렉션으로 모아두었다가 이후 병풍으로 꾸미기도 하였다. 이 또한 부산 화가가 그린 그림을 좋아하고 수집했던 당대 일본의 유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술재 변박 매화도 (부산박물관 소장)

류승훈 프로필

역사민속학자. '옛 우물에서 맑고 새로운 물을 길는다(舊井新水)'라는 신념으로 우리 문화와 부산 역사를 알리는 글을 쓰고 있다. 민속학을 전공하여 한국학 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의 탄생』, 『부산은 넓다』, 『여행자를 위한 도시인문학, 부산』, 『작지만 큰 한국사, 소금』, 『문화유산 일번지』 등 10권의 책을 썼다.

펜글씨를 배우면서

김 홍 희 사진작가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그래서 한 길을 판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는 말이 나왔으리라.

나는 요즘 펜글씨 쓰기에 빠져 있다. 사진하는 인간이 난데없이 웬 펜글씨냐고 하겠지만 이것 또한 사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 시작은 이러하다.

어려서 수정동 산복도로에 살던 나는 가끔 미화당 백화점 꼭대기 층에 있는 전시를 보러 가곤 했다. 초등학교 4~5학년 아이가 거기를 어떻게 알고 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혼자서 터덜터덜 걸어 미화당까지 가는 길에는 볼거리도 많았다. 일단 지금의 부산역은 황무지 먼지 날리던 공터였으니 서커스가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던 시절이었다.

천막 사이로 목을 비틀어 넣어 서커스를 한번 훑쳐 보려고 하면 어디선가 날아와 곰 손바닥 같은 손으로 등짝을 내려치는 아재들의 튀어나올 것 같은 눈알을 감수해야 했다. 그런 식으로 군데군데 구경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부산 한가운데 가장 변화했던 광복동에 달했다. 그리고 미화당백화점은 구경거리가 즐비했다.

그런데 내 기억 속에 새겨진 백화점 상품 같은 것은 없다. 나는 곧바로 가장 위층(아마 7층이었던 것 같

은데 정확하지 않다)에 올라가 매란국죽 묵화와 서예를 감상했기 때문이다. 해가 바뀌면서 묵화가 사라지고 유화로 바뀌고부터는 더는 백화점에 가지 않았다.

어린아이였지만 나는 서예를 보면서 쓴 사람의 손놀림보다도 그의 호흡을 느꼈다.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한다. 글씨 쓰임새를 따라가며 어디서는 호흡을 멈추게 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호흡을 풀어주게 되는 나 자신을 말이다. 글씨는 손놀림이 아니라 호흡의 장단과 마시고 내뿜는 절도에 의해 쓰인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셈이다.

그러다 가끔 어떤 글씨는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뱉다 내지르기도 해 마치 몸이 글을 따라 흐느적거리다가 멈추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기억이 난다. 학교 미술시간에 써보는 서예는 생각대로 붓이 움직이지 않아 재미를 못 붙였다. 그래도 글씨를 보는 흥미는 지금도 여전하며 좋은 글씨를 보는 눈을 배우지 않아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20년쯤 전, 중국의 루쉰(魯迅) 박물관을 방문했다. 루쉰은 <아큐정전(阿Q正傳)>, <광인일기(狂人日記)>, <방향> 등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중국의 문호다. 박물관에서 마오쩌둥(毛澤東)과

루쉰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을 때, 우리 국가원수 중 작가와 함께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단게 생각해 보았다. 딱 떠오르는 인상적인 사진이 기억에 없었다. 사회주의국가 중국에서는 한 작가를 찾아가 사진을 찍은 원수가 있었다. 중국의 수천 년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왔으리라.

루쉰 박물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루쉰의 친필 원고였다. 왕희지(王羲之)처럼 유려하고 기품진 필체가 원고의 네모 칸을 뽐뽐하게 메우고 있었다. 그것도 붓도 아닌 만년필로, 보고 또 보았다. 한 자 한 자의 아름다움은 물론 글 전체의 조화로움까지 더해 마치 원고지 위 글씨체가 한 폭의 서예 작품 같았다. 더군다나 그 글씨체의 아름다움과 비교해 하나 뒤질 것 없는 내용까지 담겼으니, 천하명필의 내용도 훌륭한 친필 원고를 처음 접했던 것이다.

국내의 유명 작가의 친필 원고를 볼 기회가 있었지만 루쉰의 원고와 견줄 만한 이는 없었다. 자기가 썼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겠는 작가가 있기도 하고 줄필로 글을 쓰는 작가 또한 많다. 내용에 비해 형

식이 졸렬한 경우가 허다한데 루쉰의 경우는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만나러 왔을까?

북경 루쉰 박물관에 다녀온 이후 나도 친필 원고를 남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러나 만고 욕심에 불과할 뿐, 흥내조차 낼 수 없는 악필인 나로서는 세월만 보내다 펜을 들기 시작한 것이 겨우 보름째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글씨를 단정히 써내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선생의 “누구라도 연습을 하면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다”는 한마디가 나를 움직였다. 그 말과 함께 까맣게 잊고 있던 루쉰 박물관에서 품었던 욕심이 되살아난 것이다. 연습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장문은 몰라도 짧은 자작시 정도는 아름다운 글씨체로 친필 원고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펜을 잡았다.

보름 동안의 변화는 무쌍했다. 동서남북으로 뛰어 날아가던 글씨체가 점차 안정을 찾고 한 글씨 한 글씨가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물론 선생이 보면 빨간펜으로 사정없이 교정할 글씨지만, 이전과는 다른 가지런함이 생겨났다는 뜻이다.



크리스탈의 성

알전등은 동굴 속
모닥불만큼이나 아득한
옛일
여전히 강아지들과
강아지 같은 것들은
아비를 위해 붉을 밝히고
웁막은 마천루로
동굴의 모닥불은
Led로 바뀌어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십구 문반의 신발은 여전히 돌아오네
박목월의 가정으로
저기 크리스탈의 성으로

한글에서 중요한 것은 내려긋기인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 짧은 획 하나, 겨우 1센티미터 정도의 내려긋기가 바르게 그어지지 않다니! 놀라운 발견이었다. 여기서 여담 하나. 내가 아는 친구 중에 한

국 최고의 서예가라고 불리는 여초 선생의 마지막 제자가 있다. 그가 스승을 서울에서 모셔와 부산에서 글 쓰는 친구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았는데, 여초 선생의 첫 가르침이 내려긋기를 한지에 100장씩 써



북천사 안뜰에서

태초에 한 말씀이
하늘과 땅을 나누니
일언지하(一言之下)
음양개천(陰陽開天)
획을 그으면
역사야 빠면
위치현존(位置現存)
무질량의 유일점(唯一點)
천상천하
여기는
송도가 보이는
북천사 안뜰

오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미 붓글씨를 적어도 20년 이상 쓴 필력이 있는 친구들에게 글의 가장 기본인 내려긋기를 100장이나 해 오라니. 기한은 일주일. 그 다음 주에도 선생은 똑같은 주문인 내려긋기를 100장 써오라는 숙제를 내고 서울로 가셨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주문이 있고 난 뒤에는 가로긋기를 내려긋기처럼 수도 없이 반복하게 하고는 그것이 익숙해질 즈음에는 다시 한문의 기본 중에 기본인 영(永) 자를 수천 번 반복해서 쓰게 했다고 한다.

나 역시 직업적으로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지만 여초 선생의 가르침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잘하고 싶으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그러니 나 같은 초보에게는 내려긋기를 죽어라 연습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러는 동안 집게손가락의 미묘한 움직임에 민감해지고 더불어 엄지의 역

할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손 전체로 글을 쓸 것 같지만 실제로 내려긋기는 집게손가락의 미세한 놀림이고 가로긋기는 엄지의 미묘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된다.

더군다나 평생을 타자기와 타이프라이터, 컴퓨터 자판에 익숙한 손가락이 연필을 잡을 기회를 박탈당했으니 이 느낌을 어찌 알겠는가. 요즘 펜글씨 연습을 하면서 이런 감각이 살아나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범열(法悅)에 해당할 것이다. 몸을 이해하는 과정이니까.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신체의 미묘한 변화와 반복연습으로 글씨가 가지런해지고 있다. 비록 유튜브로 배움을 청하는 형편이지만 선생의 글 쓰는 모습을 보면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짜릿한 감동이 차오른다. 선생의 글 쓰는 모습이 온전히 내게 전이되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글씨가

단정해져서 이미 달필이 되었을 것이라 오해하지는 마시라. 여전히 약필이지만 천천히 글을 쓰고 있노라면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지는 것이 너무 좋다. 집중력이 생기고 초연해지는 마음도 생긴다. 비록 선생님처럼 쓰지는 못할망정 내가 쓴 내 글을 내가 읽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가지런한 글씨를 보고 단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준다면 더 없이 좋은 목표라고 생각한다.

명필이라고 해서 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만 하더라도 우리 역사 최고의 필력으로 인정받지만 그 인품은 필력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글씨를 단정하게 쓰면서 생각을 단정하게 가지고 말을 바르게 하면서 천천히 스스로 음미하는 것은 아주 좋은 수양인 것은 틀림없다. 비록 일천한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난데없는 펜글씨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어서다.

조선시대 이중환(李重煥) 선생의 <택리지(擇里志)>를 따라 전국을 돌기 시작한 것이 벌써 3년. 서해와 남해, 동해를 돌아 찍은 사진을 책으로 묶었으니 이름하여 'Route 777'. 파주에서 서해를 따라 목포를 찍고 부산 시청까지 이어지는 길이 77번 국도다. 그리고 부산에서 통일전망대가 있는 강원도 고성까지 가는 동해안 길이 7번 국도. 그래서 이 두 국도의 번호를 붙여 '루트 777'이라는 제목을 단 사진집이 나왔다.

그리고 이어 백두대간을 타고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마을마다 촬영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다음 책이 될 “백두대간”이다. 이 연재를 보신 분들은 이미 “루트 777”과 “백두대간”의 일부를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백두대간을 촬영하러 시골 마을에 가도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나는 사람이 있는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행하여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이우환 공간

정신과 물질의 조응
물질과 조응의 대화
조응과 대화 사이에서 있는
저기저한 생각
근원을 묻고 답하는
질문이자 답은
물질과 생각이 만나는
가난한 찰나
오호라, 소를 찾은
스님의 일탈



가을 나비

뜨거운 아스팔트 위
숨을 몰아쉬던
나비 한 마리
물 마른 가지마다
붉디붉게
앉았네
가야할 때를
두려워 않는
하늘하늘 저 나비도
흰 눈이 오기 전
길 위를 뒹구는
우리들의 영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백두대간과 함께 옛날 과거시험을 보러 가던 길인 ‘영남대로’와 ‘삼남대로’를 함께 묶어 책을 만들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영남대로는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던 과거길이고 삼남대로는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던 과거길이다. 이 두 길을 이번에는 일정 장소까지 이동한 후 그 동네를 달리는 버스를 타고 촬영할 계획이다. 그러면 동네사람도 만나고 정류장에서도 촬영하며 보다 많은 소시민의 삶을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올 가을은 유난히 길었다. 홍엽이 가을바람에 손을 흔들고 갈 길을 재촉한 지도 여러 번. 아직 떨어지지 않은 홍엽이 긴 가을을 보여준다. 다음 주면 평년과 같은 겨울이 온다고 하니 슬슬 장비를 챙기고 겨울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버스 정류장을 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인연들의 관계, 그리고 지역마다의 특성과 사람들의 인심을 찍어내기란 쉽지 않겠지만 이것 또한 나의 일이다. 즐겁게 이번 겨울부터 내년 겨울까지 이어질 나의 일이다.

글쓰기가 마음과 육체와 펜과 종이의 만남이라고 하면 여행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자 새로운 마을에 대한 호기심 충족이다. 더불어 사진은 매번 만나는 새로운 조우를 빅뱅처럼 여기는 고귀함이다. 일기일회 기회를 동결시키는 일이다. 그러면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교정, 교열하는 일이기도 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펜글씨를 쓰면서 다음의 생각을 함께한다. 나의 인생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의 글과 사진 작업은 이 땅에 유익한지? 지금 글의 내용은 거짓 없이 절실한지? 내가 사진을 찍을 때는 온몸을 던지는지? 혹여 전문가라는 자부심에 남들이 모를 것이라는 오만함에 빠져 절절함 없이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펜글씨를 쓰면서 나를 돌아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원고를 퇴고하고 나면 나는 다시 펜글씨 연습을 할 것이다.

모든 행위에는 도가 있고, 그래서 한 길을 판 사람과는 서로 어우러지는 도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나의 도를 이룰 것이다.

김홍희 프로필

2008년 일본 니콘 '세계의 사진가 20인'에 선정되었고, 개인전 30여 회 열었다. 저서로는 『사진 잘 찍는 법』(김영사), 『나는 사진이다』(다빈치),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다빈치), 『세기말 초』(051), 『몽골방랑』(위즈덤 하우스), 『청춘방랑』(지혜), 『상무주 가는 길』(불광 출판사) 등이 있다. MBC '포토 에세이 골목', KBS 1 '명작 스캔들', EBS '세계 테마 기행-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짐바브웨' 등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다.

다시 만난 날

이 미 옥 소설가



바사삭, 사사삭. 한 발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낙엽 밟는 소리가 조청 유과를 씹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싱긋이 웃으며 이른 아침의 푸르고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을 올려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감나무 우듬지에 매달려 있는 까치밥에 눈길이 멈추었다. 장대 높이에 닿지 않는 곳에 날짐승 뒹으로 남겨놓은 붉은 홍시들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그는 평소 품고 있던 생각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했다. '진실로 차별 없이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마음'을 품은 채 숨을 크게 내쉬었다. 쌀쌀한 공기가 머릿속을 깨우고 온몸에 퍼져 체온을 답히는 듯했다. 붉게 물든 계절의 모습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다. 더구나 오늘은 그의 생일날이었다. 그는 생일날 아침마다 산책했고 끝날 즈음에는 어김없이 어떤 감정이 가슴을 타고 목울대를 넘나들었다. 기쁨인 듯했으나 슬픔인 것 같기도 했고 비워낼 수 없는 그리움 같기도 했다.

그는 병풍 같은 산에 둘러싸인 기품 있는 기와집으로 돌아왔다. 앞마당에는 멋진 수형을 가진 나무와 비틀어진 그마저도 범상치 않은 소나무가 어울려 있었다. 명절도 아닌데 집안에 기름진 음식 냄새가 풍겼다. 땃돌 위에는 어머니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매년 어머니에게 부탁드리는 것

이 검소한 생일상인데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싶었다. 대형마루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맞이했다. "산책이 길었네. 아침 공기가 찬데..."

어머니가 걱정을 내비치자 그는 괜한 심려를 끼친 게 아닌가 싶었다. 방안으로 아들을 들여보내면서 어머니는 식모에게 상을 차려오라고 일렀다. 잠시 후, 하인 두 명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일상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상다리가 부러지겠습니다."

그는 생일상 앞에 앉아 미역국을 비롯해 토장조치, 맑은조치, 전유어, 좌반, 회, 숙육, 구이, 나물 등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진수성찬을 보는 것만 해도 위장이 가득 차 늘어날 지경이었다.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어서 수저를 들거라."

그는 팔뚝을 들인 밥을 한수저 떠서 마지못해 입안에 넣었다. 산책하고 나면 밥맛이 좋아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다. 배부른 기분에 나른한 피로감까지 몰려오는 듯했다.

매년 생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다는 것이 아니라 잘 먹었다는 기분이 먼저 들었다. 정말 밥을 먹은 것이

아닌데도 배가 불렀고 기분까지 좋았다. 그는 기억하는 것보다 잊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생일날마다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작고 초라한 초가집에 들어가 제삿밥을 얻어먹고 돌아왔다. 소박하고 간소한 제사상인데도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여 있어 깊은 맛을 음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제삿밥을 다 먹고 나면 마음에 큰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 신기한 일이었다. 그리고 한동안 꿈속의 여운과 잔상이 짙게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그 기분이 잊혀지지 않을 때마다 어떤 그리움에 사로잡히고는 했다.

“천천히 먹거라.”

어머니는 밥 먹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밥상에 차려진 반찬들을 쳐다보다가 번뜩거리는 생각에 입가에 웃음을 띠었다.

“어머니 찬이 이렇게 많은데 밥이 적은 것 같습니다. 밥 한 그릇을 더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는 반색하며 식모에게 바로 밥 한 공기를 더 가져오라고 했다. 그는 얼굴색이 환한 어머니를 뽀글거리며 보았다. 무슨 일이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분이었다. 그러나 생일날마다 같은 꿈을 꾸고 이 후로는 자꾸만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분에 넘쳐 고맙고, 송구합니다. 저를 낳아 키우느라 고생한 어머니에게 해드리는 것도 없이 받기만 하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마음을 전했다.

“어미에게 더 무엇을 해준단 말이나. 이리 장성하게 자라 준 것이 은혜이거늘. 장차 큰일을 해야 할 아들 앞에서 주책이구나. 마음 쓰지 말고 편히 먹거라.”

어머니는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며칠 뒤면 집을 떠날 아들이었다. 눈물이

어롱거리는 어머니의 눈매에 애쓴 미소가 번져갔다.

한양에서 재상을 지내는 유 씨 가문에 태어난 그는 모자람 없이 유복하게 자랐다.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총명하여 글공부에 능해 장원으로 급제해서 벼슬길에 올랐다. 얼마 전, 새 동래부사로 임명되어 그곳으로 갈 예정이었다.

어머니가 방문을 나가자 그는 밥상을 보며 소매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덩이에 찬을 넣어 눈덩이를 만들 듯 두 손으로 뭉쳤다. 찰밥이라 동그랗게 잘 뭉쳐졌다. 그렇게 만든 주먹밥을 보자기에 싸두자 그는 만족한 듯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는 보자기를 챙겨 나갈 채비를 했다.

*

마을 외곽에는 낮은 토담에 둘러싸인 초가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는 초가집 사이를 걸으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지금보다 덜 힘든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힘에 부쳐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야만 삶이 나아질 것이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있는 팽나무가 보이는 자리에 섰다. 햇빛에 반짝이는 나뭇잎과 떨어질 듯 위태롭고 안쓰러운 나뭇잎을 보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아이들이 팽나무 아래에 앉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구멍 난 저고리를 입은 아이의 양 볼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어디 있긴! 여기 있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뺨아서 해진 뺨살을 신은 아이는 속상한 표정을 감추

지 않았다.

“그렇게 내뺨을 줄은 몰랐어. 흑흑.”

축 처진 입꼬리가 더 내려가더니 아이는 울음을 터트렸다.

“우리가 상놈의 자식이라서 그런 거야.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상놈이라 했어.”

아이들은 뺨살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다.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냐고...”

저고리 끈을 잠은 아이는 자신의 신세가 서러운지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흐느꼈다.

한쪽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는 지그시 어금니를 물었다. 곱게 물든 팽나무 단풍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울분에 찬 아이들의 붉으락푸르락한 얼굴빛으로 보여 심란하기 그지없었다. 어떤 일을 꿈꾸고 희망을 품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다. 그래서였을까. 마치 같은 경험이라도 해본 것처럼 그는 아이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어 참담한 기분이었다. 누구나 꿈을 가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미안해서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싶어 배에 힘을 주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그가 한 가락을 구성지게 뽑았다. 그러자 아이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남은 구절을 마저 불렀다.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노래를 마친 그가 아이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하면서 그의 눈치를 보았다.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작품 현장 사진에 붙이는 작가의 글] 조선시대 동래부사 (1649.11~1651.7)를 지낸 유심(柳愼)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석비에 얹힌 삶의 이야기를 엮어봅니다
[부산시 남구 대연동 부산박물관에 있는 유심 선정비]

아이가 뺨살을 고쳐 신고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들은 주먹밥을 한입 베어 물었다. 아이들은 맛있는지 동그래진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지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모두 다 꽃이라 하지만 세상에 다 같은 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저고리를 고쳐 입은 아이의 얼굴에는 총명한 기운이 어려 있었다.

“저마다 모양과 색깔이 다른 것뿐 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모양과 색깔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저고리 끈을 짚은 아이는 불통하게 쏘아붙였다. 그는 어찌 된 연유인지 물었다. 아이는 서당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벼슬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과거를 볼 수 없는 상놈이 분수를 모른다면서 내뺨았다고 했다.

“벼슬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가 묻자 아이는 서슴지 않고 답했다.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지요.”

“네, 우리 마을에 동래 부사가 났다고 들었어요. 수많은 일행을 거느리고 당도하는 부사 행차가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할까? 그런 분이랑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니 절로 어깨춤이 나는 것 같아요.”

짚신을 신은 아이가 신이 난 듯 말했다.

“저도 마땅히 그분처럼 대장부의 기개를 떨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구멍 난 저고리를 입은 아이의 간절한 눈빛과 강인한 면모에 그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럼, 나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는 아이의 어깨를 잡은 손에 살며시 힘을 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동래부.”

아이는 놀란 눈으로 입을 벌린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

동래부로 들어가는 길목에 권마성 소리가 기운이 넘쳤다. 나부끼는 깃발을 앞세우고 세악수와 취고수가 연주하는 피리, 대금, 징, 바라, 운라, 나발, 태평소 소리가 산천에 울려 퍼졌다. 군졸들의 행렬에 수종들이 받드는 쌍가마가 말을 탄 기병들의 호위를 받았다. 신임 동래부사 행차에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는 자신을 맞이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무언가가 차오르는 듯한 기분을 잊지 않기 위해 부임하던 날을 기록해두었다.

그는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위해 동래읍성을 보수하고 제방을 쌓는 등 민생의 안전을 돌보았다. 또한, 군사 전력을 강화하여 왜관을 통제하고 접대하는 책무

를 성실히 수행하는 나날을 보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유독 기다려지는 날이 있었다. 바로 그달의 열 닷새째였다. 그날은 마을 곳곳을 돌아보며 백성의 생활을 살펴보고 고충을 들었다. 이번에는 읍성의 서쪽을 돌아보기로 했다.

“오셨습니까?”

단정한 차림의 아이가 허리 숙여 인사하자 그는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고향에서 데리고 온 아이는 동래향교에 다니는 생도가 되었다. 향교에서 오래 공부하면 상민도 유생의 대우를 받아 우수한 자는 과거에 응할 자격을 얻을 수 있기에 그가 길을 터주었다. 영리하여 보고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아이는 여느 수행원보다 나왔다. 그는 아이와 읍성의 서문 쪽으로 향해 걸으면서 세상을 보는 서로 다른 시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지막한 흙담에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만든 초가집이 늘어선 길목에 들어서면서였다. 그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눈과 귀에 담았다. 한참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지칠 무렵 나막다리를 건너자 한 마을이 나왔다. 그는 이상하게 걸음마다 이어지는 마을 풍경이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참 편안한 기분이 드는구나.”

그는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문득 서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뭔가 발견한 듯 저도 모르게 걸음을 옮겼다. 아이도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는 길이 이끄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초가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마침 정지에서 한 노파가 나왔다. 그와 노파는 얼굴을 마주한 채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았다. 그는 뭔지 알 수 없는 애뜻한 감정이 솟구쳐 눈가가 붉어졌다. 노파는 열은 미소를 띠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잊지 않고 오셨네요.”

그가 당황하는 사이, 아이가 나와서 노파에게 다가

갔다.

“잘 지내셨는지요?”

아이는 노파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노파는 단아하고 고운 모습이었다.

“나리, 일전에 답사 왔을 때 배고픈 제게 정성스레 한 끼를 차려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아이는 노파와의 인연에 대해 말했다. 그는 자애롭고 온화한 노파의 모습에 시선을 놓지 못했다.

“별말씀을요.”

노파는 아이가 마치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누추하지만, 괜찮으시면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잠시 머뭇거리던 노파는 방으로 손짓했다. 아이가 그의 심기를 살피자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파가 다시 정지로 들어가고 아이는 낮은 소리로 물었다.

“어찌 알고 이 집으로 발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도 제집처럼 찾아온 것이 궁금하구나.”

그는 낮설고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집을 찬찬히 둘러보며 걸음의 기억을 되짚었다. 아이는 낮이 간 듯 우두커니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해거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노파가 들고 온 소반에는 식혜와 유과가 놓여있었다. 그는 밥알이 동동 떠 있는 맑은 식혜 한 대접을 받아 들고 마셨다. 아이는 유과를 한입 베어 물었다. 바삭, 바삭, 바삭. 유과를 씹는 소리에 잠겨 있던 어떤 기억이 열리고 있었다. 많이 달지 않고 개운한 식혜 맛이 기억 속에 해소되지 않던 어떤 갈증을 풀어주는 듯했다.

“어찌 홀로 있으십니까?”

그는 착잡한 심정으로 조심스레 물었다. 노파는 어린

아들이 동래부사 행차를 보고 부사의 꿈을 가졌지만 신분 때문에 꿈이 좌절되자 병을 앓고 죽었다고 했다. 그 뒤로 매년 아들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나 자신이 양반집에 태어나 벼슬을 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노파의 이야기를 들으며 매번 같은 꿈을 꾸는 꿈속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꿈속의 여운이 되살아난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꿈속의 일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제삿날이 언제입니까?”

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바로, 내일입니다.”

노파는 목이 멘 듯 잠시 끊어 말했다.

“아, 아…”

그는 열은 탄식을 내뿜었다. 내일이 그의 생일이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물들어있던 그리움이 노파에게 닿아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내일 제가 제삿밥을 먹으러 와도 되겠습니까?”

노파는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그는 곁에 있는 아이의 손을 그러잡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파를 오래도록 보살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미욱 프로필

2005년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단칼」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으로 『서비스 서비스』 『밤이 아닌 산책』이 있다. 2010년 한국예술위원회 차세대예술가기금, 2013년 요산창작기금 수혜, 2018년 부산소설문학상, 2019년 현진건문학상 추천작, 2020년 부산작가상을 수상했다.

안기태 시사만화가

시대의 아이콘, 팔순의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 해직·복직·테러 우여곡절... 詩作·카툰 매력에 흠뻑

대담: 윤 기 현 부산대 디자인학과 교수



안기태 시사만화가와 그의 페르소나 캐릭터 '피라미'

필자도 90년대 시사만화가였다. 비록 아마추어를 갓 벗어난 작가였지만, 당대 시사만화가 안기태는 절정을 달리던 대선배님이었다. 그 안기태 선생을 언젠가 만나고 싶었다. 드디어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시사만화 100주년(2009) 즈음이었다. 어느 봄

날 부산의 한적한 식당. 대낮 부산의 시사만화가 선배들은 불과하듯 낮술을 했다. 말수도 적고 묵묵히 맥주를 드시던 인상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안 선생은 그 후로 전 사회와 이런저런 일로 자주 뵈었다. 더구나 '부산 만화사 연구'란 핑계로 인터뷰도 몇 번 했었다.

이번 안기태 평전을 쓰기 위해 또 오랜만에 연락을 취했다. 언론사 출신들은 대개 전화통화도 명료한 것이 특징인데, 바로 연락과 수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가을별이 다가온 10월, 해운대 선생님의 아파트 거실에 마주 앉았다. 42년생임에도 선생은 아직도 건강하시니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을 듯하다.

이번 인터뷰의 가장 큰 수확은 그의 전사(前史)를 들었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그가 언제 어떻게 데뷔했는지가 궁금했는데, 어떤 글에서도 그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카툰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만화론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생대학 출신 늦깎이 시사만화가

— 요즘도 매일 연재를 거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안기태 선생(이하 안 선생): 서너 개 신문에 연재해요. 일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안 선생: 밤늦게 일하고 아침 식사, 구독하는 신문 11개를 읽고 스크랩하면 오전 중 일과는 끝납니다. 오후에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고 원고작업이 오후 6시경 마무리되죠. 그 이후에는 인터넷 장기도 두고 어쩌다 친구들과 술 한잔할 때도 있습니다.

— 작업은 수작업 말고 디지털 작업도 하십니까?

안 선생: 스캔하는 정도만 하고 옛날식으로 직접 펜과 붓으로 그립니다.

— 선생님 데뷔 전의 개인사가 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마산에서 자라셨네요.

안 선생: 마산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문단의 마지막 순수시인'으로 불린 천상병 시인이 우리 동문이고 부산 이상개 시인은 오래된 동문이자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는 보통이었는데, 서울의 모 대학 축산가공학과에 합격했어요. 장학금 조건으로, 그런데 갑자기 그 제도가 사라져 버렸고 형제가 9남매 중 일곱 번째인 제가 집도 가난하여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부터 여러 직업을 전전했죠. 안 해본 게 없어요. 마산, 진해에서 철사공장 노동자, 용접봉 회사, 백연탄 공장, 건어물 도매상 종업원, 과외선생, 강강이 등등. 그래서 나는 남들처럼 일반 대학 대신 '인생 대학'을 다녔다고 해요. 다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들이죠.

— 아... 만화를 시작한 게 1973년이군요. 매우 늦은 시기에 데뷔하셨습니다.

1980년 2월28일 정부는 윤보선 전 대통령, 김대중 씨 등 긴급조치위반자 687명을 복권시켰다.

복권을 환영하는 이의 모습을 그렸으나 계엄사 검열단은 이를 허용치 않다가 명찰에서 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만평을 쓰도록 했다.



안 선생: 11년 만에 인생 대학을 졸업하고 서른 넘어 입문했어요. 아마 2년쯤 국제신문 화백님의 시보를 좀 했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박인성 화백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 이광우 당시 편집국장이 나를 눈여겨봤나 봐요.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하더라고요.

— 그럼 어릴 적 만화를 좋아하는 하셨나요?

안 선생: 스토리 만화 보다 신문 만화와 카툰을 좋아했어요. 가장 오랜 친구 이상개 시인에게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나는 나중에 꼭 <블론디> (한국일보에 연재되던 미국 작가 칙 영의 만화) 같은 네 칸 만화 그리고 싶다”라고 했었죠.

해직, 그리고 테러

— 원하던 일간지『국제신문』에서 매일 만화를 그리니 행복하셨겠어요.



이른바 정치깡패 사건을 풍자한 만화로 안기태 선생은 테러를 당했다 (1988년 9월 29일 부산일보의 네 칸 만화)



서민을 대변하던 시사만화가는 2003년 30년 만에 은퇴했다 (2003년 4월 30일, 국제신문)

안 선생: 정말 열심히 그렸죠.

— 그러다가 만 7년쯤 되던 전두환 정권 때 언론 통폐합(1980년 11월)으로 해직이 되셨습니다. 당시 시사만화가로 강제해직된 것은 선생님이 유일할 겁니다.

안 선생: 하루아침에 동료들과 길거리에 나 앉았죠. 퇴직금은 받았지만, 그때가 내 집 마련하고 애들도 어려서 돈들 어갈 데가 많을 때라서 참 많이 캄캄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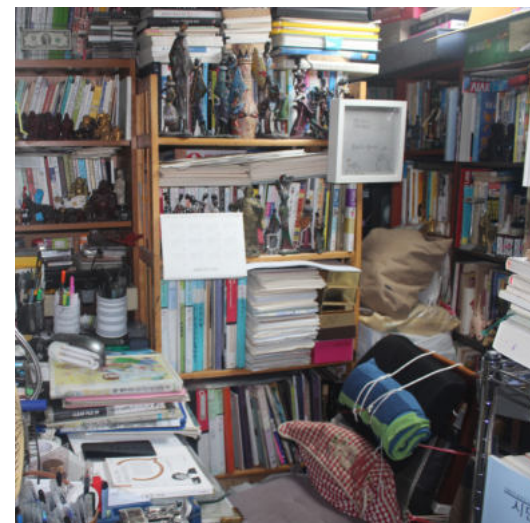
—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해직 이후 몇 달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 선생: 복직 운동을 했어요. 관계 기관에. 그냥 죽을 수 없

으니까. 해직 기자는 6년간 재취업을 못 하게 했어요. 그러다 『부산일보』에서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문공부에서도 허가가 났어요. 우여곡절 끝에 복직했죠.

— 그리고 1988년 이른바 ‘용팔이 사건’ 때 테러를 당하셨는데, 한국에서 시사만화가가 당국에 끌려가는 일은 있어도 테러는 참 드문 경우입니다.

안 선생: 그 만화가 나가고 어떤 단체라면서 몇 번 협박 전화가 오더니 며칠 뒤 퇴근하는 밤에 당했어요. 한 달여간 입원을 했죠. 담당 의사가 그러데요. 내 뒤통수를 친 각목이 조금만 옆으로 비껴났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라고. 병원에도 협박 전화가 오고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도 이상한 전화가 와서 하는 수 없이 한 달 만에 퇴원했어요. 집에서 원고 작성해서 회사 차로 배달하고 그 일을 석 달간 했어요.



50년도 넘어 보이는 작업실 책상과 빼곡한 자료들

— 그 풍자도 지금 보면 은유적 화법인데, 아주 작가를 노리고 폭력을 행사했네요.

안 선생: 그때 중앙경제 신문사 기자가 테러를 당해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부산은 지방이라 큰 이슈가 안됐어요. 다행히 해직과 테러 사건으로 민주화 유공자라는 벼슬은 하나 얻었습니다.

— 1990년 드디어『국제신문』에 복직하십니다.

안 선생: 이광우 옛 편집국장이 새『국제신문』사장이 되면서 국제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옛 은혜를 갚을 기회였지요. 당시 송정제『부산일보』사장이 자기 방에서 남아 달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러주신 정도 중요하지만, 낳아준 정이 크다” 했더니 결국 저를 놓아주셨어요.

— 2003년 은퇴하셨으니 부산의 일간지에서 모두 30년간 근무하셨습나다.

안 선생: 어찌 보면 고마운 일이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독자들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 선생님 그림은 제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90년대 당시 저도 지방 일간지 시사만화가였으니까요. 뭐랄까 선이 남달랐다고나 할까요. 묵직한 명암처리에 한마디로 기품이 있었습니다.

안 선생: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지요.

— 연세보다 정정하신데, 최근 몇 개씩 연재하시잖아요. 건강 유지를 위해 운동 같은 걸 하십니까?



안기태 선생의 만화 캐릭터들

안 선생: 아령에, 만 보 걷기 같은 근력운동을 좀 해요. 매일 연재하는 편인데 일간지『창원일보』, 주간지『밀양신문』,『영남매일』, 월간지 등에 그림니다.

— 일을 계속하시니 건강한 거네요?

안 선생: 내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지요.

— 흔히 작가들이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늘 생각하니 엔도르핀이 솟고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시사만화가들 이야 그만큼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안 선생: 글썸... 오히려 난 나이 드니까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르던데요. 젊었을 때는 아이디어 안 떠올라 끔찍했는데... 요즘은 시작(詩作)에 재미를 붙여 '시도 아닌 것'이라는 제목으로 모 주간지에 연

재 중인데, 대략 270편쯤 됩니다.

카툰에 대한 열정

— 재직 중에도 은퇴 이후에도 카툰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뭐랄까, 카툰의 매력에 빠진 거 같습니다.

안 선생: 카툰이야말로 만화의 장르 중에서 가장 예술적이고 사람들에게 웃음과 페이스를 주니까요.

— 달에 걸터앉아 펜대에 낚싯줄 걸고 소주병을 낚는 유명한 그림부터 자연풍경을 이용한 풍자까지 시사만화와 달리 아주 예쁘고 낭만적입니다.

안 선생: 그게 카툰의 매력이지요.

— 지금 카툰은 모두 몇 점 정도 갖고 계세요?

안 선생: 좀 팔기도 했지만... 달을 주제로 전시도 하고 카툰집 책도 내 보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아이디어는 한 50개 만들어 봤어요.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주제 하나로 카툰 전시회를 하고 싶어요. 기존 카툰 전시나 카툰집은 백화점 식이었지요.

— 사실 영도다리 재개통할 때도 카툰 전시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안 선생: 우리 카툰클럽에서 해보려고 생각은 했는데, 서로 살기 바빠 잘 안됐지요. 윤 교수는 카툰 좀 그리나요?

— 요즘 많이 안 그러서요. 논문을 주로 씁니다.

선배님 앞에서 외람되지만, 이제 펜을 오랫동안 안 잡다 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인기인 웹툰은 찾아보십니까?

안 선생: 늙어 그런지 시나 만화도 긴 것은 잘 안 보게 됩니다.

— 선생님 서재에는 예전 카툰, 만화 관련 책 고서들을 많이 모으셨어요. 한 3,000권 되려나요?

안 선생: 아주 오래 모았어요. 내 보물이지요.

— 요즘 연락하는 동료만화가는 계세요?

안 선생: 서울에서 시사만화가 송년회도 있고 더러 만났죠. 코로나 이후로는 만나기가 힘들어졌어요.

— 요즘 신문에서는 시사만화가 많이 줄었습니다.

안 선생: 세계적인 흐름이지요. 만화나 만평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러니 언론사주들이 꺼리는 것 같아요.

— 부산 지역에서 후학을 키우는 데도 앞장서셨어요.

안 선생: 부산예술대학, 동아대 같은 곳에서 카툰을 10년 넘게 강의했어요. 대학에서 특강도 좀 했고요.



안기태 선생의 카툰 소재는 주로 달과 술, 그리고 낭만이다.
왼쪽:달과 연인(2004), 가운데:가로등 아래서 독서하는 달 토끼(2005), 오른쪽:술꾼과 달(2019)

— 교육도 보람이 있으시죠?

안 선생: 사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이 만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뿌듯합니다.

— 예전에 신문사 전속이실 때 기자들과 저녁이 되면 반주도 한잔하고 그러셨죠?

안 선생: 외근기자는 만나기 힘들고 주로 내근기자 들하고 편집국 소속 기자들하고... 만화 그리는 사람들은 퇴임 때까지 편집국 귀신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는 만화가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춘평했다.

“시사만화 그리려면 많이 들어야 해요. 그래서 술 자리 같은 걸 자주 어울리는 거지요. 혼자 처박혀서 끄꿍대봐야 좋은 아이디어 안 나오거든요. 좋은 사람들이 옆에 항상 있어야지요.”

안기태 작가 프로필

호는 석제(燭齊).
1942년 일본 도쿄에서 출생, 마산에서 성장
합포초등학교, 마산 중·고등학교 졸업
10여 년간 노동자, 자영업 등
1971-1973 『국제신문』 박인성 화백에게 시사만화 사사
1973-1980 『국제신문』 『피라미』 연재
1980 신군부 언론정책으로 시사만화가 중 유일하게 해직
1981-1990 『부산일보』 만평, 네 칸 만화 『어리병 씨』 연재
1988 ‘용팔이’ 사건 풍자로 테러
1990-2003 『국제신문』 복직, 만평, 네 칸 만화 연재 (총 9,201회 연재)
부산 카툰작가 클럽 회장, 한국시사만화가회 부회장, 영남 언론미술기자회 회장 역임
『부산 CEO가 웃는다』 『감천마을 초대전』 등 개인전, 단체전 30여 차례
『경북일보』 『리더스 경제신문』 등 일간, 주간, 월간 등 40여 곳에 연재
저서: 『詩도 아닌 것이』 『시사만화선집<피라미 선생>』 『안용복 장군』
봉생문화상 언론부문(1998), 부산시 문화상 언론부문(2019) 수상
2022년 현재, 『창원일보』 『영남매일』 『밀양신문』 등에 연재 중



윤기현 프로필

1965년생. 일본에서 카툰으로 석사학위를, 경북대에서 만화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 부산 영상애니메이션포럼 회장과 한국만화웹툰학회설립준비위원장, 만화포럼 대표를 거쳤다. 논문으로 『근대 동아시아만화의 특징』 외 20여 편, 저서로 <동아시아 근대만화사 산책> 외 10여 권이 있다. 현재 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애니메이션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2030 엑스포 유치하면 부산은 물론 우리나라에 기회 될 것...정치인은 여야 떠나 지역 위해 몸 바쳐야”

대담: 김 용 성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정의화 전 국회의장

사진: 김성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독특한 이력이 많은 정치인이다. 1996년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그는 현직 의사 신분이었다. 부산 토박이로 영남권 정당에서 줄곧 활동하면서도 영호남 화합에 앞장서 광주 명예시민, 여수엑스포유치위원장, 광

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5선 의원으로 국회의장을 지내다 2016년 5월 퇴임한 뒤 곧장 부산으로 내려왔다. 대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 부산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다. 재선 국회의원 때 당 부총재에 도전하기도 했고, 부산시장 당내 경선에 두 번이나 도전했으며, 대선 도전을 심각히 고민하기도 했다. 이런 그의 경력을 보면 눈치 보지 않고 아웃사이드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특유의 자유로움과 독심이 느껴진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활동적인 정치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부산 동구 초량동 국회의원기념관에서 만났다. 그는 정치 현역에서 은퇴하면서 염색을 중단해 화려한 백발을 자랑한다.

— 안녕하세요? 의장님,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地域社會』 창간인이자 동서학원 설립자로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셨던 고 장성만 이사장님과 인연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하 정 의장) : 네, 반갑습니다. 장성만 부의장님은 11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계의 대선배님이십니다. 제가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우연히 해운대의 한 호텔 로비에서 뵈고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알아보시고 의정활동 잘하라고 격려를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장성만 부의장님께서도 흰칠한 용모에 인상이 환한 보름달 같은 인자한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2015년 제가 5선 국회의원 때 타계하셨는데, 장제국 총장의 요청으로 발인식에서 추모사를 하였던 것이 큰 인연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일과는 어떻습니까?

정 의장 :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기념병원과 안락동의 동래봉생병원 그리고 지금 인터뷰 하고 있는 초량의 정의화 국회의원기념관에 사무실이 있는데, 매일 번갈아 출근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생가를 개조한 기념관 (2018.2. 개관)



봉생문화회를 창립한 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정치에 입문하였다

— 이제 70대 중반이신데도 여전히 건강하십니까. 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 의장 : 저는 의사로서 신체는 정신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바른 생활, 바른 정신, 이런 것이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명상과 사색, 독서도 건강과 직결됩니다. 저는 주택에 살고 있는데 역기와 아령을 가져다 놓고 근육량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골프도 치고, 황

령산을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오르기도 합니다. 의학적 지식을 생활에 활용해서 음식을 싱겁게 먹고, 물을 많이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바디 조사를 해보았는데 제 근육량이 표준치를 넘더군요.

—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정 의장 : 코로나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국내에 머물렀는데, 지난해 6월 시간을 내어 아내와 함께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미국의 국립공원 10곳과 주립공원 4곳을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SUV 차량을 렌트해서 저 혼자 운전했는데 한 달 동안 5천km 넘게 다니면서 사진도 3천 장 넘게 찍었습니다.

— 그 연세에 미국 자동차여행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특별히 관심 가지고 추진하시는 일이 있으신지...

정 의장 : 저는 뇌혈관 수술을 주로 하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 75세가 정년입니다. 2023년 새해에 저도 만 75세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첫째로는 평생 바쳐온 봉생병원이 영원히 부산시민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병원이 되도록 가꾸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행정책임을 맡고 있지만 아직 어렵습니다. 다음은 아버지 일대기를 정리해서 책으로 엮는 일입니다. 2023년이 선친 탄생 100주년입니다. 또 국회의장 때 일들을 백서로 만들었는데,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책으로 내놓으려 합니다. 병원 일로는 남구 감만동에 약 250병상의 재활 중심 봉생힐링병원을 신축 중인데, 3월 2일 개원 예정입니다.



수술 중인 신경외과 전문의 정의화

— 의장님 업적 가운데 국회도서관 부산 유치가 손꼽히는데요, 도서관에 가보셨지요?

정 의장 : 물론이지요. 국회부산도서관이 2022년 3월에 개관했는데, 개관식에서 축사도 하고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과 함께 기념식수도 했지요. 2014년 여름에 신라대 초의수 교수 등이 국회의장실로 찾아와서 부산의 열악한 공공도서관에 대해 함께 걱정하면서 국회도서관의 부산 분관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박관용, 김형오, 저 이렇게 세 사람의 국회의장을 배출한 부산 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시장경제체제 민주국가의 부작용의 하나가 빈부격차인데 이를 완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도서관과 도시공원이라는 소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나 빈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모든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업적 중 하나가 국가 도시공원법을 제정한 겁니다. 국회도서관 분관은 힘든 일이 많았지만 결국 성취되어서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 선정에

애로가 있었는데, 동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에 국회도서관이 어엿하게 자리 잡게 되어서 부산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한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금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의장 : 부산은 도시 인구로 따지면 세계 40위권에 해당하는 대도시입니다만, 많은 점에서 부족합니다. 국내 100대기업에 들어가는 대기업 하나 없는 곳이란 점과 부산지역 대학이 서울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산은 기업친화적인 도시가 되고 국립부산대학교와 동서대학교와 같은 사학들이 세계적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030월드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한다면 천금 같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남권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서구 명지국제도시에서 열린 국회부산도서관 개관식 (2022.3.)



정부 예산안을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정의화 의장 (2014.12.)

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탁월한 실력과 경륜을 갖춘 박형준 시장을 중심으로 부산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상공인, 지식인들이 똘똘 뭉쳐 준다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 2016년에 국회의장에서 퇴임하셨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크셔서 현역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의장 :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닌가요?(하하) 국민의 힘 상임고문 대표직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습니다. 다만 후배 정치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역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새한국의 비전’ 사단법인 활동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정치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새한국의 비전’은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1년에 네 번 정도 토크쇼와 세미나 등을 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개인적으로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현재 구독자는 천 명이 안 되지만 보는 사람은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 이제 2024년에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정 의장 : 정치가 점점 국민의 마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를 잘하고 정책을 잘 세워야 경제도 나아집니다. 총선을 얘기하면 현재 상황에서 알 수 없지만 갈수록 불투명하고 불안한 것은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 이후 3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잘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을 발탁해서 장관도 시키고 당의 중책을 맡겨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젊은 변화를 일으키는 당이 되어야 합니다.

—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개인적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의장 : 윤 대통령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첫 조각에서 여성이 한 명도 없었고 호남 출신 역시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통



‘새한국의 비전’ 창립기념식에서 (2016.5.)

령은 인사에서 전국의 인물들을 골고루 조화롭게 발탁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괜찮습니다만, 검찰 출신들이 너무 요직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감위원장까지 검찰 출신이 맡았지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영남 출신이 적었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탕평책이 중요합니다. 제가 나름 메시지를 보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데요, 윤 대통령은 과거 정권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사면을 시켜주는 화해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또 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절차 민주주의입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에 의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것은 난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속도가 느더라도 의견을 수렴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했습니다. 그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주에도 여러 번 가고, 계란 세레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11번 이상 약속했는데,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세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로 국회와 사법부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또 하나는 87년 체제인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빨리 바꾸는 일입니다. 그동안 8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단임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빨리 개헌해야 합니다. 준내각제 또는 내각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2024년 총선에 개헌에 대한 공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확실히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이 발언은 기성 언론에 해야 하지만, 이 잡지(『地域社會』)는 우리 사회의 엘리트 리더들이 많이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 봅니다.

— 젊은 지도자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정 의장 : 말들은 젊은 정치인을 발탁하자고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50대 초반 나이로 재선에 성공한 뒤 당 부총재 경선에 출마했는데, 당 일각에서 저를 심하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엇도 안 마른 젊은 친구가 당직에 도전한다’ 뭐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40대 지도자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주시 바랍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2, 3년 공부하고 원숙해져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젊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생태계를 가꾸는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 끝으로 후배 정치인들에게, 특히 부산의 후배 정치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장 : 저는 나라의 국운이 관계되는 일은 정당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락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수엑스포를 예로 들면, 엑스포를 통해 여수는 천지개벽되었습니다. 국회에서 10조 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주에서 여수까지 철도가 복선화되어 KTX가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이순신 대교도 건립되었습니다. 2030월드엑스포가 유치된다면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부산은 6.25전쟁 때 시민과 피난민들이 온몸을 바쳐 나라를 구한 곳입니다. 이제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신공항과 엑스포에 부산의 의원들은 뚝뚝 뭉쳐야 합니다. 또 하나 대학과 기업이 발전해야 하고 산업은행이 와야 합니다. 금융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에는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데,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의견을 모은 뒤 수도권 의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된 다음 한 번 더 하려고 표 같이만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동입니다. 국회의원이 된



정의화 의장의 제안으로 열린 중견국가 국회의장회의 (2015.7.)

다음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당리당락을 떠나 지역을 위해 일해주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 그밖에 꼭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정 의장 :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일본 전문가이니까 한일관계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일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강점당한 이유는 일본 탓만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국제정세에 관심이 없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 탓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국제질서는 냉전으로 접어들고 보호무역으로 이기적 국가경쟁 형태가 발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일인 체제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며 패권국으로 나설 채비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웃나라인 일본과 우리는 어깨동무를 해야 합니다. 폴란드와 독일,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독일이 용서를 구했고, 폴란드는 독일을 용서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입니다. 때문에 과거를 서로 반성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서 앞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프로필

1948년생, 부산중·고교 졸업, 부산대 의과대학 졸업, 연세대 의학석사, 인제대 의학박사, 한국해양대, 조선대, 전남대, 공주대 명예박사.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추천,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부산 중·동구 선거구에서 내리 5선을 기록했다. 국회부의장을 거쳐 2014년 5월부터 2년 임기의 제19대 국회의장으로 재임했다. 국제로터리클럽 초야의 봉사상, 일본 육일대 수장 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여주시, 세종시의 명예시민이며 전북 명예도민, 고흥군 명예군민이다. 현재 봉생기념병원과 동래봉생병원의 의료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단법인 남북의료협력재단과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에서 각각 이사장을 맡고 있다. 대학 때부터 사진에 관심을 가져 개인 사진전을 다수 개최하였으며, 『정의화의 아름다운 복수』(2017) 등 다수의 책을 출간했다.



김용성 프로필

(전) 부산MBC 보도국장, 상무이사
(현)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언론학박사)

거듭 ‘인사가 만사’를 되새기며

장 지 태 지역사회연구소장(방송영상학과 교수)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 사고 발생의 문제점과 함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불감증도 기가 막혔다. 이번 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다. 16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한 순간에 압사당했다. 부상자 수는 그보다 더 많았다.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15분, 서울 한복판에서 생떼 같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다쳤다. 국가는, 정부는, 경찰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3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난 지 8년이 넘었지만 사회 안전망이 여전히 허술하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참사 이후 많은 이들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을 거론했다. 읍참마속은 『삼국지』 <마속전(馬謖傳)>에 나오는 말로, ‘울면서 마속을 벤다’는 의미다. 마속은 촉나라 승상 제갈량의 절친 마량(馬良)의 막내동생으로 촉망받던 젊은 장수였다. 서기 227년 제갈량은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출진했다. 제갈량이 가장 고심했던 문제가 보급 수송로의 요충인 가정(街亭)을 어떤 장수에게 맡기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때 마속이 자원했다. 제갈량은 마속더러 가정의 성곽을 굳게 지키고 산 위에 영채를 세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마속은 제갈량의 지시를 어기고 산 정상에 진

을 쳤다. 그걸 본 위나라군은 결전을 서두르지 않고 산기슭을 포위한 채 수원을 끊어 버렸다. 식수가 끊기고 식량이 동나자 마속은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와 위나라 포위망을 뚫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부하들을 대거 잃고 구차한 모습으로 제갈량의 본진에 도착했다. 가정을 빼앗기자 제갈량은 중원 진출의 꿈을 접고 회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령을 어긴 마속은 군율에 따라 참수형을 당했다. 마속의 재주를 아낀 많은 참모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제갈량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는 소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며 말했다.

“그는 참으로 아까운 장수요, 더욱이 마량의 아우이고, 젊은 인재가 부족한 우리 실정을 감안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소. 그러나 사사로운 정 때문에 군율을 어기게 되면 앞으로 여러 장수와 병사들의 기강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윤회근 경찰청장도 새 정부 출범 후 첫 경찰 수장이다. 두 사람 다 윤 대통령에게 ‘믿을 만’일 터이다. 읍참마속은 대의를 위해 아무리 아끼는 측근이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권력의 공정성과 과단성을 일컫는다. 윤 대통령도 제갈량의 읍참마속을

되새겼으면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인사가 매끄럽지 못했다. ‘자나친 엘리트 선호’, ‘검찰 출신 과다 등용’ 같은 지적이 많았다. 정치 이력이 짧은 윤 대통령은 고정 지지층이 없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해”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골수팬 이른바 ‘문빠’도 없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딸’ 같은 팬덤도 없다. 이렇수록 윤 대통령은 국민이 왜 자기를 불려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되살려야 마땅하다. 그 토대가 바로 인사다.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 분열돼 있다. 국민 통합이 발등의 불이다.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책이 해법이다. 야당 진영에 속해도 능력이 출중한 인사들은 삼고초려하면 좋겠다. 젊고 유능한 인재, 여성 인재들을 많이 등용하면 더 좋겠다. 물론 대통령실과 중추 권력의 핵심 자리 몇 곳에는 능력 있고 강직한 심복을 배치해도 무방할 터이다. 그 복심들은 대통령이 듣기 싫은 쓴소리도 과감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신 장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고위직에는 유능한 전문가를 널리, 두루 발탁하는 게 옳다. 그런 다음 권한을 충분히 주고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에게는 골치 아픈 국내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성장 동력이 우려되는 데다 ‘N포세대’ 청년들이 ‘헬조선’에 절망하고 있다. 전 정권의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재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도 심각하다. 가뜩이나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다.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분주한 외교 나들이에 경제 현장 방문에 영일이 없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과 노동단체, 일부 언론의 발목 잡기가 이어지니 생각할수록 야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국민민복에 매진해야 하는

건 대통령의 숙명이다.

여기서 하나 제안하고자 한다. 국무총리와 장관의 연령대를 확 낮추자는 것이다. 국무총리를 50대 내지 60대 초반에서 발탁하고, 장관도 30대, 40대, 50대에서 두루 선임하자는 것이다. 탕평책에 기반한 화합형 ‘젊은 내각’으로 국정을 활기차게 이끌자는 것이다. 유능하고 강직한 젊은 인재들에게 합당한 자리를 주고 경력을 쌓도록 하면 나라의 미래를 선도할 차세대 리더로 떠오를 것이다. 야당과의 협치도 필요하다. 예수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다. 야당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원수까지는 아니지 않은가. 대통령이 통크게 야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되면 축구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이른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기적이, 국민 단합의 힘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윤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많이 남았다. “인기가 없더라도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결단은 높이 사고 싶다. 흐릿했던 국정 방향이 뚜렷해졌다. 역대 정권이 노동·연금·교육개혁에 실패하고, 뒤로 미룬 건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엇갈리고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마저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아득해질 것이다.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 대계를 위해 이들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절박한 것은 자신의 결단을 뒷받침하고 실행에 옮길 인재들이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써야 한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열쇠는 결국 ‘인사가 만사’라는 그 인사일 듯싶다.

장지태 프로필

《부산일보》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을 거쳐 2016년 3월부터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 『백산의 동지들』(1998·공 저), 『서울공화국은 안 된다』(2004), 『부산의 오늘을 묻고 내일 을 길다』(2016)

地域社會(지역사회) 제4권1호를 펴내며

이태원 참사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여기서는 월드컵 16강 진출의 두 주인공 파울루 벤투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벤투 감독은 4년 4개월 동안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다. 고집스레 자신의 축구 철학과 용병술을 고수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에게 그다지 인기도 없었다. 그러나 선수들의 후일담은 달랐다. 벤투 감독은 선수들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고, 승부에 치우쳐 부상 선수들도 자주 출전시킨 K리그 감독들에게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나라 밖 첫 월드컵 16강 진출은 꽤 거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떠난 그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길 기원한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는 이태원 참사에, 불경기에 지친 국민에게 벅찬 희망을 선사했다. 그는 월드컵 개막 19일 전 유럽축구연맹 조별리그 경기에서 공중볼을 다투다 안와(안구가 들어가는 두개골 뼈의 빈 공간) 부위에 4군데 골절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보호 안대를 착용한 채 월드컵 4경기를 풀타임 소화하는 투혼을 보였다. 월드컵 16강 진출의 고비가 된 포르투갈전에서 그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선수들이 모두 지칠 대로 지친 후반 추가 시간에 그는 볼을 잡고 70여m를 질주했다. 그리고 침착하게 황희찬에게 역전 골을 패스했다. 국민은 환호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직후 인터뷰에서 그는 동료 선수들과 감독에게 공을 돌렸다.

우리는 월드컵 16강 진출이 감독과 선수들이 하나로 뭉친 '꺾이지 않는 마음'의 위대한 결과였음을 생생히 보았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판에도 저런 감동이 있길 고대하고 있다. 벤투 감독과 선수들 간의 상호 신뢰, 손흥민의 책임감이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전파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地域社會(지역사회) 제4권1호를 펴낸다. 이번 호 커버 스토리는 [해양클러스터와 부산 발전]이다. 부산은 오랫동안 '동북아 해양수도'를 내세워 왔지만 내실이 따르지 못했다. 영도구 동삼 혁신도시에 자리잡은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들과 여러 대학, 관련 기업들과 부산시가 힘을 합쳐 해양클러스터를 제대로 조성·발전시킨다면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는 <동북아협력 심포지엄>과 <한일 신시대포럼> 지상중계는 부산이 정보 발전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생각된다. 옥고를 신계 해주신 발표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지역사회 발전에 모퉁이들을 놓겠다는 우리 잡지의 취지에 호응해 흔쾌히 집필과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도 거듭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 정성을 쏟아주신 출판사 편집진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장지태 본지 편집인



학교 발전기금 안내

『지역사회』는 동서대 지역사회연구소가 연간 2회 발간하는 잡지로, 학술 및 연구자료로 활용됩니다.

동서대의 인재 양성을 격려하기 위해 학교 발전기금을 후원하시는 분께는 가정이나 지정하신 곳에서 발행과 동시에 신속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서대 발전기금 계좌 농협 301-0160-4025-91

문의처 Tel. 051-320-1500

동서학원 설립자 장성만 박사 추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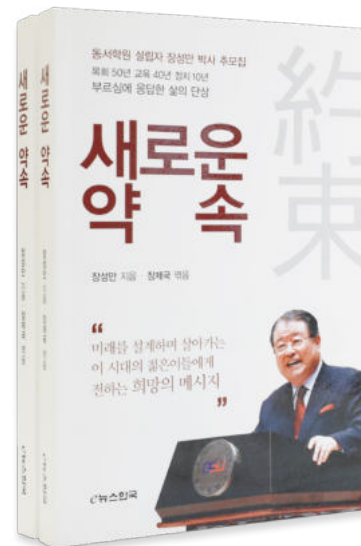
목회 50년 교육 40년 정치 10년

부르심에 응답한 삶의 단상

새로운 약속

장성만 지음 · 장제국 엮음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MY
BRIGHT
FUTURE

미래형대학 이런 대학 없습니다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경험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해외 10대 거점 도시에서 현장체험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국내 등록금으로 미·중·일 해외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시아 각지를 무대로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 1년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영어 몰입형 수업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은
언제, 어디서든
가르칩니다

- 24시간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교내현장실습 강의실을 구축하였습니다
- 영화·영상·콘텐츠·디자인·AI 등 특성화 교육을 집중 육성합니다
- 강의, 교수, 강의실, 시험이 없는 혁신적인 수업이 운영됩니다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언제든지 적성에 맞는 학과로 전과가 가능합니다
- 희망자 모두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 크리에이터 활동을 위한 1인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 창업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전과정을 지원합니다